현대불교

제 76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2월 3일(음력 12월 20일) 수요일(주간)





자승 스님 방북

민화협 초청, 용화사 복원 · 의료기관 설립 등 논의

북방한계선(NLL) 포격전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30일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북에서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민화협 및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들과 만나 남북불교교류를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총무부장 영담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등이 포함된 조계종 대표단은 평양 용화사, 법운암, 보현사 등을 둘러보고 북한 불교 활성화 등을 모색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의 방북 행사는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남북문제를 민간교류로부터 풀어야 한다'는 자승 스님의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조계종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조불련 등과 △금강산 신계사 활성화 △평양 용화사 복원 및 불교문화재 공동 복원 △평양 내 인도적 지원시설 건립 △남북 주요 사찰 간 교류협약 체결 △2011년 '대장경 1000년 세계문화축전' 북대표단 내방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단의 방북에 앞서 조계종은 2007년 복원불사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잊혀져가는 금강산 신계사에 조계종 스님을 상주인원으로 파견해 통일불사의 상징도량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평양 모란봉에 위치한 용화사를 남북불교교류의 또다른 거점으로 육성해 북한지역 도심포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양 용화사 증축불사와 함께 평양 불교문화회관을 포함한 단일진료과목의 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물품지원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조계종은 남북불교교류 사업에 앞서 주요사찰 간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역사적 · 지리적연관성을 고려한 상호방문, 공동법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1년 9월 해인사에서 개최되는 '대장경 1000년 세계문화축전'에는 북측 보현사에 소장된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본(북측 국보)이 전시되며,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고려대장경 관련 국제학술대회와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방북과 관련해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29일 "종교교류를 넘어 경색돼 있는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북측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는 등 조계종은 통일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의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아이티 의료봉사단 발대

아이티 지진 피해 현장에 한국불교의 자비 손길이 전해진다. 조계종은 1월 29일 오후 1시 30분 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아이티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의료봉사단은 묘장 스님(사회국장)을 단장으로 동국대의료원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2월 1일 출국해 2월 3~11일 현지에서 진료봉사를 진행한다. 이번 의료지원 예산은 1억여 원이며 예산 지원은 아름다운동행이 분담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의 아이티돕기 기금 모금에는 해인사 수덕사 통도사 등 70여 사찰 및 단체와 220여 사부대중의 자비의 손길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2억6000여 만원(28일 기준)이 모였다. 아름다운동행 농협 301-0029-6115-71

글=박선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사에 압력… "국정원장 참회하라"

경불련 등 교계단체 "기부행사를 정치적 의도로 규정"

국가정보원이 조계사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에 장소 제공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협박성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진실을 알리는 시민(진알시)'이 주최하는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일 불교인의 날, 시민의 날, 언론인의 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불교인의 날에 공동주최로 참석해 수익금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며, 조계사는 이런 취지에서 12월 종무회의를 통해 경내 행사진행을 수락한 상태였다. 하지만 조계사는 1월 28일 국정원 직원 권모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장소 제공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조계사 관계자는 29일 "1월 28일 오전 국정원 직원이 전화로 '반MB 규탄 집회를 연다'며 종단 방북일정을 언급했다"며 "오후 2시경 그 직원이 직접 조계사를 찾아와 조계사 고위층 스님을 만났다"고 밝혔다.

조계사 관계자는 "'국정원'이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크게 다가온다"며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계사의 입장을 전했다.

이 외에 KBS에서도 조계사 측에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에 불교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를 기획한 진알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KBS시청료거부 퍼포먼스 때문인 것 같다.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가 국정원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등 10개 교계단체는 29일 "자발적이고 순수한 기부행사를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고 압력을 행사한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강력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자 엄중문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국정원장 참회 등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5 현장-영문 자타카 말하기 대회 ▶14 선지식-일면 스님 ▶8 인터뷰-김원보 대표

음주경찰 지관 스님 폭행

불교환경연대 등 연대행동… 조계종 성명

술 취한 경찰관이 지관 스님을 폭행해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4대강 운하 개발 사업 저지 특별대책위' 불교위원장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 전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이 폭행을 당한 것은 1월 19일 12시 30분 경으로 사찰 밖에 소란해 나간 지관 스님은 안면을 가격당해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의왕서 교통조사과 소속 김모 경사와 경기도 경찰청 전투경찰대 이모 경사. 스님은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일곱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34개 교계 단체들은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29일 불교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해 △경찰 최고책임자 사과 △당사자 엄중문책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연대행동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도 26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경기경찰청에 국장단을 파견해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지적했다.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이 불교계의 거센 항의에 사과방문를 약속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9일 "조속히 마무리 됐으면 한다, 확대해석은 우려스럽다"고 밝히는 등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폭행당사자들과 해당경찰서 서장 등은 사태가 확산일로에 이르자 뒤늦은 25일 김포 용화사를 찾아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사 령

명
정성운 편집국 부국장

의원면직
임연태 편집국 부국장
김재경 편집국 취재부 부장

진흥원특위 토론 열려

자승 스님 연기 표명에도 강행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가 진흥원 측의 불참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토론회 무기한연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강행했다.

진흥원특위는 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단과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의 관계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진흥원특위 위원장 의연 스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준영 前 방송위원과 허남오 10 · 27법난 명예회복 심의위원,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 김영일 총무원 기획차장의 토론으로 진흥원 측 의견을 대변할 인사 없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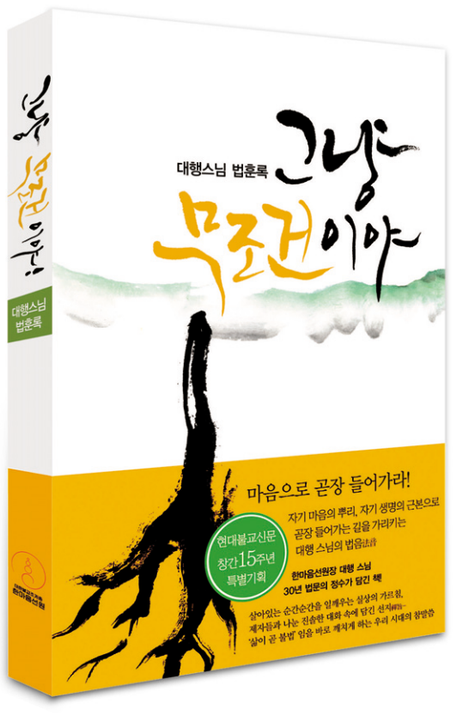
'화합'과 '소통'을 강조한 총무원장스님은 25일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의 예방에서 "토론을 무기한 연기해서라도 종단과 불교방송, 진흥원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무원장스님의 이 같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토론회를 두고서는 종단실세인 모스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제33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삐걱대는 자승 스님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이에 앞선 26일 진흥원은 이례적으로 '2010년 주요 사업방향 및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진흥원은 "'세상을 위한 불교, E-GREEN BUDDHA의 세계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재단설립 취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 박선주 기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

社說

평양행 자승 스님에 거는 기대 크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북측과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월 30일 ~ 2월 2일 평양을 방문한다. 북한이 서해 NLL북측 해상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기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남북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3년여 동안 줄곧 얼음장처럼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큰 전환이 있어야 한다. 남은 북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북은 핵무장 등 군비 확충이 오히려 민족문제를 풀어가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남북불교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금강산의 신계사를 함께 복원했다. 복원 이후 우리측 스님의 상주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활발했던 교류가 소강상태에 빠졌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면서 남북불교교류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끊어지고 말았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가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라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을 거듭 확인했다. 자승스님의 이번 방북이 남북불교교류는 물론 남북교류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불자들과 함께 기대한다.

한참 엇나간 국정원과 경찰

국가정보원에서 불교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인 시민단체의 행사와 관련,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조계사에 압력을 가해 행사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협조를 구해도 압력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한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자승 스님 방북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한참 엇나간 것이다.

큰 권력을 지닐수록 신중하고 거듭 신중해야 한다. 작은 잘못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일탈이라는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4대강 공사 저지에 앞장섰던 스님을 폭행한 사건도 상식 밖이다. 경찰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공권력이 스스로 불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경찰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불안하고 안타깝다.

폭행당한 스님이 수행자이며 4대강 반대모임의 주요 소임자라는 점에서 이번 폭행 사건에 의도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경찰 책임자의 사과는 그 다음이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기관이 불교와 수행자를 비롯한 종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손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회를 맑히고 밝게 비추는 샘물과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겸손함을 익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불자 세상보기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4대강 애도할 시간도 없는가

흐르기 때문에 강이요 그 흐름이 멈춘 곳이 바다이다. 흐름이 멈춰진 것은 이미 강이 아니다. 백성들의 온전한 삶의 터전인 '마을'을 작은 흐름으로 휘돌아 나온 시냇물이 강물과 만나 큰 흐름으로 굽이쳐 마침내 바다의 품에 안겨 그 흐름을 마감한다.

강은 경계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래서 강의 역할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강은 유구한 흐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해줬고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마을'을 이뤄 저 나름대로 물산을 생산하고 문화를 가꾸어 왔다. 그 '마을' 사람들은 소망하는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사당과 절을 짓고 정성스레 생산물들을 바치기도 했고, 삶의 애환을 어루만져줄 신명의 굿판도 벌렸으며, 극심한 노동으로 만신창이가 된 육신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흥겨운 장단을 두드리며 흐드러지게 한바탕 춤판을 벌리기도 했고, 푸념인 듯 염원인 듯 육자배기 사설들을 구성진 가락에 맞춰 서리서리 풀어내기도 했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절경을 글과 그림으로 칭송하기도 했다. 이렇듯 강은 그 '마을'에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천인 동시에 그곳에 기대고 있는 '마을'과 '마을'의 교류의 장이며 소통의 장인 생산 문화 공동체인 것이다.

흐름(流)이 쌓임(積)을 낳는 역설(逆說)이 물길에서는 진리이다. 오랜 세월 물이 산을 쓸어 내려 흘러와 부려 놓은 것이 둔치이다. 둔치는 변경(邊境)이다. 삶의 터전인 '마을'의 가장자리인 동시에 물길의 가장자리이기도 하다. '마을'에도 물길에도 몸을 섞을 수 없는 변경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변경은 기존의 중심에서 일탈된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다.

모진 시집살이 서러운 눈물 찍어내는 며느리의 안식처가 둔치 빨래터요, 부모님 매 타작을 피해 고샅길 내쳐 달려 둔치에 이르러 모래밭에 주저앉아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중얼거리며 해가 할미봉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홀로 모래집을 지었다 부수며 소일하는 복동이의 피난처요, 대처로 공부하러 간 정미소 집 둘째 아들이 방학이라 내려와서 오랜만에 동무들과 함께 모여 모래무지, 피라미, 버들치 쫓으며 천렵하던 곳도 둔치의 모래톱이요, 개구쟁이들 사소한 말다툼이 주위의 부추김으로 그만 큰 싸움으로 변하여 악동들이 맞장 뜨는 곳도 둔치의 모래사장이었다. 하여, 둔치는 비록 변경일지라도 때론 안식과 피난의 장소로 때론 우정을 나누는 곳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멈춰라. 멈춰야 할 것은 물길이 아니라 뱀 혀처럼 날름거리며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는 중장비의 기계소리다. 우선 그대로 둬라. 굳이 물길을 멈추게 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면 강에 기대어 대대로 살아온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새겨 본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더 나아가서 '마을사람'들이 펼쳤던 기원판, 굿판, 춤판, 사설판, 글판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그리고 며느리와 복동이가 고단함과 서러움을 삭일 수 있고 정미소집 둘째 아들과 개구쟁이 악동들이 우정을 나누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상실(喪失)은 애도(哀悼)를 통하여 복원된다. 참된 복원을 위해 사려 깊은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한다. 고단한 삶을 어쩌지 못하여 층층이 얼어붙은 강을 미끄러지듯이, 새벽녘 물안개 피어오르는 포구에서 나룻배에 몸을 내 맡기듯이 '마을'을 떠난 '마을사람'들이 다시 강을 건너 '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강' 하나쯤은 마련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좋은 인연이 삶을 아름답게 한다

2월의 테마-인연

우리의 인연에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 사람과의 인연, 자연과의 인연, 본인의 업(業)과의 인연 등 셀 수 없는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 그 인연마다 희·노·애·락이 함께한다. 희노애락은 꼭 인간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대상과 유·무주의 공간과도 희노애락은 공존한다. 봄이면 한 송이 꽃에 마음이 새롭고 여름이면 바람 한 점에 후련해진다. 요즘 들어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인연은 자연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들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천재지변으로 종말론까지 들썩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얼마 전 남미 아이티의 지진참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폭설과 홍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냉정히 되돌아보아야 할 점은 이런 현상은 바로 사람들의 편리함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선풍기를 켜고 시원함을 느끼던 세상에서 에어컨을 켜고도 더위를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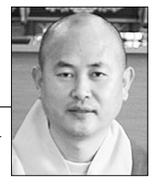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 외침은 항상 있어왔지만 그 실천은 많이 부족하다. 자연과의 좋은 인연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공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생각해서 친환경의 자동차를 타는 것과 에어컨과 온풍기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작은 실천부터 필요하다. 마음 놓고 흐르는 냇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던 때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폐수를 마구 버리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는 것 등 많은 부분에서 작은 일부터 자연환경을 살리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자연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임을 자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상게'에는 "사람은 모두 땅(地), 물(水), 불(火), 바람(風) 네 가지(四大)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사람은 네 가지의 뼈대로 형성돼 있으며, 돌아가야 할 자연이라는 것이다. 우리 몸은 자연과 하나이다. 편리함과 탐욕심만 쫓아 무분별한 개발을 하다보면 자연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현실이 된다.

아름다운 복사꽃이 피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세상 어디 쯤인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예전에는 어느 곳이든 물 좋고 산 좋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재앙만이 쏟아지고 있다.

요즘 영화 '아바타'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영화는 성스럽고 귀한 자연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개발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제는 멈추고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과 자연,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 자연과의 좋은 인연을 맺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길이다.

問余何事栖碧山
왜 산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笑而不答心自閑
빙그레 웃을 뿐 대답 못해도 마음 더욱 넉넉하네.
桃花流水杳然去
복사꽃 물에 흘러 아득히 가니
別有天地非人間
인간세상 벗어난 또 다른 세계라네.



정도 스님
동국대 외래강사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학점은행제)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귀의 삼보하옵고 2009년 9월 30일 영산재의 문화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 범음대학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수한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신입 및 수료과정의 학인스님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시~7시	이기봉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시~7시	마일운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시~7시	조인각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1시~7시	한해사	30
불교실기(의식)	시련/대령/관욕등	목	오후1시~7시	조인각	재학생졸업생
이 론 Ⅰ (범패의전승계보)	범패의 전승 계보	화	오후1시~7시	심만춘	30명
이 론 Ⅱ (영산재행위전승학습)	영산재의 행위전승 학습	화	오후4시~7시	한활안	30명
불교일용의식	불공/시식/예불	수	오후1시~7시	이기봉	30명

편입학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 일	시 간	교 수 진	모집인원
각 배	각 배	목	오후1~7시	마일운	약간명

학점은행제모집 (2010 학년도) 2010년학년도 1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 수	요 일	모집인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사물실습	조인각	목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과정별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 응 시 자 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불교학, 음악, 무용)
(2) 수료및 졸업과정
1.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 (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3) 학점은행제 과정
1. 고졸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2.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3.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4. 주민등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4부

(4) 편 입 과 정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6.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전형일정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② 2010년 1월 25일 ~ 2월 19일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특 혜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급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입 학 문 의
전화 02) 392-3234 / 팩스 02)392-323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한국불교 미래는 교구본사 활성화에

불교미래사회硏 '조계종 교구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조계종 교구본사제는 일본강점기 31본산제에서 유래됐다. 해방 후 31본산제가 각 도 교무원 제도로 바뀌었고, 1962년 통합종단 발족 이후에는 도별 교구제를 대신해 현행 본사제가 이어져 왔다.

반면에 국가 행정구역은 인구밀집 정도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돼 왔다. 대구시의 경우 1948년 당시 81개 동이 현재는 8개 구 · 군 3읍 · 6면 · 134개 동으로 나뉘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제가 교구 자치 및 종단 대의제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 등에 의한 사회변화를 따르지 못해 지역 곳곳에서 포교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연구소)는 1월 26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관에서 '조계종 교구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금호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조계종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교구자치제를 실시하는 등 제도개혁과 종무행정 변화를 추진해왔다"며 "종단 정책이 수행 포교 교육 문화 등으로 확산되는 지금, 교구본사의 역할 등에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의 미래가 교구본사 활성화에 달렸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교구본사 활성화의 방안으로 △일정 규모의 말사를 보유한 본사의 경우 분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구분구제'의 도입과 △교구와 행정구역의 일치 △인천 · 강화 지역 등 광역시 · 도급 이상 지역의 교구 신설 △선학원과 대각회의 특별교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조계종 교구활성화 방안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현행교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교구활성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불교인구수를 비롯해 종교시설수(사찰수)도 이웃종교에 비해 약세였다"면서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종단 차원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서울 강남 · 서초구 등 주로 부의 성장과 도시화가 가속된 인구집중 지역에서 불교가 약세였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국회 등 의회 의원, 기업체 고위임직원 및 전문직 직군의 불교 약세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교구본사제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도 제안됐다.

연구소는 "교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교구종회 활성화를 통해 교구 주요의제의 논의 구조를 확립하고 교구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소는 "도심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교 활성화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신도시 중심의 도심거점 사찰 육성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종단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제안한 교구본사제 개선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한 지역을 관장하는 교구는 그 역할도 시대변화에 흐름을 같이 해야한다"면서 "한국 불교의 강 · 약점을 분석하고 개별 교구 특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도 "교구 대중의 공의 속에 불사를 추진하면 본 · 말사 관계는 물론 불사 추진이 원만한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연구소가 제시한 본말사간 네트워크 강화 제안에 동의했다.

한편, 연구소의 교구본사제 개선을 골자로 한 교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신중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사찰교무팀 박종학 팀장은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추후에 논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공론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지역거점 사찰격인 교구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누차 이어져왔다. 하지만 교구본사의 변화를 구체화해 제시한 것은 이번 발표가 처음이다.

"조계종 25개 교구본사가 변화해야 불교가 살아난다"는 대중적 공의가 제2 제3의 교구본사제 활성화 방안과 직접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 박선주 기자

종단중점 사업 통해 위상 정립

태고종, 제도개혁 통해 체질 개선… 천태종, 10선 실천운동

"3월 11일 영산재 대법회를 계기로 종단 위상을 드높이고 제도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을…."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10선 실천운동으로 종도 일체가 하나로…."

태고종과 천태종이 27일과 25일 각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종단 중점사업을 밝혔다.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산재 대법회 등 문화사업 확대 △종단 제도개혁 통한 체질개선 △해외구호 복지사업 등 종단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주요 과제를 밝혔다. 특히 3월 11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봉행되는 '2010 영산재' 대법회에는 전국 3200여개 사찰과 1만5000여 종도들이 참여해 종단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봉원사에 상설공연관과 영산재의 거목인 태고종 원로 만봉 · 송암 스님 박물관 건립도 추진된다. 또 종조 선양사업과 연계해 태고보우국사 다례일부터 3~7일간 학술세미나, 법고경연, 시서화 공모전 등이 열린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종단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종헌종법과 종단 조직기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공 스님



정산 스님

인공 스님은 "올해는 종단 제도 개혁과 교육제도 개선, 문화사업 등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이에 앞선 25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2011년 천태종조 상월원각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10선 실천운동'을 중점 사업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천태종이 발표한 주요과제는 △총본산 구인사 성역화 불사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구인사 건립 65주년 행사 △십선실천운동 △전 종도의 포교사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전개 △불교문화 전승과 보존사업 △남북문화교류사업 △종단포교의 국제화 △사회복지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적극실시 △환경운동 본격화 등이다.

정산 스님은 "불교는 수행이 중심으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뒷받침하며 어렵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포교와 복지에도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하심으로 국민 뜻 경청할 터"

청불회 박재완 회장 취임법회… 자승 스님 "불교부흥 앞장서 달라"

"백척간두에 있는 두려움을 일시에 떨칠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자비심을 갖춰 대통령 내외분과 청와대 불자들의 일신건강, 일심청정으로 가족, 사회의 안녕을 발원합니다."

제12대 청와대불자회 박재완 회장(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하 청불회) 취임법회가 1월 29일 1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불교계 정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취임법회는 청와대 불자회장 회원 및 내 · 외빈 헌화, 인사말, 강윤구 前 청와대불자회 공로패 수여,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축사, 총무원장 스님 법어,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제12대 청불회 박재완 회장 취임식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오른쪽부터 중신회 김의정 회장, 제11대 청불회 강윤구 회장, 자승 스님, 정산 스님, 혜정 정사.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동국대 약학대학 선정을 통한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청와대불자회, 공무원불자연합회, 중앙신도회가 힘을 모아 로스쿨 탈락과 같은 상처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상징이자 권위인 대통령과 국민을 보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서로 뜻을 모아 나라의 발전과 불교부흥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재완 회장은 "청불회 회원들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소임을 맡은 만큼 일거수일투족에는 이목이 집중돼 살얼음을 걷는 것과 다"며 "늘 마음을 열어 하심의 마음으로 국민의 뜻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회와 정진의 자세로 공무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해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용산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보살의 자세로 정치권의 갈등, 세계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죽비와 목탁 종단은 신도 '니즈' 부터 파악해라

성도절(成道節)인 1월 22일, 철야 용맹정진 취재를 위해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주요사찰, 신도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철야정진을 하기는 하지만 몇 사람 하지 않는다" "스님이 따로 지도해 주지는 않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자유롭게 한다" "매년 참가하는 신도수가 줄어든다"는 대답뿐이었다.

어렵게 물어 수원 용주사를 찾아갔다. 그나마 찾은 용주사도 지난해 성도절에 비해 행사참여 신도수가 반 이상이 줄어 주지스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찌된 일일까?

최근 조계사 천도재가 교계 언론과 일간지로부터 비판 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출 · 재가가 제각기 천도재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혹은 타성에 젖은 채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수백 수천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한 천도재는 상업적이라며 손가락질 받으며 미신적인 행위로만 치부되고 있다. 이런 천도재는 불자 · 비불자를 떠나 점치고 굿하는 것과 진배없는 모양새다.

천도재를 비판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천도재를 하려는 대중은 줄을 잇는다. 반면에 성도절 등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사에는 발길이 뜸하다.

당장 신도를 탓하기에 앞서 종단이 신도의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불교 수행 · 포교 개선 프로그램 등이 조계사 1번지 안에서의 잔치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작금의 천도재를 무조건 미신이라고 폄하하며 상업성에 찌든 그릇된 불교의 산물이라 손가락질하는 비아냥도 자제해야 하지만, 어느 스님의 항변처럼 "신도들이 천도재를 찾기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도 말자.

천도재 찬반논란에 대한 해결은 종단, 사찰, 불교학자 등의 대중적 공의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모델 : 前 세계 〝미세스 진〟(촬영 : 방필석 법사)

★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니 ★

신생아 작명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갈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739-82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법사

주역 개인지도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방필석 대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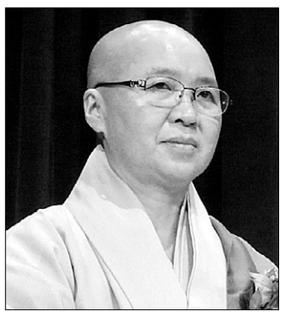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승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耕當問奴(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일이 잘 안풀릴때 개명 하십시오.
그래서 옛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상담개발원 원장 이·취임



담교 스님

東大 약학대 유치 못하면 '사표'

동국포럼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강연… "동대 발전 계기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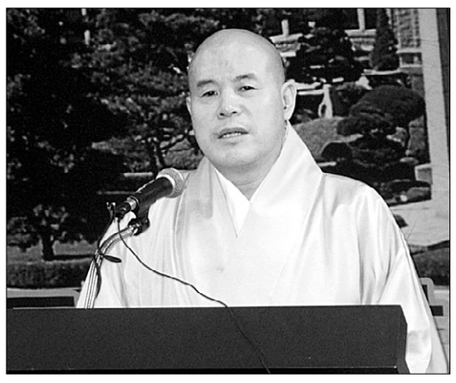
"조계종립 동국대의 재도약은 약학대학 선정부터 시작됩니다. 동국대에 약학대학 유치가 실패하면 조계종 총무원장인 본인을 비롯해 이사장 정련 스님, 오영교 총장 함께 사표 낼 각오합시다." (청중, 박수와 웃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6일 소피텔 엠버서더에서 개최된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 동국포럼에서 이 같이 강연했다.

동국대, 고려대, 단국대 등 전국 33개 대학이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정부의 신설 약학대학 선정 발표까지 미뤄진 상황에서 있은 발언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연에서 자승 스님은 "첫 신년하례의 모임인 자리지만 덕담을 말하기에 동국대가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다"면서 이사장 스님, 오영교 총장, 이연택 총동문회장의 취임사를 소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사장 스님은 동국대의 사회적 평가 하락을 우려했고, 오 총장은 외부기관 평가 결과의 참담함을 걱정했다. 이연택 총동문회장은 종단 · 재단 · 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조계종립 명문사학 동국대의 위상을 회복하자고 제언했다"며 "동국대 제2의 도약은 신설 약학대학 유치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동국대 총동창회 동국포럼에서 약학대학 유치를 통한 동국대의 재도약을 강조했다.

이어 동국대 동문과 불자의 역량 집중도 강조됐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이연택 총동문회장 예방 때 총동창회기금 30억 원 모연, 총동창회 장학생 40명으로 증원 등 총동문회 목표치를 소개받았다"면서 "총동창회가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39억 원의 모금을 달성하고, 장학생도 200명으로 늘리겠다는 성과가 보여준 동국인의 역량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2010년 조계종의 캐치프레이즈가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으로 종단도 동국대와 화합 · 상생하는 새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면서 "동국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약학대학을 유치해 동국대 발전과 불교 중흥의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의생명과학 캠퍼스가 건립될 고양시와 메디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각계인사들과 약학대학 유치지원단을 구성했다. 또, 고양시 시의회가 '고양시-동국대 약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케 하는 등 약학대학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원래 약학대학 신설 계획보다 증원을 검토 중"이라며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신설 약학대학 선정 결과발표를 연기했다.

신설 약학대학이 유치되면,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몰리면서 학교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고, 약학이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는 분야로 대학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 산학협력을 통한 약학산업 참여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대학들은 약학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동섭 기자

2010년 소통으로 이끌자 '서원'

중앙신도회 재가불자 신년하례회 봉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조계종 집행부의 신년기조 '소통과 함께하는 불교'에 부응해 2010년 한해를 '분별과 경계를 넘어선 소통의 장'으로 이끌 것을 서원했다.

중앙신도회는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재가불자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앙신도회는 부설기관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직무대행 김규범)을 통해 '명절과 기제사에 술 대신 차(茶)를 올립시다'라는 불자생활문화 캠페인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불교계 사회적기업 (주)연우와함께(이사장 이재희)를 통해 불교경제활동의 초석을 마련하고 불교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2010년 재가불자 신년하례회에서 혜총 스님(오른쪽)과 김의정 회장은 참가자 모두에게 윤장하례를 건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동영상 신년법어에서 "중앙신도회의 상설기관 정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올해에는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며 "승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불교를 위해서 가행정진(加行精進)하자"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사람의 몸을 받아 불교발전에 앞장서는 불자가 된 것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불교를 위한 불교가 아닌 행복한 세계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교와 전법을 해 달라"고 축사했다.

이에 앞서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술 대신 차를 올립시다' 캠페인, 사회적기업 '연우와 함께' 등 부설기관과 소속단체들이 통합적 시너지를 창출해 진일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차 올리기' 불자생활문화 캠페인 실천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윤장하례(輪掌賀禮)와 함께 다구세트를 증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특임장관, 국회 정각회 고문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정각회 부회장 한나라당 안홍준 · 민주당 강창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한나라당 정병국 · 조윤선 의원, 서울시의회 문병렬 의원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미당기념사업회 출범

시인 미당 서정주 열반 10주기를 맞아 미당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다.

미당기념사업회는 1월 27일 서울 예장동 '문학의 집'에서 출범식을 열고 문학평론가인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기념사업회는 오는 4월 미당의 고향인 고창 선운사에서 '동백꽃 제사' 재현을 시작으로 미당전집 발간과 미당학회 구성, 유품 전시, 다양한 시 낭송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100字 뉴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사찰 모집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 운영 사찰을 모집한다. 시범사찰은 주1회 어린이 영어 법회 전용공간, 전담 교사 1인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찰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아 2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어린이영어법회 교재 <헬로 달마스쿨> 출판기념회 및 교재설명회가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27일에는 제4회 불교어린이지도사고시를 실시하며 접수는 19일까지다. (02)2011-1892, www.buddhism.or.kr

조계종 중앙선관위 시행규칙 개정 논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18차 회의를 열고 '거주승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산중총회와 중앙종회의원 선거 시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주승 제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자 △사중(寺中)소임자 △보시 지급 내역서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호법부에 현황 확인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2월 26일 열리는 제 219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불교단체연석회의 해인사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불교단체 연석회의(상임대표단체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는 해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의 입장 및 조치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1월 29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호법부, 사회부, 재무부에 전달했다.

최근 해인사는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재추진, 합천군으로부터 해인사 소유 토지 강제 수용 공문 접수,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경매 회부사건 등에 대해 불교단체가 나선 것.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불교 단체들은 1월 28일 '불교단체 긴급대표자회의'를 통해 해인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계획을 신속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토회 4일까지 9기 백일출가자 모집

정토회(대표 법륜)는 9기 백일출가자를 모집한다. 자기변화 프로젝트인 백일출가는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스님들의 출가 생활을 체험한다. 참가자들은 출가생활을 체험하고, 불교대학 강좌 및 경전 강좌로 불교교양도 쌓는다. 이와 함께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경주 순례와 NGO 실무실습도 진행된다. 20세 이상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홈페이지(www.jungto.org)에서 2월 4일까지이며 면접은 9일, 입방은 2월 22일이다. (054)571-8993

불교문화사업단 내나라여행박람회서 '인기'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월 27~30일 '2010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 12개의 부스를 배치하고 16개 사찰이 참가한 가운데 연꽃 그리기, 단청 그리기, 오방색다식체험, 차담, 컵등 만들기, 탁본손수건, 팔상도 모빌만들기, 인경, 법고 등 사찰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0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1) 공모주제
- ■불교학(선학 · 교학)
- ■불교사 · 응용불교 · 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 불교사회복지
-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등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2) 지원자격 :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

3) 선정규모 및 특전 : 우수상(1명) 500만원, 학술상(3명), 1인당 300만원 등재후보지 『선문화연구』에 게재

4) 제출서류
- (1) 연구계획서 : A4 10매 내외의 자유형식
- (2)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1부
- (3) 연구 실적목록상에 기입된 실적물 각 1부
- (4) 이력서(주소 · 전화번호 · 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5) 제출기한 및 발표
- (1) 제출기한 : 2010년 **1월 29일 ~ 2월 16일** 오후 5시까지
- (2) 선정 및 통보 : 2010년 2월 23일(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 (3) 논문상시상식 및 학술회의 : 2010년 5월 (예정)
-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 2010년 6월

※ 주의사항
- ■ 선정자는 2010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한다.
- ■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 ■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2 월례발표회

1) 발표주제
-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3)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 (4) 한국근현대불교사상 및 문화(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등)

2) 발표문 분량 : A4 7 ~ 8매

3) 발 표 자 격 : 박사과정 이상자

4) 발표신청기간 : 연중 수시

5) 특 전
- (1) 소정의 발표비 지급
- (2) 심사 후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 (3) 등재후보지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문의 및 서류 제출처

110 - 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 9657
팩 스 02)734-9622
홈페이지 http://www.seonhakwon.or.kr/seonli
연구원 메일 seonhakwon@paran.com

한 국 불 교 선 리 연 구 원 장

스님을 위한
설기문 교수의 '집중 최면 강좌' 안내

일 시 : 2월 8일 ~ 10일 (2박 3일 집중과정)
장 소 : 충남 공주시 전통불교문화원
교육비 : 특별회비 200만원 (교재비 포함)

강 사 소 개

▶1997년 이후로 최면치료, 전생치료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한 설기문 교수는 현재 동방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NLP최면학 전공) 교수로서 설기문마음연구소 및 한국NLP&최면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음.

▶현재 불교TV(btn.co.kr)에서 매주 '설기문박사의 마음특강 - 이제는 마음이다' 프로그램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최면치료, 전생치료, 빙의치료의 다양한 치료원리와 사례들을 소개해 왔음

▶동아대학교 교수 역임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 ▶전생치료 및 빙의치료 전문가
▶최면치료 국제공인 트레이너 ▶NLP 국제공인 트레이너
▶주요 저서: 최면과 최면치료, 최면상담, 에릭슨최면과 심리치료 외 다수

주요 교육 내용

- ●최면의 개념과 종류
- ●최면유도의 원리와 기법
- ●최면치료의 기초
- ●효과적 최면치료를 위한 NLP적 원리
- ●최면의 역사와 발전
- ●최면트랜스의 특징
- ●최면치료의 과정과 기법
- ●전생퇴행과 전생치료의 이해
- ●최면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
- ●자율훈련법과 활용
- ●최면치료를 위한 심리학적 원리
- ●빙의현상과 빙의치료의 이해
- ●무의식의 원리
- ●자기최면법과 활용
- ●에릭슨최면의 이해

※ 기타 : 상세한 일정과 구체적인 안내 사항은 신청하신 분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① 본 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실 분들은 본 연구소로 직접 문의 •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본 연구소에서는 6주간의 전생-빙의치유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기문 마음연구소
서울시 중구 소공동 81번지 소공빌딩 3층
☎02)757-8008 www.nlp21.com
http://cafe.daum.net/trancenet (설기문NLP트랜스넷)

제3회 영문 자타카 말하기 대회

영어로 말해봐 희망이 빛난다



국제포교사회가 주최한 제3회 영문 자타카 말하기 대회를 마치고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참가자, 심사위원 등이 단체사진 촬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예원, 박채원 어린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송다현 학생이 시상 후 다시 영문 자타카를 암송하고 있다.



단순 암송에서 벗어나 주제에 생각 담도록 해
대상 불광사 송다현양 "반기문 총장처럼 되고파"

고드름이 녹아내리는 따스한 날 조계사 앞마당.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법당을 나온 어린이들이 총총 걸음으로 달려간다. 법당을 나온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현수막에 그려진 악어와 원숭이. 원숭이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어린이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어린이들이 도착한 곳은 '영문 자타카(Jataka) 말하기 대회' 행사장이었다.

제3회 영문 자타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된 1월 23일, 행사장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는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부모들로 부산했다.

객석에 자리한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온 것 마냥 신이 났다. 한 쪽에는 '비로자나 국제선원이 떴다' '짝짝짝짝짝 화이팅' 등 응원 팻말이 분위기를 한껏 달구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를 출전시킨 부모들의 입술은 바싹바싹 말랐다.

"This story gave me an opportunity to think seriously about leader's true attitude….(이 이야기는 제게 지도자의 진실 된 자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줬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다. 또박 또박 떨어지는 유창한 영어실력에 좌중은 압도됐다. '어린쥐'(오렌지의 미국식 발음)로 대표되는 세대다운 영어 발음이다. 예선 출전 46명 가운데 본선에 올라온 15명 학생들의 실력은 '엑설런트(excellent)'였다.

이번 암송대회에는 '사막의 길(The sandy road)' '원숭이는 어떻게 자신의 무리를 구했는가(How the monkey saved his troops)' '할머니의 블래키(Granny's Blackie)' 등 효도 · 정직 · 인내 · 배움의 중요성 등 5개 주제를 기본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단순히 암송하는 데서 벗어나 주제가 전하는 교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 내도록 해 깊이를 더했다.

올해로 3회째인 자타카 말하기 대회는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가 주최하는 행사로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불교를 통한 영어, 영어를 통한 불교공부를 시도하고 있다. 말하기 대회는 영어 실력과 함께 심성개발, 자신감 향상에 기회를 제공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희망 프로그램으로도 손꼽혀 왔다.

심사하는 동안에는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의 공연과 골든벨 퀴즈 등이 진행돼 결과를 기다리는 지도스님, 부모님, 어린이들에게 여유를 갖게 했다. 특히 영어로 진행된 골든벨 퀴즈에서는 '한국 스님의 옷(가사)은 빨간색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등의 질문에 학생들은 별 것 아니라는 듯 'true' 와 'false'를 판단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스님은 법전 스님이다'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우왕좌왕 분위기를 따라 'false'를 선택해 대부분이 패자가 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박상필 회장, 조계종 포교국장 남전 스님과 원어민 영어교사 등 7명의 심사위원은 표현력, 전달력, 발음, 태도, 협동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영어실력에 대해 자랑스러워해도 될 정도로 모두 훌륭했다. 영어를 배울 때는 긴장을 줄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13팀이 올망졸망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인기상, 장려상, 노력상, 우수상이 발표됐다. 최우수상과 대상만을 남겨두고 비로자나국제선원 박예원(초3) · 박채원(유치부)양과 불광사 송다현(중1) 학생이 남았다. 살짝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사회자가 박예원 학생에게 물었다.

"대상 선물이 '노트북'인데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스님에게 다시 드릴래요. 저희는 어리기 때문에 노트북은 필요 없어요. 보시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스님 드릴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어린이의 순수함을 넘어선 보살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답에 여기저기서 기특해하는 찬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어 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대상! 불광사 송. 다. 현. 학생!"

역시나 했던 반응이었다. 송다현 학생은 발표 때부터 눈에 띄었다. 원어민과 같은 발음과 표현력, 연출에 적절한 소품까지 완벽했다. 대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는 송다현 학생은 "반기문 UN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자신의 무리를 구하는 원숭이 대장의 지도력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됐다"며 "훌륭한 사람이 돼 유명인이 된다면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불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국제포교사의 후예다운 대답을 했다.

지난해 대상에 이어 최우수상을 배출한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은 대회 운영에 대해 "팀 중심으로 대회 진행을 유도해 학생들이 스스로 연출, 감독하도록 한다면 영어에 재미를 느낌과 동시에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회가 끝난 공연장은 한국불교 꿈나무를 발견한 어른들의 흥분에 열기가 식지 않았다. 장래 글로벌리더로 한국불교의 미래 동량들의 희망찬 암송 메아리는 벌써부터 봄기운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www.njutcm.edu.cn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학생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0년 2월 28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중국상담 안내처 :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86-25-84028773 · 핸드폰 : 86-13-585195431
· 팩 스 : 86-25-84028478~9

조기유학생 모집
초6년-고3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중고등) www.njsdfx.co.kr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림

2009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윤치영(해성고) ▲박설영(경성대) ▲김경표(휘문고)
▲정화용(용문고) ▲신재훈(대중금속고) ▲최영화(황지고)
▲장원석(경신고) ▲김동성(중일고) ▲한승미(우송대)
▲안성환(김천고) ▲김도경(진선여고) ▲도현운(영남대)
▲백지훈(동신대) ▲윤두경(일동고) ▲임제곤(부산과학대)
▲조용성(사직고)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강성우(호남대) ▲이종환(우석대) ▲최종건(UCLA)
▲황성환(대건고) ▲박선규(반포고) ▲서연호(한국항공대)
▲오진영(천안중앙고) ▲김현진(법철)동국대 ▲김범태(화홍고)
▲김지효(경동대) ▲정선호(동명정보대) ▲김범진(동아대)
▲최예련(서인천고) ▲김태우(부산대) ▲남우열(주성대)

– 석사과정 합격자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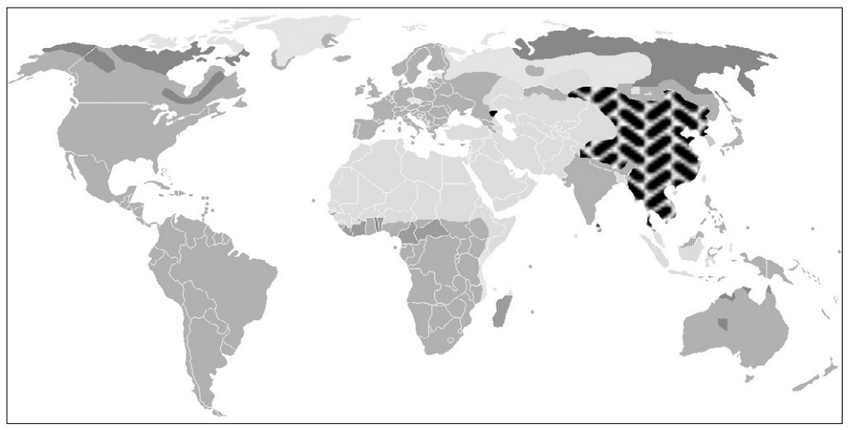
한국 총장 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 511-1080, 2026

해 외 WORLD

세계 최대 종교는 불교 15억

가톨릭 13억, 개신교 7억… 지금까지 집계에 중국 불자 제외



세계종교인구 분포도.. 짙게 표시해 중국의 불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위키피디아

전 세계 66억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불자수는 3억 6000만 명으로 20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보다 턱없이 적은 숫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세계 불자수가 15억에 이른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진흙속의연꽃'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블로거는 "'세계종교인구'라는 '한글'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불교가 3억6000만, 가톨릭 13억, 개신교 7억, 이슬람이 12억으로 나온다.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거의 동일하다. 정말 불교 인구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위키피디아와 '릴리저스톨러런스'에서 세계 종교 분포도를 검색한 결과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인구통계 자료의 편차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불교는 3억 5000만~16억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중국 불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불자수가 15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구글(Google)로 세계종교인구(world religion population)를 검색해본 결과, 종교인구 분포도에 불교는 2억5000만~5억으로 표시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표 밑에는 각 지역별 종교에 대한 해설과 함께 중국의 종교(Religion in China)편이 있다. 이 가운데 불교 편에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열거돼 있다.

위키피디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불교는 억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야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신도를 갖는 체계화된 종교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중국정부는 10억의 인구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키피디아는 "오늘날 중국과 대만에서 정토종과 선종의 혼합된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도시의 성공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불자수는 6억 6000만(중국 전체인구 중 50%)에서 10억(80%)으로 예측됐고,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정확한 불자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집하는 모임도 없고 공식적인 종교의식이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각국의 종교를 아우르는 포털사이트 릴리저스 톨러런스(religioustolerance.org)는 세계 종교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게재했다. 종교 인구분포에서는 타종교는 편차가 없었지만 불교는 3억 5000만에서 16억으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위키피디아는 국가별 불교현황(Buddhism by country)에서 각 나라별 불교인구 현황을 조사해 도표로 나타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는 편차가 없었던 반면 중국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탓에 최소 8%에서 최대 80%로 집계됐다.

중국의 불자 비율을 인구수로 환산하면 1억5000만~10억5000만 명이고, 전 세계 분포된 불자 비율을 합산한 결과 66억의 인구 중 7.3~22.6%로 4억8000만~15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 불자수에서 중국 불자를 뺀 값을 보면 3억3000만~4억5000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불교인구 3억 6000만과 근접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불자를 뺀 정보가 신뢰도 있는 정보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키피디아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엄밀히 분석하는 일이 남았지만, 세계불자수를 최대 15억으로 집계한 것은 주목된다. 세계 종교인구 통계는 다시 쓰여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불교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지닌 옛 통계였다면 더욱 그렇다. 이나은 기자

매월 요양원 찾아 어르신 진료

불자 의료인 봉사모임 무량감로회 창립… 초대 회장에 박귀원 교수

"대자대비한 부처님, 무량감로회 원들이 봉사를 통해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 일체의 상(相)을 버리고 육바라밀 의술을 실천해 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한 양약이 되길 발원합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불자 의료인이 모여 이타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자의료인 봉사모임인 무량감로회(회장 박귀원)는 1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무량감로회는 김종화(한국불교연구원 이사), 배광식(서울치대 교수), 박귀원(서울의대 교수)유창수(前 불자약사보리회장), 강영자(간호사), 백경숙(약사), 채원선(자원봉사자 대표) 등 의료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창립을 준비해왔다.

창립법회에는 前 동국대 불교대학장 인환 스님이 창립법회의 축사를 맡았으며 의사,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창립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임원선출,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다.



무량감로회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인환 스님(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박귀원 회장(가운데)이 떡 절단식을 하고 있다.

박귀원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앞으로 양의, 한의,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표하는 부회장을 각각 선출할 계획이다.

박귀원 회장은 "1998년부터 의료봉사활동을 해오던 불자약사보리회가 2009년에 해산하면서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팀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 됐고, 대승사상에 입각한 보살행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오늘 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2월부터 진료활동을 시작할 예정이고 첫 해인 만큼 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불자여러분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무량감로회는 첫 시작인 만큼 회원 증강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2월 28일에는 온양 보문사 또는 칠보사의 요양원 진료를 첫 사업으로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료를 펼칠 계획이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는 "국내 사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양로원과 연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보험은 있지만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주로 봉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스리랑카, 미얀마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불교국가에도 연 1~2회 봉사를 나가는 등 어디든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데는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모임은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상담, 교육 및 의료 지원 사업 △불자의료인의 연계를 위한 조직 활동 지원 △국제 친선 및 포교를 위한 해외 의료 지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 △유관 단체와 연대해 의료봉사 활성화 등의 계획안을 내걸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크든 작든 나누는 것이 자비

서울노인복지센터 '아이티 지진 모금행사'

대규모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이티 국민들을 돕기 위해 어르신들도 모금동참에 나섰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월 25~29일 관내에서 센터 회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티 지진 모금행사'를 실시한다.



탑골인 봉사단 어르신들이 모금활동 홍보를 하고 있다.

이 행사는 '탑골인 Top Goal 人문화사랑' 어르신들이 센터 내 어르신들 및 직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모금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탑골인 문화사랑'은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의 보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노인자원봉사활동 단체다.

가섭 스님은 "이번 '아이티 지진' 모금행사를 통한 구호활동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티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재건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모금활동행사를 마련했다"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나누는 것이 '자비구현'이고 '동체대비'사상"이라며 이용 어르신들에게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의 모금액 전액은 어르신 대표와 직원이 함께 직접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달할 예정이다. (02)739-9504

이나은 기자

"노인복지사업 지속 확대"

천태종복지재단 송파노인요양원 위탁운영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이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천태종복지재단은 기존 위탁운영체인 청암노인복지재단의 재위탁 포기에 따라 서울시 복지재단이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것으로 2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080㎡ 규모로, 현재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80명이 생활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김영 원장은 "2004년 개원 이래로 모범적으로 운영돼온 시설을 인수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운영법인의 변동으로 잠시 어려움은 있겠지만 변화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운영성과와 직원의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태종복지재단 관계자는 "2009년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구립아이플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이번에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서울지역에만 총 5개소의 기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오는 4월 직영시설로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이고, 부산 등의 주요 도시와 사찰 인근에 노인복지관 및 요양원의 위탁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천태종 복지재단의 노인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서울, 강원, 충북 지역 등에 13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02)873-3405 이나은 기자

사단법인 국제승가법황청 설립 선포 및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 초석을 놓기 위하여 본 (사)국제승가법황청은 이를 위해 중생과 함께 지혜를 모아 보살행 실천을 위하여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삼정사와 칠정사님을 모시고 큰스님의 법맥과 법력으로 구족계를 수계하여 미래의 승려자격을 높이기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미계에서 대승왕까지 승계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후학 학인스님 양성을 위하여 산재된 군소종단을 중심으로 지역사찰 포교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제화 세계화을 위하여 불교 각 국가(태국,스리랑카, 미안마,중국등..,)스님과 교류를 통하여 국제승가교황청을 여법하게 세계에 널리 홍포하여 불교중흥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법황청에서는 뜻을 함께하실 각 종단스님과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 국제승가법황청은

* 환원하는 불교 * 실천하는 불교 *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불교
* 보살도를 실천하는 불교
* 21세기의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을 실천하는 승가교단입니다.

사단법인 국제승가법황청 법황 법왕 임원

- 대법황 석 인왕 (한국불교 여래종)
- 국외법황 석 혜철 (한국불교 원각종)
- 대법왕 석 동원 (대한불교 인화종)
- 국외법왕 석 법광 (세계불교 법륜종)
- 법 왕 석 의천 (대한불교 미타여래종)
- 법 왕 석 청원 (대한불교 불광종)
- 국내법황 석 정암 (한국불교 조계종)
- 국내법왕 석 혜륜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 법 왕 석 월인 (대한불교 승가종)
- 법 왕 석 일강 (대한신불교 천우종)
- 법 왕 석 보광 (중앙불교 조계종)

(※종단별로 세계평화와 한국불교 홍포을 위하여 평화대사 58명이 임명되어 현재 활동중임)



▷ 2010년 1월 26일 국제승가법황청 설립 선포 및 취임법회

연락처 : (우)718-912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423번지 (법전사) 전화 (054)972-5545 / 팩스 (054)972-5546 / 휴대폰 011-528-6676

불교학연구회

'제주불교' 겨울워크숍

불무 습합된 문화의 보고

<佛巫>



불교학연구회가 1월 28일 제주 약천사에서 개최한 겨울 워크숍 토론 모습. 왼쪽부터 고대만 교수, 성원 스님, 수암 스님, 문무병 이사장, 한금순 연구원, 이병욱 박사.

제주 영등대왕신 전설의 개남보살은 관음보살

무속와 불교 만나 제주불교만의 특색 만들어

옛날 제주 물케(現 한수리)의 한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를 나섰다가 태풍을 만났다. 표류 끝에 어부가 도착한 곳은 외눈박이 땅이었다. 그 곳의 영등대왕이 떠내려 온 어부를 살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다.

"어부야, 돌아갈 때는 '개남보살'을 부르고 돌아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개남보살, 개남보살…."

어부는 영등대왕의 가르침대로 '개남보살'을 부르며 바다길을 나섰다. 물케에 거의 다다를 무렵 어부는 생각했다.

"이제는 '개남보살'을 부르지 않아도 되겠지."

어부가 '개남보살' 칭명하기를 멈추자 순간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어부는 표류해 다시 외눈박이 땅으로 되돌아갔다.

외눈박이들이 개를 데리고 몰려들며 어부를 잡아가려는 것을 영등대왕이 돌(왕석) 밑에 어부를 숨겨 다시 목숨을 구했다.

"반드시 도착할 때까지 '개남보살'을 부르도록 하고, 집에 가서는 음력 2월 초하루에는 나를 생각하라."

영등대왕의 가르침대로 어부는 '개남보살'을 열심히 부르며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영등대왕은 어부를 숨겨줬다고 해 외눈박이들이 죽여 세 토막을 내 바다에 던져버렸다.

영등대왕의 머리는 제주 우도 해안에 떠올랐고, 몸체는 제주 칠멸이당 아래에, 발 부분은 물케 매출물 위에 올랐다.

영등대왕의 도움으로 물케로 돌아온 어부는 생명의 은인인 영등대왕의 흔적을 모아 영등하르방당(現 제주시 대림하동 1888번지 소재)을 세워 영등할아버지의 혼을 위로했다.

제주의 영등대왕신 전설이다. 그 후로 제주 어부들은 풍랑을 만나면 "개남보살, 개남보살…"하며 '개남보살'을 찾는다. 영등대왕이 어부에게 알려준 '개남보살'은 누구일까?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월 28일 제주 약천사에서 '제주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2010년 겨울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문무병 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은 "개남은 제주 방언으로 개남보살은 관음보살"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특강 '제주 민속과 불교'에서 "제주불교는 아시아문화의 중심이다. 제주불교의 특징은 불교와 무속이 습합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해 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금순 제주불교사연구회 연구원은 '제주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의 특강에서 고려시대 연등제가 조선의 연등절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러 영등굿으로 바뀐 사례 등을 통해 오늘날 제주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을 설명했다.

특강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문무병 이사장, 한금순 연구원 등 발표자를 비롯해 성원 스님(약천사 주지), 수암 스님(금붕사 주지), 고대만 제주대 교수, 이병욱 고려대 외래강사가 참석해 제주불교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수암 스님은 "불교와 무속이 습합돼 제주불교를 형성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섬 지역 특성상 외부문물의 유입이 제한적인 제주는 육지와 달리 전통불교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제주불교는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 삼국이 탐라국과 무역관계를 통해 불교를 전했다는 북방전래설과 석가모니부처의 제자들이 뱃길을 따라 불교를 전했을 것이라는 남방전래설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수암 스님의 제주불교 전래설 설명에 문무병 이사장은 "제주불교의 근간은 남방불교일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문 이사장은 "불교는 물길 따라 바다로 올라왔고, 무속은 시베리아에서 바람길을 따라 내려왔다"면서 "무불(巫佛) 습합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육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깨지기 시작했지만 육지의 유교적 전통이 제주에서는 발을 디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무병 이사장은 "북방에서 전해진 불교는 수정사 등 제주 북부지역에 자리 잡았고, 남방에서 전해진 불교(전통제주불교)는 제주 남부를 비롯해 한라산 기슭 등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성원 스님은 "문화의 시간차 일뿐 제주불교가 육지불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스님은 제주가 아닌 한국불교를 '육지부 불교'라 표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스님은 "육지에서는 전통종교인 마을의 당 등이 근대화를 거치며 순식간에 사라진데 반해 제주에서는 그 훼손이 덜했다"며 "제주의 신앙형태는 육지보다 훨씬 순수하다"고 강조했다.

신행 형태에 대해서도 성원 스님은 "참선과 기도정진만이 불교의 바른 신행이며,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불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주장은 불교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종교는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제주의 불교세는 전국 어느 곳보다 우세하다. 이는 불교가 경전, 참선, 공사상 등의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형태로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가 일궈낸 결과"라며 "제주불교를 지나치게 무속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제주불교의 우수성을 바로 알아 육지부 불교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대만 교수는 "제주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데 있어 무속과 불교의 관계는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이는 제주불교 뿐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에 얽힌 쟁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고 교수는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제주의 미륵신앙과 무속에 담겨진 미륵신앙만을 연구했으나, 타지역의 미륵신앙과도 종합해 연구한다면 제주불교의 독특함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 제안했다.

또, "제주 당 신앙 가운데 '본풀이'(제주 전통제의)의 작성자와 형성시기를 밝히면 불교와 무속의 습합과정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제주불교의 원류와 변천과정을 점검한 데 이어 미래에 대한 담론도 오갔다.

한금순 연구원은 "제주불교의 특징 중 하나가 (사찰에서의 신중기도 대신에) 가정에서 안택기도를 하는 것"이라면서 "제주 연등굿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제주도민의 신앙심을 발휘하는 모습은 옅어지고 연구적 접근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제주사람으로서 제주불교만의 신앙형태에 대한 애정은 있으나 미래 제주불교의 모습은 육지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참선과 경전, 기도 등을 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무병 이사장은 "고려시대에는 불교도 무속도 국교로 취급됐다.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 제주"라면서 "산신굿을 산신불공으로, 용왕제를 용왕불공이라 부르며 완전한 토착화를 이룬 것이 제주불교의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고대만 교수는 "과거의 무불시대가 또 다른 모습으로 도래하지 않으려면 한국 불교계의 제주불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수암 스님은 "제주에는 오랜 기간 무불시대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제주의 무속인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육지불교의 잣대로) 무속을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무속인의 영역을 불교가 흡수 · 수용해서 제주불교를 세련되게 발전시키는 것이 제주 불교인의 몫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원 스님은 "제주불교에는 육지에 없는 '붓다클럽'이라는 신행단체가 있다"면서 "육지부의 거사림, 라이온스클럽 등과 비슷한 신행단체로 제주에만 6개 지부를 갖추고 재가자 독자적으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육지에 있을 때에는 재가자들이 스님 권위에 눌려 있다는 생각도 했다"면서 "제주에서는 (무속과 결합돼 있어서 그런지) 스님 없이도 독립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원 스님은 "제주 사찰마다 신도회가 크지 않은 것도 모든 불자들이 여러 사찰에 걸쳐 있으면서, 스님 없이 신도간 자발적인 모임 갖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스님은 "약천사 불교대학도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 (스님에 의존하지 않고) 재가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제주불교의 특징"이라며 "제주불교의 좋은 문화가 확산돼 개인적 신앙을 바탕한 조직문화가 불교계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29일 제주대 제주국제교류회관에서 '중국언어와 불교'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청 반대로 반환 불가?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스님 주장



"일본 강점기에 반출돼 미국 보스톤 미술관이 소장한 3불(정광불 · 가섭불 · 석가모니불) 2조사(지공 · 나옹 스님)의 사리가 문화재청의 반대로 반환이 불가한 상황이다."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10만 여점. 해외반출 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지금, 문화재환수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이를 막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 · 사진)는 1월 25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재청의 반대로 보스톤 미술관이 소장한 3불2조사의 사리가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2009년 여름, 미국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이 소장한 라마탑 형사리구에 3불2조사 사리가 봉안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 반환을 추진해왔다.

혜문 스님 등이 보스턴미술관 측에 사리의 종교적 의미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보스턴박물관은 사리만이라도 한국 반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었다.

3불2조사 사리의 반환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지난해 10월. 혜문 스님과 보스톤미술관 관계자,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사리 반환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은 "사리만의 반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스톤미술관은 "사리 반환도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고, 혜문 스님의 계속된 요청이 있자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사리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혜문 스님은 "문화재청이 '사리와 사리구가 분리될 수 없다'며 사리의 반환을 막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해외반출문화재의 귀환에 있어 '기증'과 달리 '반환'에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사리와 사리구를 하나로 보며 사리구를 제외하고 사리만을 반환받을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사리만의 반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주장은 그간 전례에 비춰볼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 보물 제366호 경주 감은사 출토 사리장엄구는 사리와 분리돼 사리만 1996년 감은사탑에 봉안돼 있다. 보물 제928호 봉인사 사리탑도 같은 경우이다. 정부는 1987년 일본 오사카시립미술관에서 기증 받은 사리장엄구와 사리를 분리해 사리는 봉인사로 돌려보냈다.

일괄문화재 중 부분만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1996년 일본 야마구치 현립대학이 소장한 '데라우치 문고'의 일부 반환을 지지 · 승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산하 공주박물관은 일본강점기 백제 송산리 고분을 도굴했던 가루베의 유족들로부터 2006년 기와 6점을 기증받으며, "돌려준다고 하는데 안받을 수도 없지 않느냐"고 정당화한 전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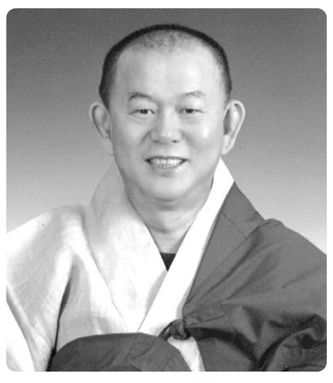
당시 문화재계에서는 "가루베의 도굴행각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약탈 문화재'가 반환될 길을 영영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다.

혜문 스님은 "사리와 사리구가 함께 박물관에 있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예"라며 "현재까지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중 보스턴미술관을 제외하고 '사리와 사리구'가 함께 봉안된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문화재 반환은 각각의 건마다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며 "뒷날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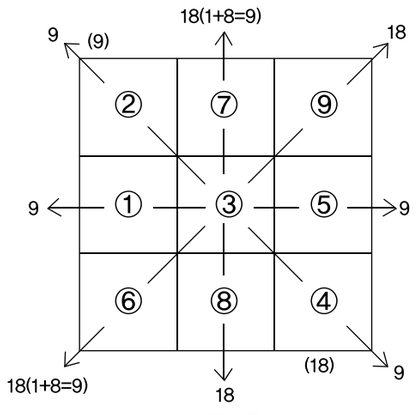
집중 2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 본 대학에서만 직강

강 의
월 · 수 · 금 : 오후 2시 – 5시
토 · 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짚어 5분안에 길흉,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 이사방위, 입찰경매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함
■ 사찰 포교당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경인년 정초신수 3분안에 가능함. ■ 신통법으로 조상천도 삼재 풀이함.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구단구궁법은 법화 종헌 큰스님께서 만든 특단의 학문입니다.
◈ 특전 ◈ ■2월 등록자 특별장학금(50%) ■ 방문시 교재판매
■www.psa.or.kr 홈페이지 참조



구단구궁 원리도

◈ 년비결문구수가 ④ ③ ②가 나왔을 때 월·일·시의 해당 구궁문구수를 알아보는 그림

※월(月)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해당월(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당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일(日)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날 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결문구수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날 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비결문구수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날 짜	25	26	27	28	29	30						
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시(時)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비결문구수	②	⑦	⑨
해당 시간	19~21시	11~13시	15~17시
비결문구수	①	③	⑤
해당 시간	17~19시	21~23시	
비결문구수	⑥	⑧	④
해당 시간	09~11시	13~15시	23~01시

부산불교전법대학 –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051)467-4665 010-7725-1024

일주문



불교환경연대 생명의강 방생법회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은 2월 23일 여주 신륵사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 및 수륙재'를 봉행한다. (031)885-2505



법무부 공로상 수상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월 10일 서울구치소 교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보우승가회 회장 취임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능해 스님은 1월 27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동국대-사마르칸트대 학술교류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은 1월 27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국립외국어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어린이 생태 문화탐방교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은 2월 6일 서울 안국동 삼청공원에서 '겨울방학 어린이 생태문화탐방교실'을 개최한다. (02)745-5813



교수불자연합회 2010세미나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장은 2월 1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외국사찰 비교 통한 사찰 환경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군불총 정기법회

박정이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원광사에서 취임 첫 군불총 정기법회를 봉행한다.(02) 748-7752



대불청 대의원장 선출

정인택 대한불교청년회 신임 대의원장이 1월 24일 제56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됐다.



공불련 성지순례 봉행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감사원 감사위원)은 1월 22~24일 중앙행정기관 임원과 함께 일본 오사카, 교토의 동대사 · 청수사를 성지순례 했다.



불교인재원 백련암 템플스테이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2월 6~7일 해인사 백련암 템플스테이를 봉행한다. (02)735-2428

"어려운 스님부터 도울 것"

교단자정센터, 김원보 신임대표 기자회견

"어려운 스님들을 도와 교단 내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교단자정센터 김원보 신임대표는 1월 26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원보 대표는 "2008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조계종 승려 중 29%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출재가 구분을 떠나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3년 임기(2010~2013년의 대부분을 '세이브 상가(Save Sangha) 캠페인'에 할애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부처님이 제안한 이상적인 인류공동체 '상가(僧伽, 스님들의 공동체)'를 되살리자는 목표에서 기획됐다.

그 첫번째로 교단자정센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스님들의 건강의료보험 및 승가공동체(의료, 교육, 주거, 생계)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생활전수조사와 세미나 등을 거쳐 11월 '세이브상가위원회'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사업설명회를 연다.



김원보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 대표는 "10년간 해온 교단자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면서 바꿔가겠다"며 "특히 불교계에 만연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종법을 법적 논리로 접근해 개정을 요청할 것이다.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불자회 출신인 김 대표는 "교단자정센터 초기부터 이사를 맡고 일을 하면서 '불교계에 이와 같은 기구가 꼭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인연이 교단자정센터의 대표까지 역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불교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그는 "불교는 자연스럽고 친숙하다. 특히 외가가 불심이 독실 했는데, 그 중 외사촌동생이 출가해 스님이 됐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절에 가는 모습, 아버지가 사경하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있다"며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교단자정센터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보 신임대표는 서울대 졸업, 한국감정원 감정역, 감정평가사불자회 이사, 불교아카데미 마이 리더스 클럽 4기 수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쳐 현재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2010영산재' 성공 개최 결의

태고종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



26일 개최된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회의.

태고종은 1월 26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영산재 대법회 '2010 영산재' 성공 개최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인공 스님은 이날 종무원장 회의에서 "이번 영산재 봉행은 종도 대화합과 통합이 이뤄져 종단 위상이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국 종무원장 스님들이 원력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종무원장 스님들은 "2010 영산재'를 원만히 봉행하는데 전국 각 지역의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영산재를 통해 종단이 한 차원 높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자" 고 결의했다.

한편, '2010 영산재'는 오는 3월 11일 오후2시~4시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영산재 대법회에는 시연할 120여 명의 어산단과 전국 3200여개의 사찰, 전국 15,000여 명의 종도가 동참해 전국 규모의 대법회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 창립준비위원장 혜산 스님(충남교구종무원장)이 아이티의 지진 구호성금으로 500만원을, 여래사 법주 스님이 종단발전기금을 각각 총무원에 전달했다. 태고종은 아이티 재난 극복 기도법회를 봉행하며 지진참사 구호성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아집 편견 버리고 화합하라"

(사)대한불교법사종, 대관식 · 대법사 취임대법회



법사종은 종정 법산 스님 추대를 계기로 화합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사)대한불교법사종(총무원장 덕천)은 27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컨벤션홀에서 '제3세 종정 법산 대종사 대관식 및 제5대 총무원장 덕천 대법사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한국종단협 회장 의륜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 및 종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종정으로 추대된 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만이 옳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으며, 신임 총무원장 덕천 법사는 취임사를 통해 "호국불교, 생활불교, 현대불교의 실천적 구현을 이루기 위해 정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75-7783

총무원 법당 개원 임시중앙종회 진행



27일 열린 일붕선교종 임시중앙종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27일 서울 인수동 총무원에서 '총무원 법당 개원 및 임시중앙종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화엄 스님, 전 일붕문도회 회장 도기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5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화엄 스님은 "총무원 법당 개원으로 종도의 구심점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개원법회 후 제36차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결산감사보고 등 종회 안건을 의결했다. (02)998-8161

승만부인으로 다시 태어나…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 봉행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은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4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봉행했다.

선정기념식에는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 스님, 前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제4차 여성불자 선정인들에게 "베풀며 사는 보살의 삶, 불제자로서 5계를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사는 불자로서 이웃과 세계의 행복을 이끌어 달라"며 "자신의 전문역량을 교단과 사회에 발휘하는 소리 없는 포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성 스님은 "4차에 걸쳐 선정된 420여 '여성불자 108인'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자신이 지닌 전문역량을 최대한 발휘함과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에 앞서 이은영 원장은 인사말에서 "사회 각 분야, 포교 · 신행 면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정법수호와 중생교화를 위해 회향하는 모범을 세워 달라"며 "승만부인으로 다시 태어나 섭수정법(攝受正法)의 서원을 세우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분야에서 제4차 108인 여성불자에 선정된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법 · 제도 · 정책적인 분야에서 불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신앙을 대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문화분야에 선정된 홍라희 관장(前 삼성미술관, 문화예술)는 "혜총 · 명성 스님 등 대덕 스님을 모신 자리에서 훌륭한 상을 받게 돼 기쁘고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 기념사, 축사, 108인 선정 경과보고, 선정소감발표, 선정증 수여, 축하공연, 승만부인 10대원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언 기자**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지도자의 산실 대원불교대학이 보다 편리해진 교통(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2번출구)으로 불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모집과정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대학, 대학원 과정 주 ·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4과목)
명상심리치유학과
대학과정 주 ·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4과목)
✚ 특전 : 각 학과를 수료하여 소정의 자격고시를 실시하여 불교상담사, 명상치유사, 법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지원자격
대학과정 : 각 과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
대학원과정 :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졸업자 및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자

원서접수
2010년 2월 28일까지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입 학 식 2010년 2월 28일(일) 오후 2시 대원정사 큰법당

문 의 대원불교대학 T. 02)732-7209 FAX. 771-6796
서울 용산구 갈월동 59번지 8호 대광빌딩 3층

새로운 도약 위한 로드맵 발표

동화사,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개최



1월 26일 대구동화사에서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치러졌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8차 회의가 1월 26일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혜총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등 종단 지도부 스님들이 참석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종단 현안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화두로 출범한 제33대 총무원이 최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종단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승가대학과 기본선원 운영의 개선점, 사찰 토지 처분, 외국인 승려 수계절차 변경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종단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노덕현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퇴전의 신심으로 수행정진

2010년 종단 개혁 및 중흥 원년 계획

지난해 총무원장 교체 전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태고종이 2010년을 종단 개혁 및 중흥 원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태고종 입법의결기관인 중앙종회 의장 원봉 스님(청주 보현사 주지)은 최근 신년대담을 통해 "종도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종단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강을 확립하며 종단 살림살이를 수립하는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다. 종단 각종 현안 수습에 중앙종회가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당시, 각 후보 진영 간 갈등양상을 초법적 형식으로 풀어내 특별한 경우 승가가 반드시 법치로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며 선거를 원만히 치러낸 장본인이다.

원봉 스님은 "지난해 종단은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올해는 실추된 종단 위상을 꼭 회복해야 한다"며 "구체적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 재차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종단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전향적으로 접근 ·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봉스님

이를 위해 원봉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수행과 정진이다. 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살이의 기본 이치와 상식을 지켜야 한다"며 "조석예불부터 지키는 등 초발심으로 돌아가 승려로서의 본분부터 챙기는 것에 종단중흥의 요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봉 스님은 "불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불교의 핵심,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는 자비에 있고, 자비는 실천에서 드러난다"며 "승려는 대비원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단의 종단 부채 해결에 관해 원봉 스님은 "돈이란 게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분명히 빌린 사람과 사용처가 있을 것"이라며 "누가 빌려서 어디에 썼나를 명확히 하면 해결 포인트가 나온다"고 말해 종단 부채의 공과 사를 가려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스님은 "법적 절차를 어겼다면 어긴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면 되는 일이고, 권한을 남용한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 누구나 다 잘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리 됐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독단이나 실수, 무관심이나 책임방기 따위가 그냥 덮어지지 않는다. 종단 부채도 담백하고 빈 마음으로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과중한 종단 부채에 일각에서 일고 있는 중앙종회 책임론에 대해서도 스님의 입장은 확고했다.

원봉 스님은 "중앙종회를 두고 식물 종회니 시녀 종회니 거수기관 운운하는 소리까지 들었다. 중앙종회가 의결 감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며 "이는 삼권분립이 실제적으로는 확립되지 못한 종단 현실이 그 배경"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종회기능을 정상화 시키려면 풍토 및 제도개혁이 절대 요망된다. 종회의원은 종도를 대의한다는 자긍 내지 책임을 더 절실히 인식하고 종도들은 내가 종단의 주인이라는 애종심을 더 확고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원봉 스님은 종헌종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법이 총무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스님은 "사회의식이 바뀌고 시대흐름이 변하면, 종단도 바꿀 것은 바꾸고 변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는 종단에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명실상부 선진화된 종단을 위해 종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봉 스님은 "아이티의 지진피해에 보다 많은 불자의 도움이 따르길 기대한다"며 "2010년이 태고종의 위상을 높이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종도가 일심으로 단결하고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신년대법회 봉행

인천불교연합회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는 1월 27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인천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 부시장 홍종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권진수, 윤상현 국회의원,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상임고문 한화갑, 유필우 민주당 인천광역시 당위원장 , 신학용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과 김혜운 명예회장스님과 인천불교총연합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해동불교범음대학 어산단의 상주권공작법을 통한 불교전통의식이 시연됐다.

대은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법을 찾는데 인천의 불교계가 합심하자"고 강조하며 "인천이 외형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도시가 되도록 불자들이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진리 마음껏 그리길

팔공산 석굴암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



연등장학회 이사장 법등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등장학회(이사장 법등)는 1월 28일 대구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법당에서 2010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에서 연등장학회 이사장인 법등 스님(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은 영남지역 고교생 및 대학생 30명에게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주며 격려했다. 법등 스님은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백지장에 마음껏 그리는 훌륭한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등장학회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221명에게 장학금 1억7500만원을 전달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설립선포 대법회

국제승가법황청



11개 군소종단들이 모여 국제승가 법황청 설립선포 취임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 중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군소종단 지도자 스님들이 대구에서 국제승가법황청 설립선포 협의체를 결성했다.

한국불교여래종(종정 석인왕)과 대한불교연화종(종정 석동원) 등 11개 종단 지도자들은 1월 26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국제승가 법황청 설립선포 취임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종단의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들은 석인왕 스님을 대법황으로 추대하고 나머지 10개 종단 대표자를 국내외 법황 · 법왕으로 추대해 국제승가법황청을 설립했다.

석인왕 스님은 "앞으로 한국불교의 국제화 · 세계화를 위해 세계 각 나라에 불교를 홍포해 한국불교 승가교단의 위상을 여법하게 널리 알리는 등 불교진흥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서울 구마다 도량 세우겠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도량 개원법회 봉행

대구지역 대표사찰 중 하나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가 서울 동대문구에 도량을 개원하고, 서울 각 지역구에 도량을 개원할 것을 발원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1월 23일 동대문구 제기동 불로장생타워 4층에서 '서울 동대문구 도량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주 우학 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승가대학장 철운 스님,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의원, 탤런트 선우용녀 · 전원주 씨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우학 스님은 "서울지역 불교의 도심공동화가 우려되는 지금, 더이상 위대한 진리성과 무한 자비성을 자랑하는 불교의 포교를 미뤄서는 안된다"며 "정법도량의 반야용선에 올라 서울 불교를 살리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서울시 25개 지역구 가운데 사찰이 단 한곳도 없는 지역구도 있다"면서 "서울 25개 구마다 법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도량 주지 청호 스님은 "동대문구 법당이 청정한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도량 개원법회에서 우학 스님과 사부대중이 서울 각 지역구에 도량 개원을 발원하고 있다.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의원은 축사에서 "법당 개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져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도량은 회주 우학 스님의 1000개 도량 건립 불사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대구 본원을 비롯해 경산 칠곡 구미 포항 감포 자인, 미국 뉴욕, 중국 청도 분원에 이은 한국불교대학의 10번째 도량이다.

동대문구도량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구 앞 불로장생타워 4층에 1485㎡규모로 마련됐다. 동대문도량에는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을 비롯해 선방과 차실, 서점, 후원, 요사채, 샤워실 등을 갖췄다. (02)6456-7228

조동섭 기자

겨울방학교실 개최

서구노인복지관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1월 5~29일 인근지역 50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5기 겨울방학교실을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사물놀이, 사군자, 밸리댄스, 발마사지 등 학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특기 과목을 익히며 보람된 방학을 보냈다. 특히 사군자반은 어르신 강사가 지도하는 과목으로 아이들과 어르신이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눈길을 끌었다.

혜철 충청지사장

결손가정 돌보기

해광 스님 앞장

5년간 매주 토요일 종교집회 및 결손가족 자매결연 학생들을 보살피며 매월 1회씩 학생들과 상담하고 장학금도 지급해 온 스님이 있다.

법무부 소년원 지도위원 해광 스님은 1월 20일 대덕소년원 퇴원학생 최군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접하고 인천 송림동 자택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진로를 상담했다.

최군은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살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스님은 위로금 전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와주겠다며 격려하고 가정의 화목과 관심을 당부했다.

해광 스님은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을 돕고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묵조선 가풍' 수행의 덕목

조동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월 26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에서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감찰원장 및 교구원장, 임원위원이 모인 가운데 신년하례법회 및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덕우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새롭게 한해를 다짐하고 묵조선의 가풍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아 열심히 정진 · 포교해 불교계의 꽃을 피우자"며 "종도들 모두가 종단을 위해 솔선수범해 2010년 한해를 더욱 빛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차 임원회의에서는 총무원 청사기금 마련을 위한 수륙재 봉행과 불기 2554년도 계획안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아이티 지진참사 성금으로 전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홍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홍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해맑은 어린이 희망찬 우리 미래

대불어, 어린이 포교 위한 특별법회 · 일일찻집 열어

불심도시 부산에서 어린이 포교기금 마련을 위한 아주 특별한 하루가 펼쳐졌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효선)는 1월 23일 부산불교회관 일원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나눔의 법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회관 2층 전통찻집에서 하루 동안 일일찻집을 열었으며, 오후 3시 8층 여여선원 대법당에서는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초청 어린이포교를 위한 나눔의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행사, 위촉패 수여, 격려사, 축사, 특별공연, 정여 스님 법문, 축가 등의 순으로 2시간 동안 여법하게 진행됐다.

효선 스님은 봉행사에서 "여러 스님들의 노력과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의 희생으로 부산지역에서 어린이포교가 활성화되고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한 나눔의 법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연극, 찬불가 합창 등의 특별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심산 스님(동련 이사장, 홍법사 주지)은 "어린이 포교를 위해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만큼, 어린이 포교가 발전하고 미래 한국 불교의 중심이자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지현 스님(前 동련 이사장, 관음사 주지)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고 넘쳐나는 것처럼 불자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동련을 만들고, 또 동련을 움직이는 버팀목이 돼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천진불들을 위해 향기로운 차 한잔을 나누자"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법륜유치원 관음반 어린이 18명의 동극(童劇) '부처님의 전생과 아기부처님 오셨네'와 대한불교교사대학 제11기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창립한 인형극단 보리동이의 '하얀 눈썹 호랑이', 공덕원 연화합창단의 찬불가 등 다채로운 특별공연이 펼쳐져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여 스님, 동련 전 이사장 지현 스님(관음사 주지),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및 김귀련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장, 김광호 부산불교교사대학부학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일일찻집 수익금 전액 및 후원금은 부산지역 내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의 법회 운영 지원 및 포교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부산지역 어린이법회 및 놀토 현황〉

공덕원 625-2253	도솔암 244-0217	보림사 501-0049	옥천사 781-1744
관음사 294-9300	동래정토법당 557-2746	불선암 (055) 365-2259	원오사 803-7573
광명사 646-0843	동명불원 624-7667	선암사 803-7573	통도사부산포교원 816-2241
구룡사 333-8030	룸비니포교원 238-1584	세존사 752-7788	한마음선원 403-7077
극락선원 628-7200	미룡사 404-4300	소림사 468-4497	향상선원 747-7870
금련사유치원 757-1505	미타선원 253-8687	여여선원 853-5486	혜원정사866-7771
금천선원 516-6001	범어사 508-3122	영주암 754-6120	홍법사 508-0345
금화사 581-3042	법륜사 553-7771	영화사 416-3529	(지역번호 051)
도림사 552-8909	보덕사 518-7790	옥련선원 754-2233	

올해 연등축제 '시민동참'에 주력

부산 2010 봉축위원회 결성법회 봉행…표어 공모

오는 5월, 진화된 형태의 연등축제가 부산시민 곁을 찾아간다.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대회장 정여 ·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이하 봉축위)는 1월 27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0 부산시민 연등축제 결성법회'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돌입했다.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1월 27일 코모도 호텔에서 2010년 연등축제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발원문 낭독, 축제기획방향 보고,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의 대회사, 이윤희 불교연합신도회 수석부회장의 봉행사, 허남식 부산시장 및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축사, 부산불교계 유공자 특별표창, 정여 스님의 법어, 축원,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봉축위 결성법회는 보다 철저한 준비로 내실 있는 축제를 마련하고자 예년보다 2개월 정도 일찍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봉축위는 먼저, 부산시민 연등축제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봉축 표어'를 공모한다. 접수는 2월 20일까지 불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1인 2점씩 출품할 수 있다. 당선작 1점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그 외 연등축제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채택된 사항은 즉시 축제에 반영된다.

지난해 신설돼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장엄등 경연대회'는 참여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장엄등은 제작경비를 고려해 출품지원금을 지급하고, 행진등 부문은 소규모 사찰에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성과 창의성을 적극 반영해 심사한다. 이때 독창적이고 통일된 행진복장과 즐거운 율동을 선보일 경우 수상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청소년 및 20~30대 젊은 세대의 연등축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등축제를 주제로 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도 시상할 예정이다.

정여 스님은 "불자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 불교문화와 역사, 전통을 잇는데 다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 더욱 발전된 연등축제를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새로운 기획과 아이템을 내어 축제준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불교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켜낸 호국불교이며 전통문화 창달에 큰 영향을 끼친 생활불교인 만큼, 시정을 하면서 원로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이 부산 발전을 위해 성원해주고 기도해주신데 항상 감사드린다. 올해 봉축행사가 더욱 성숙되고 범시민적 축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051) 867-0501

박지원 기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해 '한마음'

범어청소년동네 · 스포츠프로그램 개발협회 협약

범어청소년동네(이사장 정여)와 스포츠프로그램개발협회(이사장 공병학)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손잡았다.

범어청소년동네와 스포츠프로그램개발협회는 1월 26일 오전 10시 범어사 주지실에서 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을 통해 스포츠프로그램개발협회 에코그린헬시사업단은 범어청소년동네 산하기관인 '영희네 집'에 운동기구 9대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한 운동기구는 러닝머신 1대, 탁구대 1세트, 복합기 1대, 스텝퍼 1대, 자전거 5대 등이다.

더불어 청소년 잠재역량 강화와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관련 기자재 지원 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공동목표로 상호 협력할 것을 협정서를 통해 약속했다.

정여 스님은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인 영희네 집은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9~24세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보금자리인 만큼, 운동기구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불심이 돈독한 불자기업인인 공병학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남구 다문화가정학교의 운동기구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지원인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프로그램개발협회 에코그린헬시사업단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제공하자'는 슬로건 아래 일반 가정 및 공공기관, 단체 등에 방치된 운동기구를 회수,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070) 8615-8868

박지원 기자

부산 BBS 경남중계소 개국

창원 · 마산 · 진해서도 법음 청취 가능

2월 1일 부산불교방송 경남 중계소가 개국해 BBS불교방송 난청지역이었던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의 불자들이 부처님 법음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경남 중계소 설치는 경남지역 불자들의 끊임없는 요청과 방송 포교를 바라는 지역 교계의 숙원사업으로 2년 여에 걸쳐 진행됐다.

주파수 FM 89.5㎒, 송출출력 500W로 방송되는 경남 중계소가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일부에 한정됐던 불교방송 가청권은 경남 창원, 마산, 진해 등 경남지역 대부분으로 확장됐다.

중계소 개국으로 경남지역 불자들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전파를 통해 전해지는 부처님 법음을 듣게 됐다.

부산불교방송 경남중계소는 지난 2008년 2월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취득한 뒤 위치선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해 6월 창원시 동정동 천주산 자락에 중계소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벌여 2010년 1월 8일부터 송신기와 전용회선 설치를 마치고 시험 전파를 발사했다. 중계소에는 방송에 필요한 송신기는 물론 무인 원격제어시스템,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최첨단 방송장비들이 갖춰져 있다.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은 "2008년 8월 시사주간지 '판판뉴스' 창간과 12월 IPTV 개국으로 종합 미디어 체제를 갖춘 부산불교방송은 이번 경남중계소 개국을 통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삼재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두드리고 배우고 신나요"

나주 심향사, 어린이 난타 템플스테이 개최

'쿵, 따닥, 쿵 따, 얼쑤~'

전통사찰에서 어린이를 위한 신명나는 난타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1월 24~30일 '청련비천-푸름마음, 바른행동 배움터'를 주제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어린이 난타를 비롯해 단청장후보 박정자님의 탱화그리기, <부모은중경> 특강, 부처님생애 바로 알기, 한지공예, 비누 만들기, 소원등 만들기, 눈썰매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난타그룹 '얼쑤'의 지도로 매일 90분씩 6일간 진행된 어린이 난타에서 학생들은 저마다 북, 장고 등 전통악기와 세수대아, 밥통, 빨래판 등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생활 속 기물들을 전통가락에 맞춰 연주했다. 20여 어린이가 참여한 이번 어린이난타는 30일 회향에 앞서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원광 스님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접목시킨 난타는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심향사 템플스테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불교와 전통문화를 가장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행사의미를 설명했다.

주판교(광주 운암초 6학년) 어린이는 "힘껏 두드리며 배우는 것이 너무 신났다. 다음번에는 친한 친구들과 같이 오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주 심향사에서 6일간 열린 난타템플스테이에서 학생들이 생활 속 기물들을 전통가락에 맞춰 두드리고 있다.

심향사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해 다양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불교문화와 현대문화의 장점들을 잘 소화한 우수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주지역 불교홍포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061)334-288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지역주민 대상 무료 진료 실시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1월 19일 고창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 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무료 한방진료는 사암침술로 널리 알려진 금오 김홍경 선생과 한의사, 진행요원 등 8인의 사암한방봉사단이 복지회관 물리치료실을 방문해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침, 한약처방 진료를 실시하고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144명의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진료 서비스를 받았다.

관장 무공 스님은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고 꾸준한 건강관리가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앞으로도 무료진료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군산교도소 교정인불자 모임 불심회

재소자들의 건강한 삶을 꿈꾸며…

전국 49개 교도소 중 유일하게 불자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던 군산교도소에 교정인 불자들의 모임인 불심회(회장 황원주 · 총무 이호승)가 창립된 것은 2006년 12월의 일이다.

타 종교를 갖고 있는 교정직원들이 각자의 종교를 따라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모습에 불심회를 이끌던 황원주 회장과 이호승 총무는 군산 동국사 종걸 스님을 찾아갔다.



황원주 회장(오른쪽)과 이호승 총무.

황 회장 등은 스님에게 교정인불자모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움을 청했고, 종걸 스님은 흔쾌히 수락하며 지도법사를 맡아줬다. 이후 황원주 회장 등은 교정인 불자들이 정기적인 법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군산교도소 불심회 창립의 결실을 맺게 했다.

황원주 회장과 이호승 총무는 창립취지를 전 직원들에게 회람을 돌리고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고, 결국 지금의 22명의 회원이 모였다. 창립 3년이 지난 현재 군산교도소 270여 직원 중 42명이 불심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불심회는 군산교도소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진 단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어느 날이었다. 매주 목요일에 열리던 불자 재소자 법회에 가끔 갑작스런 사정으로 법사를 모시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불심회 회원들은 스스로 수행과 교리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어 몇몇 회원을 전주의 화엄불교대학에 진학시켜 체계적인 불교교리를 통해 재소자들의 교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불심회는 매년 2~3명 회원들의 학비를 지원중이다. 그 결과 불심회 회원들은 신종플루로 인해 외부인의 교도소 출입이 어렵게 되자 불심회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불교법회를 이끌어 오기도 했다.

종교를 불문하고 연고가 없는 불우수용자들을 위해 영치금을 지원해주는 한편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됨으로 인해 갑자기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버린 어린이들을 위해 남몰래 생활비를 후원해주기도 했다. 이들의 선행이 알려지게 되자 종교를 갖지 않은 직원들은 물론 가족까지 모두 불자가 되는 포교사의 역할도 했다.

또한 이호승 총무는 외국인 수용자들을 위해 국제포교사 자격도 준비 중에 있다.

불심회 회원들은 불자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이면 교도소를 모두 연등으로 장식해 작은 불국토를 만들어낸다.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교화활동과 신행활동 외에도 짬짬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진정한 바라밀의 실천"이라는 원을 세우고 동국사 신도회와 함께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 의료봉사활동이나 불교복지시설 방문, 법률자문 등 봉사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재소자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불심회 회원들이야 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가 아닐까?

다 음 카 페 군 산 불 심 회 http://cafe.daum.net/kunsanbulsimhwae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무행정 특강 열기 '활활'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연말정산 · 행정프로그램 등 교육

요즘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스님의 걱정거리는 연말정산 관련업무와 사찰종무행정의 효율성이 단연 꼽힌다.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원장 금명)은 1월 26일 광주 상무동 조선컨벤션에서 연말정산 등의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종무원 산하 주지스님 및 교임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행사에는 종무원의 행정 안내, 세무교육, 사찰종무행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광주전남종무원장 금명 스님, 원로부의장 지암 스님, 종회의장 설봉 스님, 사정원장 지산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 소속 스님들과 교임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로의원 지암 스님은 축사에서 "현재 태고종은 많은 젊은 스님들이 배출돼 미래가 밝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승가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종무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연말정산 특강에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금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무원산하 각 사찰의 주지스님의 원력과 지혜를 모아 광주전남종무원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회원스님들의 뜨거운 열의와 힘을 보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종무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양에 앞서 진행된 연찬회에서는 종무원 회원사찰에 대한 분담금과 분담금 기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이어 스님들은 향후 회원사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키로 결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년회의 든든한 후원자

원각사 불일청년회 동문모임 창립

광주의 대표적인 사찰청년회는 관음사청년회와 원각사 불일청년회이다. 관음사청년회는 현재 사라지고 없어 원각사 불일청년회가 가장 오래된 청년회로 활동하고 있다.

1월 26일 원각사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원각사 불일청년회 동문회(초대회장 임동호)가 공식 출범한 일이다.

행사에는 원각사 부주지 도요 스님을 비롯해 원각사 불일청년회 김용옥 초대회장, 선우회 정원채 회장 등 어느덧 중 · 장년이 된 100여 원각사불일청년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법요식과 창립총회가 봉행됐다.

창립총회에서는 동문회 초대 회장으로 임동호 동문회 준비위원장이 추대됐다. 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너무 오래만에 본 회원들이 있어 반갑다. 도반들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즐거운 일이다"라며, "이제라도 부처님의 법을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용옥 청년회장은 축사에서 "현 청년회의 작은 힘이 되어주고자 동문회를 만들게 되었다"며 "광주불교에서 청년불자의 위상을 만드는데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화합해 부처님의 자비를 회향하는 동문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창립총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과 인준에 이어 회칙 제정,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동문회는 행사자료를 통해 향후 △청년회원 조직관리 △동체대비로 함께 살아가는 나눔운동 전개 △어려운 불자가정 돕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복지사업 후원 △ 원각사청년회 포교 · 발전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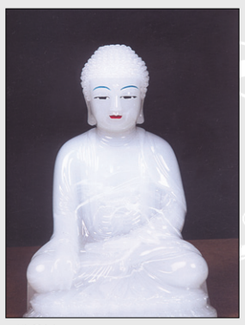
한편, 원각사불일청년회는 1979년 10월 창립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광주의 청년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파하는 첨병역할을 해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백옥불


대나무숯불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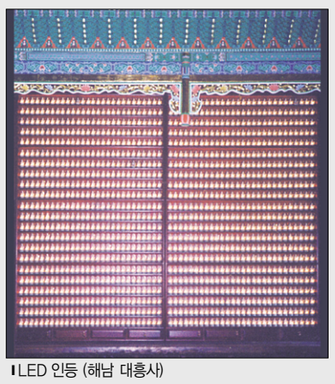
▪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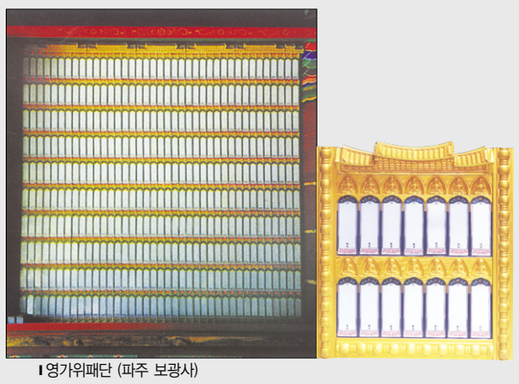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촛대.
▪ 연등전선 시공.

正宇불교예술원(구.정심원) www.jeongwoo.info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LED 인등 (해남 대흥사)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정우불교 등


공단등 · 바리등 · 영가등 · 금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툇마루에 앉아 보이지 않는 김동리를 떠올리다

김동리의 '등신불' 집필처
❸ 사천 다솔사(多率寺)

김동리는 다솔사가 마음에 들었다. 고향의 자연을 사랑했던 그는 고향에 있는 것들이 모두 있는 다솔사가 마음에 들었다. 한 해 겨울을 살고 나서 나중에는 그 곳에서 한참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등신불'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묵는 절간 방문 앞에는 크고 작은 파초가 여러 포기 다른 나무와 꽃들을 가리듯 하고 서 있었다. 넓은 툇마루에 나앉아 갠 하늘과 파초 잎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뻐꾸기 소리, 딱따구리 소리, 북소리, 경쇠 소리들마저 귀로 들려온다기보다 파초 잎이 묻혀다 전해주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곤 했다."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503년에 연기 스님이 세운 절이다. 전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길에 들어서면 어느새 깊은 숲의 호흡이 다가오고 간간히 들려오는 산새 소리는 숲의 깊이를 전해온다. 숲길의 끝에 서면 적멸보궁을 둘러싼 돌담들이 자연스럽게 도량으로 들어서게 한다. 일제강점기 때 만해 스님을 비롯한 효당 최범술, 변영태, 변영만, 김범부 등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의 '터'로 썼던 대양루가 도량 맨 앞줄에 서있다. 적멸보궁에는 와불상이 모셔져 있고 와불 너머로 사리탑이 있다. 김동리가 '등신불'을 썼던 안심료는 만해 스님이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곳이기도 하다. 고찰들이 대부분 그렇듯 다솔사도 자장율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나옹선사 등 여러 선지식들이 머물다 갔다.

한국 근대문학을 이끌었던 '무녀도', '등신불'의 김동리(1913~1995)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시절을 다솔사에서 보낸다. 맏형 범부를 따라 다솔사를 찾았던 그는 만해 스님을 만나게 되고, 만해 스님과 범부와 주지 범술 스님의 대화중에 '소신공양(燒身供養)'에 대해서 듣게 된다. 충격에 휩싸인 그는 그 때 벌겋게 달아오른 향로를 머리에 쓰고, 가부좌 자세로 소신공양을 하는 '만적'(등신불의 주인공)을 만들어낸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뒤에 발표된 소설 '등신불'에서 만적 스님은 그렇게 소신공양을 한다.

만적 스님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로 인해 집을 나가게 된 이복동생을 찾아 나섰다가 동생을 찾지 못한 채 출가를 하게 되고, 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문둥병에 걸린 동생을 만나게 된다. 동생을 다시 만난 만적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에 걸었던 염주를 동생의 목에 걸어주고 그길로 절에 돌아와 음식을 끊는다. 그리고 이듬해 봄 소신공양을 한다. 끊어낼 수 없는 번뇌를 짊어진 채 만적 스님의 육신은 연기로 화했고 퍼붓는 비로도 재울 수 없었던 뜨거운 몸짓은 등신불이 되었다.

'등신불'은 종교를 소재로 다루면서도 실존적인 측면에서 종교의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짧은 줄거리 안에서도 시간과 공간, 인물과 상황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단편의 속도감 속에 끝까지 여유롭게 스며있는 '불교'는 이 소설의 진정한 매력이다. '등신불'을 집필했던 안심료 툇마루에 앉아 보이지 않는 방안의 김동리를 떠올렸다.

다솔사는 키 큰 나무 숲 대신 차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신라 때부터 있었던 차밭은 효당 스님의 손을 거치면서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 밑에서 보면 도량이 차밭을 지고 있고, 차밭에 올라 내려다보면 도량은 둥지 속에 안겨 있는 듯했다.

차밭을 따라 올라가면 법당의 지붕들이 산 능선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푸른 잎의 차밭 때문인지 차밭에 둘러싸인 다솔사는 겨울의 한 가운데서도 그다지 앙상해 보이지 않았다. 차밭을 따라 걷다보면 도량을 모두 둘러보게 된다. 도량을 다 보고 내려왔을 때 후원 굴뚝에서는 뽀얀 연기가 솟고 있었다. 밥냄새를 달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연기 끝에는 낮달이 짙어가고 있었다.

김동리는 사는 동안 다솔사와 사천에서 11년을 살았다. 그는 등신불 외에도 많은 작품을 통해 고향과 자연, 삶과 종교를 소설화 했다. 김동리의 작품엔 단편들이 많다. 다솔사에 간다면 안심료 툇마루에 잠깐 앉아 그의 단편 하나 읽고 일어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등신불 말고도 1977년에 발표된 '저승새'는 절집에 앉아 읽을 만한 단편이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차 밭에 둘러싸인 다솔사 전경.

다솔사 숲길에선 산새들이 숲의 깊이를 전해온다



김동리가 '등신불'을 지필했던 안심료.



다솔사를 오르는 숲길.

다솔사 가는 길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 위치한 다솔사는 봉명산 군립공원 안에 있다. 남해고속도로 곤양 나들목에서 우회전하면 다솔사 이정표가 나온다.

대중교통은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75번 시내버스를 타고 곤양버스터미널까지 간다.(약 25분 소요) 곤양터미널에서 다솔사까지는 택시로 10분 정도 가면 된다. #문의 (055) 853-0283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

이 사미를 특별석에 앉혀라

몇 마디 말로 질문의 정곡을 찔러 사람을 깨닫게해
선문의 깨닫고 보림하는 '돈오보림' 사상 보여줘

선(禪)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선서를 쉬운 말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납자가 <조주록> 선해를 연재하자니 선의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포부만 앞세웠을 뿐 공연히 잎과 가지만 소개하고 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연재 도중에 강호제현의 아낌없는 질책을 보내주신다면 미더운 가운데 한결 나아진 선해(禪解)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붓을 드는 바이다. 연재에 인용될 판본은 <고존숙어록> 중에 있는 '조주진제선사어록'이다.

조주 선사는 후당시대(778~897)에 임제 선사와 함께 활동하였던 대표적 선승이다. 조주 스님은 어린 사미승으로 본사(本師)와 함께 남전 스님을 예방한 후 남전 스님을 법사로 수행을 시작했다. 당시 남전 스님과 조주 스님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조주록> 행장을 보면 남전 스님은 비스듬히 누워서 다음과 같이 사미와 첫 대답을 시작했다.

남전 "어디에서 왔는가?"

사미 "서상원(瑞象院)에서 왔습니다."

남전 "그래, 서상(瑞象)은 보았는가?"

사미 "서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누워 있는 부처님은 봅니다."

그러자, 남전은 일어나 앉으면서 물었다.

남전 "너는 주인이 있는 사미인가, 아니면 주인이 없는 사미인가?"

사미 "주인이 있습니다."

남전 "너의 주인은 어떤 분인가?"

사미 "봄이라곤 하지만 아직 춥습니다. 화상의 존체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옵니다."

그러자, 남전 스님은 유나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 사미를 특별석에 앉혀라."

남전 스님은 첫 대면에서부터 조주를 예사롭지 않게 보았다. 조주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함과 당찬 기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사미가 큰 스님을 친견하면 주눅이 들어 제대로 말도 못할 것인데, 조주는 남전을 보고 '누워있는 부처'라고 당당히 호칭했다. 이 발언은 남전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한 사건이 됐다.

선불교는 사람은 누구나 원래부터 부처임을 전제한다. 때문에 어린 사미의 이 발언에 남전은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곧 "네게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 사미는 서슴없이 "주인이 있다"고 대답했고, "그가 누구인가"라는 반문에 "바로 남전 스님 당신이 제 주인입니다"라는 뜻으로 "존체에 만복이 깃들기를…"하고 절을 올린 것이다. 사미가 남전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표현을 그야말로 기특하게 한 것이다. 사미의 이 대답은 마치 중견 선객의 선문답처럼 몇 단계 건너 뛴 것이라, 남전은 조주를 특별하게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장래에 한 시대를 풍미할 인재가 찾아왔음을 처음부터 알아봤다.

조주 선사는 남전 스님 휘하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은 시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18세 전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주록> 첫 장에서는 남전 스님과의 대화중에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말에 깊은 뜻(玄旨)을 돈오(頓悟)했다고만 기록돼있을 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주 선사는 60세에 천하를 다니면서 행각을 시작했다. 그 후 80세가 돼서야 조주(趙州) 동쪽의 관음원 주지로 정착했다. 이후 118세까지 관음원 낡은 절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와서 불법을 물으면 대답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자칭 촌 늙은이(田庫奴)로 살았다. 조주 선사는 일을 벌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이었고, 머리는 명석해 남보다 두세 단계 앞서서 말했기 때문에 선사의 한 마디, 한 마디 선구(禪句)는 그동안 다른 선사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독특함과 깊은 맛이 배어있다.

조주 선사는 주로 말 몇 마디로 질문의 정곡을 찔러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교화에 임했다. 그래서 조주 선사의 접화방법을 구순피선(口脣皮禪)이라고 한다. 그러나 말로써 사람을 깨닫게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선사의 격외구(格外句) 못지 않은 깊고 은밀한 뜻이 들어 있어 당대의 선사들조차도 감탄을 자아냈다.

<조주록> 행장 중에 혀를 내두르게 하는 선문답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하루는 남쪽에서 어떤 스님이 조주를 찾아와서 설봉 스님과 나누었던 문답을 전했다.

객승이 설봉(雪峰)에게 묻기를,

"예전부터 있던 차디찬 샘물에 적셔졌을 때는 어떠합니까?"

설봉 "눈을 크게 떠보아도 밑이 보이지 않는다."

객승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떠합니까?"

설봉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조주 스님이 이것을 듣고,

조주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콧구멍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했다. 그 스님이 곧바로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객승 "예전부터 있던 차디 찬 샘물에 적셔졌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쓰다."

객승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떠합니까?"

조주 "죽는다."

나중에 설봉 스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는 "고불(古佛)이야, 고불(古佛)!" 하면서 다시는 이 물음에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예전부터 있던 차디찬 샘물은 본질을 표현한 것이다. 조주 스님은 "그 물을 마시면 죽는다"고 했으니 명쾌하고도 심오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하니 당대의 선사들조차도 조주 선사의 선구(禪句)에는 더 이상 다른 견해를 붙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주 선사의 입에서 '조주무자', '뜰 앞의 잣나무', '판치생모' 등의 유명한 화두가 나왔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선객들이 가장 많이 참구하는 화두가 되고 있다.

조주 선사는 <조주록>에서 후학들에게 먼저 이치를 탐구하고 20~30년을 좌선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을 권했다. 선사 스스로도 "남전 스님 휘하에서 돈오(頓悟)를 얻고도 110세 노년에 이르러서도 아직 수행한다"고 말해, 선문의 전통 수행법인 깨닫고 보림하는 돈오보림(頓悟補任)의 사상을 보였다. 조주 스님과 임제 스님은 동시대의 선승이나 그 가풍은 완연히 다르다. 임제 스님은 방(棒), 할(喝) 등 선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교화에 임했지만, 조주 스님은 주로 대담을 통해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조주 스님의 선문답에서 빈번하게 눈에 띄는 것은 '중생이 부처', '마음이 부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임제 스님도 <임제록>에서 수 없이 강조했던 바이므로 이 점에 있어 두 선사의 기본 사상은 같다.

선불교는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즉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돈오(頓悟)이고 돈수(頓修)이다. 더 이상 부처가 되려고 닦는 것은 없다. 다만 앞으로 부처의 행을 행하면 될 뿐이다. 이것은 본 납자의 말이 아니고 <육조단경>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는 그 어떤 선문답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하니 지금 즉시 마음이 부처임을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라.



석우 스님 무불선원 원장

해인승가대 19회 졸업
동국대 선학과 졸업
동방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
현 무불선원 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6

미혹하면 '육취' 나타난다

[원문]

答曰 若有衆生 不了正因 迷心修善 未免三界 生三輕趣 云何三輕 所謂迷修十善 妄求快樂 未免貪界 生於天趣 迷持五戒 妄起愛憎 未免嗔界 生於人趣 迷執有爲 信邪求福 未免癡界 生於修羅趣 云何三重 所謂縱三毒心 唯造惡業 墮三重趣 若貪業重者 墮餓鬼趣 嗔業重者 墮地獄趣 癡業重者 墮畜生趣 如是三重 通前三輕 遂成六趣 故知惡業.

또 대답하셨다. 중생이 정인(佛心印, 자성청정심)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한 마음으로 선을 닦으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세 가지 가벼운 갈래에 태어나느니라.

무엇을 세 가지 가벼운 갈래라 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미혹한 마음으로 십선(十善)을 닦으며 망령되이 쾌락을 구하면 탐욕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여 하늘 갈래에 태어나는 것과, 미혹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키되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헛되이 일으키면 성내는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여 인간의 갈래에 태어나는 것과, 미혹한 마음으로 유위(有爲)에 집착하여 삿된 것을 믿고 복을 구하면 어리석음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아수라의 갈래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세 가지 가벼운 갈래라 하느니라.

무엇을 세 가지 무거운 갈래라 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삼독의 마음으로 오로지 나쁜 업만 짓는 것이니라.

탐욕의 업이 무거운 자는 아귀의 갈래에 떨어지고, 성내고 원망한 업이 무거운 자는 지옥갈래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의 업이 무거운 자는 축생의 갈래에 떨어지느니라.

이 세 가지 무거운 갈래와 앞의 세 가지 가벼운 갈래를 합치면 육취가 되느니라.

행하며,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비의 말을 행하며,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행하며, 악담하는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행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마음을 쓰며, 성내지 않고 미소 띤 마음을 행하며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마음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의 마음을 두고 행하지 못한다면 천상에 태어나게 된답니다. 또한 어리석은 마음으로 오계를 지킨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이나 형상에 매달려 복을 구한다고 하면 천상 · 인간 · 아수라 세계의 몸을 받게 됩니다.



萬橡本無形, 동성 스님 作.

[해설]

육도에 태어나게 되는 마음 씀씀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주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선을 닦으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세 가지 갈래 천상세계, 인간세계, 아수라 세계에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이를테면 미혹한 마음으로 십선(十善)을 닦으며 망령되이 쾌락을 구하면 탐욕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해 하늘 갈래에 태어나는 것과, 미혹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키되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헛되이 일으키면 성내는 경지를 벗어나지 못해 인간의 갈래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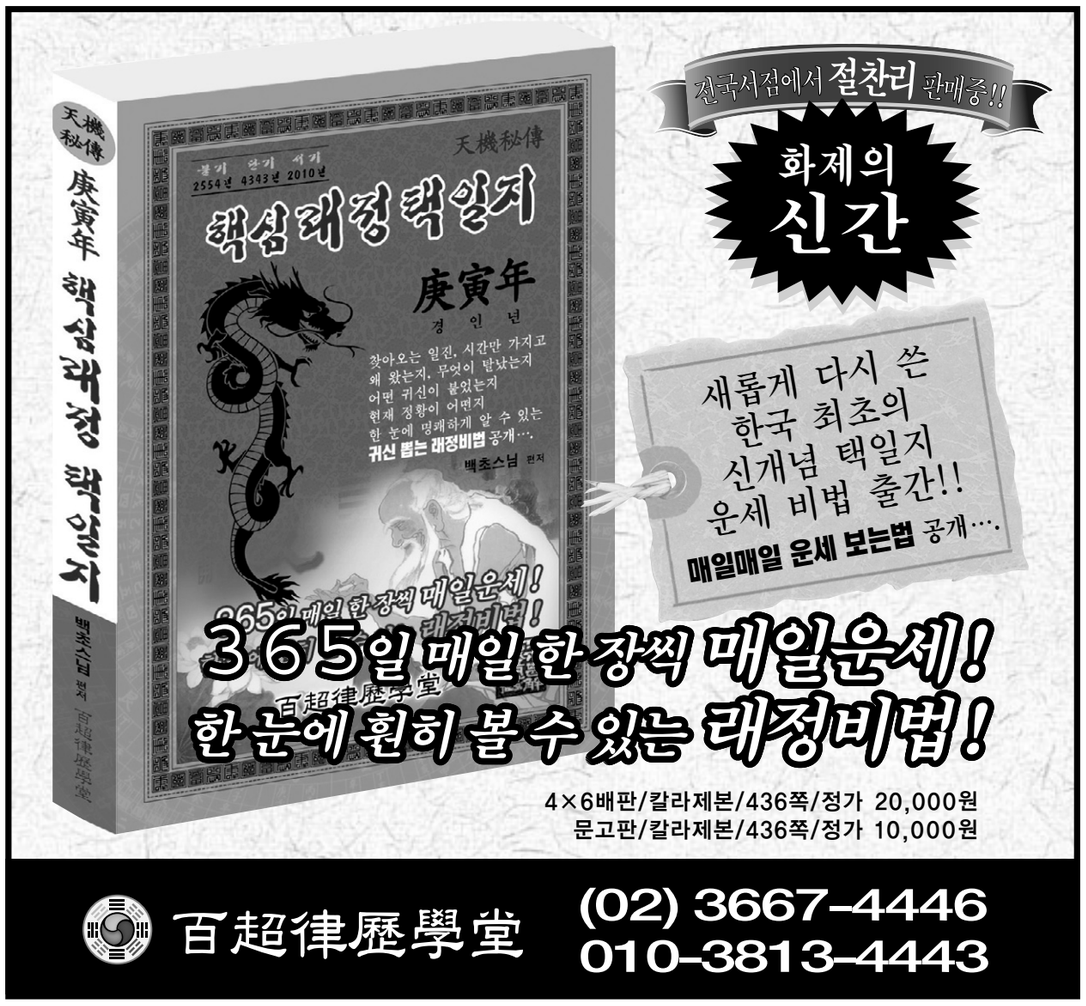
십선은 살생하지 않고 방생을 행하며,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보시를 행하며, 사음을 하지 않고 윤리 도덕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행하며,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비의 말을 행하며,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행하며, 악담하는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행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마음을 쓰며, 성내지 않고 미소 띤 마음을 행하며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마음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세 가지 무거운 갈래라 하는가. 이를테면 삼독의 마음으로 오로지 나쁜 업만 짓는 것입니다.

나쁜 업을 짓는다는 것은 남을 속이는 일, 살생하는 일, 술을 파는 일 등이 나쁜 업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남에게 술을 팔아서 나쁜 일에 연루가 된다면 간접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부처님께서도 되도록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업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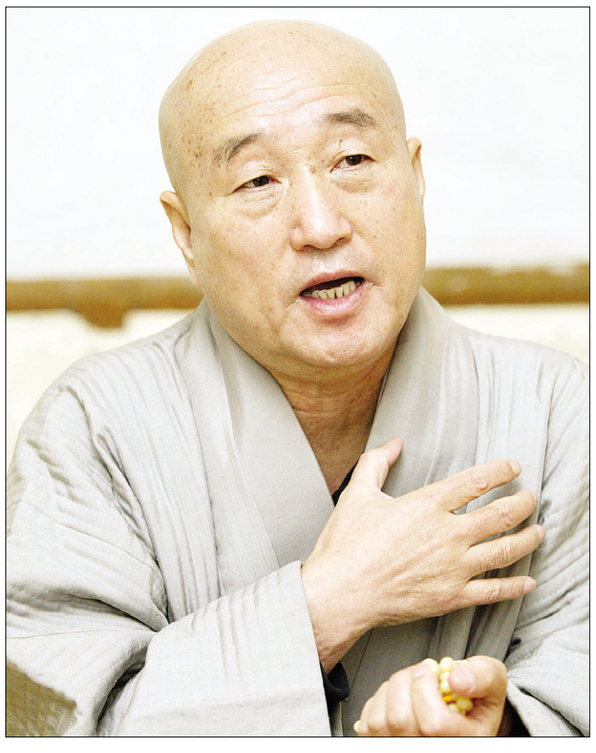
또, 탐욕의 업이 무거운 자는 아귀의 갈래에 떨어지고, 성내고 원망한 업이 무거운 자는 지옥갈래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의 업이 무거운 자는 축생의 갈래에 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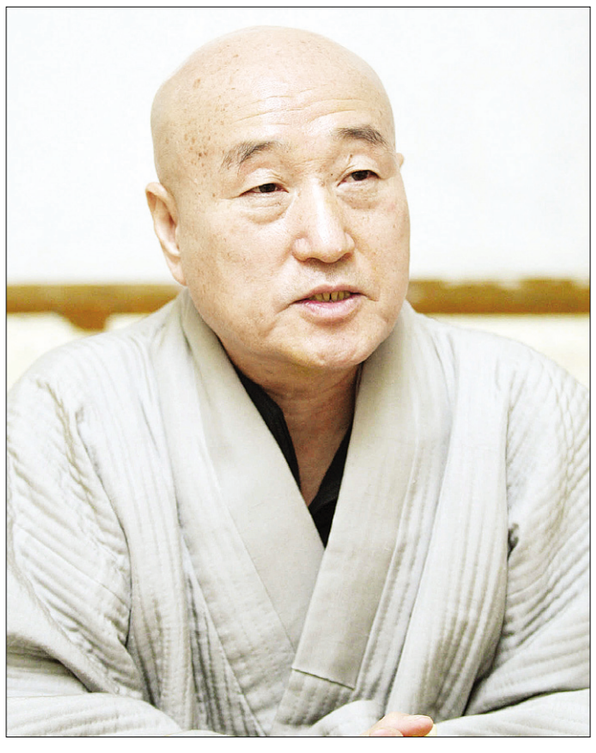
■ 청주 혜은사 주지











일면 스님은 ...

1947년 경북 영해 출생. 1959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명허 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5선 종회의원과 조계종 제3대 교육원장, 남양주 봉선사 주지, 광동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을 맡아 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다.

남양주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 일면

매일 되돌아보고 매일 처음처럼 사세요

바른 뜻으로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뤄져

장기기증 받아 새생명… 생명나눔실천본부 일궈

일면 스님은 바빴다. 조계종 군종교구장과 광동학원 이사장 소임을 내려놓았으니 요즘은 한가할 것이라는 나그네의 생각은 잘못이었다. 조계사 인근에서 일면 스님을 자주 뵈었다는 기억에 그 날도 서울 근처, 적어도 스님이 주석하시는 남양주 불암사에서는 뵐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뿔싸! 스님은 멀리 계셨다. 나그네가 일면 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은 부산을 향하는 길이었다. 큰스님을 나그네의 얕은 중생심으로 헤아린 과보일 게다. 일면 스님과 통화를 마친 나그네는 부리나케 먼 길을 달렸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는 참 빠르다. 천안을 지날 무렵 창밖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앞으로 사라졌다. 차들은 왜 나그네의 뒤가 아니라 앞으로 사라졌을까? 그렇다. 나그네는 역방향 좌석에 앉았다. 5% 요금할인을 받자고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앉은 것은 아니었다. 미리 여정을 챙기지 못하고 바삐 길을 나선 댓가였다.

문명이란 좋다. KTX가 아니었다면 나그네가 감히 일면 스님을 쫓아 부산을 내려갈 엄두나 냈을까? 또, 나그네의 가방 가득 담긴 핸드폰과 노트북, 티-로그인(휴대접속용 인터넷)이 없었다면 큰스님의 친견을 다음으로 기약했을지도 모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몸도 생각도 쉬었으면 좋았을텐데, 나그네는 그렇지 못했다. 밀린 일을 쌓아두고 길을 나선 이가 자신을 돌아보며 사색하기란 사치를 떠나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그네는 KTX 열차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노트북의 화면을 들여다봤다. 간간이 피로한 눈을 쉰다는 핑계로 창밖의 차들이 앞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즐기면서. 문명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 주지만, 그 댓가로 '나'를 잃은 것만은 분명하다.

사람 인(人)은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문자란다.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누가 그랬을지 따져보고 싶은 상황이 발생했다.

KTX 일반석의 팔걸이가 문제였다. 워드 작업을 하느라 노트북을 펼친 나그네에게는 활개치고 어깨를 펼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팔걸이에 팔을 걸쳐야 했다.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던 사내도 나그네와 같았다. 말없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집중해서 노트북을 두드리는데 툭 툭 건드리는 사내에게 짜증이 났다. 나그네가 극장 등에서 비슷한 경우를 겪었을 때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대개 팔걸이를 좌우가 아닌 상하로 나누어 쌍방이 말없이 눈치로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달랐다. 적당하게 상하를 나누어 양보할 만큼 해줬음에도 도발을 그치지 않았다.

"나는 일하는데, 한가로이 신문 보는 네가 좀 양보해라"라는 말을 사내에게 하지도 못했지만 할 필요도 없었다. 나그네와 사내, 둘 다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랑이를 했을까? 노트북 배터리가 줄어있는 양으로 봐서는 긴 시간이었는데 나그네는 아직도 일 하나를 끝내지 못했다.

대구역에서 사내는 내렸다. 사내가 내리고 나니 옆 빈자리도 나그네 차지가 될 수 있었다. 끌어안고 있던 가방을 놓을 수도 있었지만 놓지 않았다. 누군가 다시 와서 앉을 것 같아 빈자리를 빈대로 뒀다. 나그네는 그저 마음껏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돼 기뻤다.

사내가 사라지고 팔걸이도 차지했지만 나그네의 일은 좀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왜일까?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다. 불심도 깊었던 나무꾼은 오며 가며 <법화경>을 외우고 또 외웠다. 하지만 7권 중에 4권 이상은 외워지지 않았다. 나무꾼은 나무하느라 바쁘고, 장에 나가 나무를 파느라 시간이 없어 외워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무꾼은 스님이 되면 공부만 할 수 있겠다 싶어, 나머지 3권도 외우겠다며 출가했다. 하지만 나무꾼이었던 스님은 출가 후 20년이 되도록 <법화경>을 모두 외우지 못했다. 오히려 외우고 있던 4권 마저 모두 잊어 버렸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 생각해 보니 그렇다. 사내는 나그네가 일하는데 있어 마장이었다. 노트북을 펴고 일을 하겠다던 나그네의 초심은 사내와 실랑이를 하는 동안 일이 아니라 사내 탓, 팔걸이 탓으로 변해 있었다. 일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했지 주변 탓을 하며 마음을 빼앗길 것은 못됐다. 팔꿈치로 가르침을 줬던 사내에게 감사하고 나니 노트북 위에 얹은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인다.

그런데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제는 환경이고 마음이고 무엇도 탓할 게 못된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어물쩍 거리다 부산에 도착한 나그네는 노트북을 덮으며 "사람 몸 받고 태어나 사는 동안은 아무 탓도 말고 그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금강사(주지 혜성)에서 만난 일면 스님은 나그네의 다짐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온 선지식이다. 특히 스님은 그저 바른 뜻으로 열심히만 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스님은 전날 경주에서 불교계 각 종단지도자 모임인 백상회에 참석했다. 이튿날 제주도를 찾기에 앞서 스님은 한일불교교류협회 한국측 여성부 신년회에 참석하기위해 부산을 찾아 도반인 주지스님을 만나고 있었다.)

한때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선을 하며 입적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 군종교구장 시절에는 빗물이 새는 등 다 쓰러져 가는 군법당을 보고도 돈이 없어 안타까워 한 적도 있었다. 스님은 꺼져가는 한 생명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아 새 삶을 얻었고, 대중의 도움을 받아 반듯한 군법당을 척 척 지어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역시 스님의 뜻으로 일궈낸 결과였다.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낸 일면 스님의 뒤에는 은사인 명허 스님의 가르침이 있었다. 13세에 출가한 일면 스님은 가야산 해인사 선방수좌였던 은사스님을 시봉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일면 스님이 하루는 은사스님의 심부름으로 장을 보고 난 뒤였다. 일면 스님은 심부름으로 털신, 비누 등을 사고 100원이 남아 눈깔사탕을 사먹고 돌아왔다. 셈을 하던 은사스님이 "돈 100원이 맞지 않는다"며 묻자, 일면 스님은 "눈깔사탕을 사먹었다"고 말했다.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다. 은사스님은 "너 같이 시은을 가벼이 여기는 놈은 중노릇할 자격이 없다. 절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일면 스님은 빌고 또 빌었다. 두어 시간 무릎 꿇고 앉아있었더니 은사스님이 "3000배를 하고 오라"며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족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천수경 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 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 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포교가 내게는 대작불사



"다시는 시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했다.

또 하루는 일면 스님이 수건과 내의 등을 세탁하면서 마지막으로 헹군 물을 버리는데 은사스님이 혼을 냈다. 일면 스님이 "빨래하고 남은 물 버리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반문했더니, 은사스님은 "예끼 이놈아. 놔뒀다가 걸레 빨 때 쓰면 되지 않느냐"고 꾸짖었다.

일면 스님이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군대를 전역한 뒤 만학도로 동국대를 졸업한 뒤에 다시 해인사를 찾아 공양주 소임을 자청했다. "시은을 중히 여기라"는 은사스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절에서 대학공부까지 시켜준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

일면 스님은 눈썹까지 밀고 공양주 소임을 살았다. 남 몰래 대중스님들 신발도 닦은 것을 비롯해 묵언 속에 기도 정진을 병행하며 보은을 통한 구도의 길을 걸었다.

스님은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칠 큰 그릇이 되고 싶다"고 발원했다.

은사스님의 지도도 있었지만 일면 스님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은사스님이 "선방 가서 도인되거라"고 말하자, 일면 스님은 "스님, 저는 복지 · 행정의 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강원 시절, 총무원장이던 청담 스님이 종단분규를 겪던 끝에 "조계종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고 일면 스님은 생각했다. "청담 스님 같은 도인도 행정에는 별 수가 없구나. 종단에는 참선 등 수행으로 도가 트인 큰스님은 많아도 행정의 도인은 없는 것 같다."

1년에 16차례 입 · 퇴원을 할 정도로 간이 좋지 않았던 스님이 건강을 되찾은 것은 스님이 '선재'라 이름 붙인 한 뇌사자의 장기기증 덕분이었다. (장기기증자의 신상은 공여자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스님은 "간이식을 받은 그 날부터 새 삶을 살고 있다"며 "두 번 사는 인생에 몸을 아낄 마음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라"고 했던가. 스님이 삶의 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만난 새 세상은 깨달음의 세계에서의 그것과 같았다. 그 후 스님은 지금까지 복지 · 행정의 도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왔다.

군종교구장 시절 일면 스님은 총무원이 군종교구에 지원하는 금액의 10배인 25억을 화주했다. 분규 속에 무주공산이던 광동학원의 이사장을 맡아서는 18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광동고 등을 명문학교로 탈바꿈시켰다. 봉선사 주지 때는 사찰 재정을 공개해 신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끌어내고 사중 재정을 튼튼히 했다. 비좁은 사무실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스님이 이사장이 된 후 10억원에 이르는 사무실을 얻었다. 또,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회장 시절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동문회사무실도 갖췄다.

특히 군종교구장 시절, 일면 스님이 실무자들에게 "형식 · 위치를 따지지 말고 찾아주는 곳,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하고 실천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스님의 원력은 빗물이 흐르는 군막사에 자리한 군법당을 비롯해 개신교인이 사단장인 부대에까지 장엄한 군법당을 서게 했다.

일면 스님은 "바른 일, 해야 할 일을 사심 없이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저절로 이뤄졌다"며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을 시작하니 주위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날 불교의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주인공이고 싶어하고 주불(主佛)이 되고 싶어 하는 탓에 사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일이 어그러진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한때 총무원장감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스님이기에 나그네의 얄궂은 질문이 갔다.

"스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과 지위는 없어도 남에게 덕망 받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덕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삶이지요."

지극히 세속적인 질문에 출가자다운 답이었다.

이어 일면 스님은 "큰 불사를 하다 보니 큰 덕이 부족한 것 같다"며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는 것이 내게는 대작불사"라고 말했다.

"성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차별 없이 모두 만나 불교의 상식을 전할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면 스님에게 더 큰 능력을 구하는 바람은 있었지만 환경 탓은 없었다. 스님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에 구애받지 말고 평소에도 자기 소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품은 뜻을 감추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과는 상반된 말씀이었다.

일면 스님은 '회광반조(回光返照)'하는 삶을 강조했다. "회광반조를 나는 '항상 나를 돌이켜 본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추스르고 바른 뜻과 행동을 되새겨 봅니다."

이와 함께 스님이 강조하는 말은 '늘 처음처럼'이다.

"'늘 처음처럼' 살기 위해 발심해 출가할 당시를, 은사스님에게 꾸중 들으며 시봉하던 그 시절을, 해인사 공양주 소임 살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자 매 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암사 스님의 방에 걸려 있기도 한 이 말은 일면 스님이 '회광반조'와 함께 가슴에 품고 자신을 점검하는 경구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 불교의 밑거름이 되고 (주불이 아닌) 후불탱화가 되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면 스님은 달랐다. 지금까지의 치열했던 삶처럼 스님은 법문도 "~하라"는 가르침보다는 "~하겠다"는 말로 솔선하고 있었다.

마조 스님은 건강을 묻는 원주에게 "일면불(日面佛, 수명이 1800세)이기도 하고 월면불(月面佛, 수명이 하루 낮과 밤)이기도 하다"고 해 생사의 경계와 구별이 부질없음을 알렸다.

"(주불이 아닌) 후불탱화가 되겠다"는 일면 스님의 원력은 일면불(日面佛)이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0. 동산반야회 김재일 법사

덕산 김재일 법사는 한국 대중불교운동의 선구자다.

1949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20대 청년시절부터 조계사 청년회에서 활동했다.

1982년 무진장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동산반야회를 창립, 일반 불자들을 위한 혁명적인 교육에 앞장섰다.

1992년부터 개설한 동산불교대학에서는 처음에는 교리강좌로부터 시작했으나 장차 불교미술 · 한문 · 다도 · 장례의식 · 사찰음식 · 불교음악 · 무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불교센터로 발전했다.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염불만일회를 결성해 보고 듣는 자는 누구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포교했다.

특히 제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때부터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양원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30~40여 명씩 단체 예술공연을 교류해 왔으며, 어린이집 · 청소년 독서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불교복지사업에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세계기아난민돕기운동에 앞장서 인도와 네팔에 싯달학원과 능인중 · 고등학교가 설립돼 석가족들이 잊어버렸던 옛 조상의 얼을 되찾게했다. 대부분의 석가족들이 힌두교에 몰두하여 석가를 힌두신의 하나인 비쉬누신의 제8대 화신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호텔에 영어 · 일어 · 한국어로 된 불교성전을 수십만 권 보급하여 세계 각국에서 여행오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한 몸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 과로와 빈혈로 중병을 앓게 되어 수 년동안 고생하였지만, 열반의 그 날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포교했다.

특히 합창단의 노래, 예술단의 법고, 다도학과의 육법공양은 불교의식을 대중화 · 현대화하는데 일조를 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앞두고



대중불교운동의 선구자… 교리 · 문화 등 재가자 교육에 앞장

시가행진 할 때는 천태 · 진각종에 이어 조계종의 거수(巨樹)로써 눈길을 끌었다.

김재일 법사는 언제나 몸에는 헐렁한 한복을 입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입에서는 아미타불이 그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무심사 보광스님은 "서방의 일남자가 홀연히 출연하여 동방으로 왔다가 다시 백련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무진장 스님은 "이 시대의 보현행자요, 불보살의 화현"이라고 칭찬했다.

동산불교대학은 1982년 3개월 과정의 강좌를 개설하며 문을 열었다. 1987년 8월 학기 입학과정을 개설했으며, 1995년 미국 워싱턴과 LA에 분교를 설치했다.

현재 동산불교대학은 불교미술 · 불교한문학 · 다도학 · 불교장례문화학 · 사찰음식문화학 · 한글불교의식 강좌 등 전방위적인 불교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00여 명이 넘는 불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또 전국염불만일회는 현재 전국 10개 아미타불 성지에서 전국염불만일회 결사대회를 봉행하고 대아미타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염불정진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불교복지사업으로 성북구 장위동 어린이 집과 청소년 독서실 등도 운영하고 있어 불교복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김재일 법사의 열반 이후 지금은 그 정신을 안동일 법사가 그 지혜와 열정을 손색없이 계승해 가고 있으니, 동산불교대학은 한국 재가불자의 요람이 될 것이다.

중국의 5조 홍인 스님은 동산에서 법을 펴다가 6조 혜능을 만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반야불교를 혜능에게 전해 주었는데 한국의 동산 불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철저한 깨달음과 달마대사의 직지인심을 염불만일에 붙여 서울 한복판에서 전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통한 일이다.

특히 동산불교대학은 한국불교 신지식 친견도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양한 교과목에 여러분의 전문교수 · 스님 · 법사님들을 골고루 초청하여 친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그 정신이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서 혜일(慧日)처럼 밝아지고 달빛처럼 내외표리(內外表裏)가 없이 비쳐지기를 손모아 빈다.

먼 산에 가물 가물 등불을 보고

승속에 관계없이 법사가 되니

나한의 신통에 보살의 자비

천년 얼음이 한꺼번에 녹아나네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륜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 불자의 손길이 연이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전생의 묵은 빚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금강경을 법륜대에 각각 다른 숫자로 복장하여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특징
1. 대한민국 수제품으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부처님 한 분 한 분 1,080분의 명찰을 특수 투명 케이스에 넣어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경제 걱정없는 작은 천불전이 되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심용신안특허의기술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높 이 : 110cm
■원통폭 : 45cm
■밑받침폭 : 30cm
■무 게 : 25kg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32>

돈만을 물욕의 대상으로 경계할 필요 없어

초기 승단 돈=물욕… 교단운영 위해 기부금 활용 장려

불교가 경제에 대해 중도주의 즉, 물질적 복지를 결코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석존의 교단에서는 처음에는 승가에서 화폐(돈)를 갖는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스님이 탁발(托鉢)할 때, 현금 보시가 있어도 손으로 직접 받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초기 불교 당시 어쩌면, 돈은 물욕의 심벌로 이해되고 있었을 것이다. 돈이 물건과 물건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돈만을 새삼스레 물욕의 대상으로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돈에는 마력과도 같은 것이 있다. 예컨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처럼, 두 주발 째 쌀은 첫 번째 주발의 쌀보다 물욕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이 뒤떨어지는데 비해, 돈에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 사이에 매력의 우열이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돈에는 물건에 비해 쇠퇴하지 않는 마성(魔性)이 있다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석존에게 그만한 경제적 지식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화폐 부정관(不淨觀) 즉,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의식은 교단에서 점점 쇠퇴해 갔다. 그것은 화폐경제가 불교교단 안으로 흘러들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 후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가톨릭과 불교에서는 이자(利子)에 관한 취급이나 사고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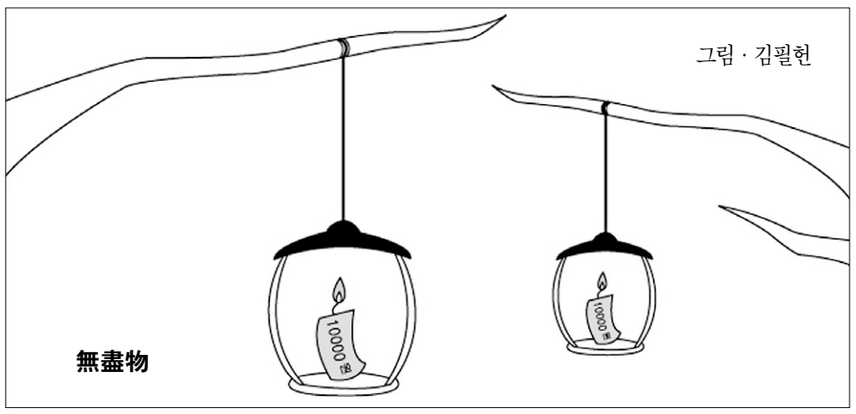
가톨릭교회의 강한 영향하에 있었던 중세까지의 서유럽에서는, 이자가 붙는 돈의 대차(貸借)행위는 금지되어 있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약점을 이용하여 이자를 징수한다. 그 때문에 빈부의 차가 가일층 심해진다는 소득격차 문제에 주목하여, 가톨릭은 이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불교에서는 이자로써 돈이 보다 커다란 기능을 하는 면에 주목해, 이자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교단에 기부된 돈은 승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했으나, 교단 운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토모마쯔(友松円諦)씨에 따르면, 승가를 위해서는 바로 금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말이 석존에게 있다고 한다.

이러한 승가교단의 운용기금에 '무진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무진(無盡)'은 <화엄경>의 중요 사상이다. 또 <유마경(維摩經)>에 있는 무진등(無盡燈)의 비유는 부처님 가르침이 중생교화를 통해 무한히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등불의 불꽃이 점화되어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묘사했다. 우리나라에서 한 때 돈놀이 하는 회사를 '무진회사'라 했고, 무진물(無盡物)이라는 돈의 이름도 그러한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에 '무진장법'이 제창되고, 당대에는 '무진장원'이 설치되어 그 기금의 이자를 사원의 건축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오늘날 중앙은행의 은행권(지폐)이 금융시장에 유통되기까지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1) 금(외화 등)이나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인다.
(2) 시중은행에 대출한다.
(3) 정부에 대출한다.

은행권의 유통방법이 적극적이면 시장에는 은행권이 증가한다. 거꾸로 그 유통방법이 소극적이면 시장에는 은행권이 감소하는 것이다. 통화의 유통방법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이 돈의 값 즉, 이자이다.

돈이란 것은 한국은행권(지폐) 외에 수표 등도 포함되며, 은행에 맡겨두고 있는 예금을 그대로 상대방의 계좌에 넣어주는 것으로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 등, 돈의 종류와 개념도 복잡해지고 있다.

돈이라 불리는 것의 총량은 항상 사회의 상품 총량에 대응한 수요 공급의 관계, 즉 돈(수요)으로 상품(공급)을 산다는 관계에 있다. 돈이 너무 많아지면 물건 값이 금세 오르고, 너무 적으면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밸런스가 무너져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게끔 은행권의 양과 이자의 높이(금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돈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이 인플레이션, 너무 떨어지는 것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은행에서 돈을 이미 빌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제인으로서는 물가가 오르는 편이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물건을 공장에 두는 것만으로도 물건 값이 올라 이익이 생긴다. 게다가 예컨대 빌린 돈이 1000만원이고 10%의 인플레가 있을 시 갚을 때에는 돈값이 10% 떨어져 있으므로 실제로 따져보면 900만원의 돈을 갚으면 되는 셈이다.

따라서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 부른다. 화폐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일시적으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자칫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 경제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폐가치의 추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화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최근 북한의 화폐 개혁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지배계층이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신흥 금융세력들을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화폐개혁으로 결국 그동안 축적한 자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교환 가능한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화폐의 가치저장기능 또한 크게 손상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불교경제학의 기초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된 셈이다. 자칫 이번의 화폐개혁이 북한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져 행여 중국 경제시스템으로의 편입이 가속화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한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㉜ Think Twice

허달의 불교와 코칭

뺄셈에서 얻어지는 한 가닥 지혜

지난 번 쓴 칼럼, '각주구검(刻舟求劍)'을 읽고 친구 하나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손지우손(損之又損: 덜어내고 또 덜어냄)' 운위했으니, 뺄셈 잘 해 덜어가며 늘그막의 인생 차분히 살다 가라는 이를 테면 핀잔 겸 덕담이었다. 그러고 보니 뺄셈에 대한 생각은 어제 오늘의 새로운 생각은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인 1989년 뱀의 해, 이제는 애 엄마가 된지 5년이 넘는 막내딸이 열두 살 되는 해부터라고 기억된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사보(社報) 편집자로부터 글 한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뺄셈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친구 시인의 시를 인용해 가며 잡문(雜文) 한 편을 썼던 것이 생각나서 꺼내어 읽어보고 아래에 소개한다.

"덧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이라곤/ 때묻은 문패와 해어진 옷가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중략)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김광규의 시 '뺄셈' 에서)

송년회를 겸한 시인의 출판기념회에서 돌아오면서 한 해를 보내며 그래도 한 줄 시를 얻은 친구에 대한 부러움이 희미한 질투인 것 같아 부끄러웠다. '열심으로 한 해를 살았노라고'는 하지만 부쩍 키가 크고 목소리가 다소 어른스러워진 삼 남매의 대견함 외에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인가. 세모가 어느새 깊어가고 내 뺄셈의 미학은 어렵기만 하다.

아주 오래된 일로 부장 초년생 때, 내가 주제넘게도 사내 여사원 모임의 초청연사가 되어 진땀 흘리던 때의 일이 기억난다. 무슨 말끝엔가 여사원 하나가 우리 집 가훈(家訓)이 무언가를 물었던지, 가훈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나이 들어 가훈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여봐란 듯이 거실 벽에 걸어야 한다면, 60년대 유행가 가사 제목을 하나 골라 써 붙이리라.

'Think Twice.'

부룩 벤튼의 그 감미로운 저음의 허스키를 60년대 AFKN을 통해 즐겨 듣던 팝뮤직 애호가들은 기억하겠지. 실은 연가(戀歌)였으나 가사의 내용은, 아무래도 좋아. 적어도 한번은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서서 더 생각해 보자. 조금 억울한 듯 하더라도 Think Twice. 집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하기로 한다면, 오! 개구쟁이를 징벌하기 전에 엄마여! Think Twice.

세월이 흘러서 내 나이도 이른바 중년, 이제는 가훈 한 줄을 멋지게 써 걸어야 할 때가 되었건만, 이 말씀은 아직도 공염불에 지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내가 준행(遵行)할 자신이 있어야지. 수범(垂範)의 어려움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만도 뺄셈에서 얻어지는 한 가닥 지혜라면 지나친 자위일까. 그러므로 새해에는 기필코 가훈 한 줄을 부끄럼 없이 써 붙여 보리라. 뱀의 해에 큰 구렁이 꿈을 꾸고 막내딸을 얻었었다. 덧셈 중이었으므로 주책이었고 욕심스러웠었지.

저녁에 키를 대보니 막내 머리가 어깨 위로 솟는다. 간난 아이가 열두 살이 되어 다시 맞는 뱀의 해에 가훈 한 줄을 기어코 얻어보리라는 소망이 이제 소박하고 미소로운가, 아니면 가당찮은 너무 큰 욕심인가.

위의 글을 쓴 뒤에도, 뺄셈을 계속하며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났지만 종래 'Think Twice'를 써서 가훈이랍시고 붙이지는 못하였다. 그 대신 다른 방편이 하나 생겼다. 한문 공부 좀 하고 서예를 배운답시고 1993년부터 어깨너머로 몇 년 붓 잡는 법을 배웠는데, 당시 알게 된 중국 서법사(書法師) 마광문(馬廣文)씨가 '신사(愼思)'라고 쓴 예서(隸書) 소품(小品)을 한 점 선물로 주었다. 내 나름의 감상으로는 생각 '사(思)' 자는 뛰어 도망가려는 마음의 모습을 표현한 듯 하고, 삼갈 '신(愼)'자는 창과 방패를 든 마음의 주인이 엉거주춤 이를 외면하고 선듯한 모양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데, 단지 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일 뿐 작자의 의도는 물어보지도, 물어볼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신사(愼思)'와 'Think Twice'. 뜻의 어울림이 그럴듯 하기에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지 오래 된다. 아이들은 '신사(愼思)'든 'Think Twice'든 아랑곳 없이 제 맘대로 커서 짝 지어 핵가족을 만들어 떠나갔고, 20년 역사도 넘는 가훈 써 붙이기 프로젝트의 창연한 이 흔적은 여러 차례의 전투와 같은 이사(移徙)를 무사히 살아남아, 아직도 아파트 거실 반닫이 위에 걸려 있다가, 오늘 코칭 공부를 하게 된 노년 주인공의 회상(回想) 주제가 되었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북한의 불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북한불교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가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 목차 |
1장 · 북한의 현존 사찰
2장 · 북한의 주요 사찰
3장 · 북한의 불교문화재
4장 · 북한불교의 이해
5장 · 북한의 사찰재산

◐저 자 : 장용철, 서유석 외 공저
◐사 양 : 4x6배변형판, 520쪽
◐가 격 : 50,000원
◐발행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문의 : 02-719-2606)
◐구입 문의 : 02-3672-7181

가깝고도 먼 한반도의 반쪽,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 북한에도 귀중한 불교문화의 으뜸 유산인 사찰은 오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배불정책과 한국전쟁의 풍난을 견디고 웅장한 모습을 간직해온 북한의 사찰!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다시 볼 수 없는 흑백사진과 새로 입수한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엮은
《북한의 사찰》에서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가침으로 여겨진 북한의 현재 불교 동향과 현황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구입 문의 : 02-3672-7181, 02-719-2606

한국의 명찰시리즈
한 권으로 읽는 전통사찰의 모든 것!

한국의 명찰시리즈는
불교 전문학술서가 아닙니다.
불자는 물론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사찰이라는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형태의 사지입니다.

사찰이 산중의 수행처만이 아니라 대중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 공간임을 우리나라 전통사찰 중 대표로 손꼽히는 명찰, 전등사 · 화엄사 · 월정사 편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전등사 1 숱한 외침에 맞섰던 최후의 보루지역 강화도, 전란의 한가운데서 호국사찰로서 면모를 유지해옴과 동시에 독창적인 각종 축제로 대중과 함께하는 오늘의 전등사를 만날 수 있다. | 저자 · 신대현, 신국판/172쪽/올컬러/18,000원 |

화엄사 2 6.25전란 중 폐허로 변한 주변 암자와 달리 화를 면하고 문화재의 박람회라 할 만큼 귀중한 문화재들을 보존해오고 있는 화엄사! 질곡의 역사를 간직한 채 각종 법회와 교육사업 등으로 대중 속에 파고드는 화엄사를 만날 수 있다. | 저자 · 신대현, 신국판/228쪽/올컬러/20,000원 |

월정사 3 오대산의 중심사찰로 개산조 자장율사에서부터 근대의 한암, 탄허스님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선지식들이 머물던 곳 월정사! 국보 팔각구층석탑 등 문화재에 대한 상세설명은 물론 '단기출가'로 유명한 현재의 모습과 각종 행사 등을 일목하게 소개하고 있다. | 저자 · 한상길, 신국판/232쪽/올컬러/20,000원 |



※ 한국의 명찰시리즈는 계속 발간됩니다.

발행 및 보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 02-719-2606

로봇, 붓다가 되다

서울 소마미술관서 3월 14일까지 '아이로봇, iRobot'展

단골 만화주인공인 '로봇'이 스크린을 나와 인간의 생활에 점차 참여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수 김장훈은 공연에서 로봇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중에게 '로봇'이란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는가 하면, 2004년에 개봉한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의 영화 '아이 로봇'은 로봇을 인간의 지배자로 표현하며,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로봇은 사람들의 상상에서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봇이 예술과 만나는 행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소마미술관(관장 이성순)은 로봇을 소재로 인간의 미래를 꿈꾸는 '아이로봇, i Robot'전을 개최했다.



백남준, 왕지원, 낸시랭, 백종기 등 16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로봇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 60여 점과 로봇유물 33점 등 모두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구성은 로봇의 역사, 인간이 꿈꾸는 로봇, 로봇이 꿈꾸는 인간, 인간과 로봇의 결합 등을 주제로 로봇을 통해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소개한다. 또한 인간의 상상력이 현대사회의 심리상태와 얽혀 로봇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게 기획됐다.

특히 왕지원(30) 작가는 미래의 로봇이 종교마저 갖게 될 것이라는 발칙한 상상력을 '붓다-Z 13'이라는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인도네시아의 대표 불교유적인 '보로부두르'(Borobudur Temple Compounds)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Angkor Wat) 사원처럼, 작가는 플라스틱 모형의 인물상을 설치해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플라스틱 인물상은 '미래의 인간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발상에서 출발해 '결국 인간은 사이보그(cyborg, 생물과 기계장치의 결합체)의 존재가 될 것'임을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다. 왕지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사이보그 기술을 통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현재의 인간이 아닌 유한한 육체를 초월한 그 무엇인가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그 사이보그는 인간의 몸과 사고를 닮는데서 그치지 않고 종교마저 갖는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작품 '붓다-Z 13'은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형상을 빌린 사이보그로 표현됐다. 이런 사이보그 형상의 표현은 왕 작가만의 과거와 미래의 인간 실존에 대한 진지한 물음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비디오아트의 거장 백남준과 구보타 시게코 등의 숨결을 감상하며, 미래의 한국 현대미술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 될 젊은 작가들의 독특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의 모습을 띄면서도, 인간의 콤플렉스를 뛰어넘은 로봇을 16명의 작가가 저마다의 색깔로 표현해내 관람객의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명지대 백성현 교수는 이번 '아이로봇, i Robot'전에 대해 "상상력은 모든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과 과학은 빠르게 교류하게 된다"며 "앞으로 로봇에게 예술은 엄마, 과학은 아빠 같은 존재로 인류와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관 책임 큐레이터인 박윤정씨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로봇들이 과연 기계적 인간인가, 아님 인간적 기계인가를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싶다"며 "작가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로봇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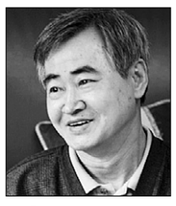
21세기 새로운 키워드로 앞으로 우리의 도반이 될지도 모르는 '로봇'.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을 '아이로봇, i Robot'전을 통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전시는 서울시 방이동 소마미술관 전관에서 3월 14일까지 열린다. (02)425-1077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왕지원 작가는 '붓다-Z 13' 작품을 통해 석가모니 형상을 한 사이보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흥길 이건청 김월준 임헌영씨

현대불교문인협·'불교문예' 제15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선정


윤흥길


이건청


김월준


임헌영

윤흥길 작가(소설부문) 이건청 시인(시 부문) 김월준 시인(시조부문) 임헌영 평론가(평론 부문)가 제15회 현대불교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는 최근 "제15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소설 부문에 윤흥길, 시 부문 이건청, 시조 부문 김월준, 평론 부문 임헌영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수상작은 윤흥길의 '소라단 가는 길', 이건청의 '움직이는 산' 외 4편, 김월준 '길에게 묻다' 외 4편, 임헌영 '법정 수필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이다.

이번 현대불교문학상 심사는 이근배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 김제현(시조시인, 前 경기대교수), 오세영(시인, 前 서울대교수), 김재홍(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권영민(문학평론가, 서울대교수), 최동호(문학평론가, 前 고려대학원장), 장영우(문학평론가, 동국대 교수), 홍성란(시조시인, 성균대 강사), 박수완(시인, 현대불교문인협회장), 문혜관(시인, 불교문학 포교원장), 공광규(시인, 불교문예 편집주간)가 맡았다.

1996년 첫 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은 5월 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데드마스크' 백남준을 만나자

봉은사 백남준 4주기 추모전 8일까지

불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두루 해온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故 백남준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봉은사(주지 명진)는 故 백남준의 4주기 추모제를 맞아 고인의 뜻과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추모제 기념 전시에는 '백남준의 데드 마스크(paik nam jun death mask)'와 '백남준 49재 퍼포먼스 피아노' 작품을 선보인다.

'백남준의 데드 마스크'는 1994년 뉴욕에서 고인의 친구인 하영진이 조각한 작품으로 백남준의 실물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띄고 있는 작품이다. 하영진은 백남준과 함께 스톰킹 아트센터의 야외 설치, 뉴욕과 파리 갤러리에서 다수의 작품을 함께 작업했다.

'백남준 49재 퍼포먼스 피아노'는 2006년 3월 18일 백남준 선생 49재 및 기념 퍼포먼스에서 수천 명이 함께 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백남준 스튜디오에서 보관 중이던 것을 백남준의 조카인 켄 백 하쿠다가 4주기 추모제를 맞아 봉은사에 기증했다.

이와 관련해 봉은사는 1월 29일 고인이 된 백남준 선생 4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 행사는 4주기 기일에 맞춰 불교식 천도재와 추모 이벤트로 진행됐고, 유족인 켄 백 하쿠다씨가 추모 이벤트를 통해 바이올린 퍼포먼스와 추모 연주를 선보였다.

봉은사는 2007년 4월 20일 백남준의 법적 대리인 켄 백 하쿠타 측과 '유해 안치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년 백남준의 추모제를 진행해 왔다.

평생을 동양과 서양, 과학과 예술을 조우하며 작품 활동에 일생을 바친 백남준 선생. 그의 숭고한 뜻과 정신이 깃든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녹아 있는 예술관과 불교를 느껴보자. 전시는 2월 8일까지 봉은사 법왕루.

이은정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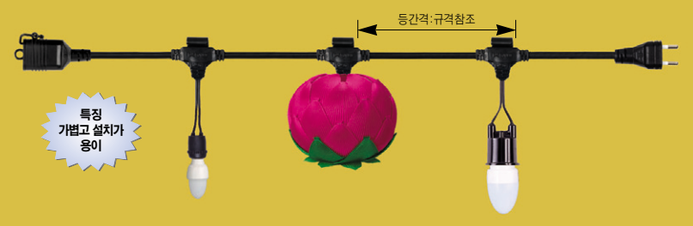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원터치 연등 회전걸이

불제제완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수행이란? 소박함 속 진실

청전 스님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스님.

붓다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과연 붓다가 있긴 한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품을 만한 이런 궁금증의 해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청전 스님(57)은 "붓다라는 존재는 결국 우리 주변에서 만난 모든 인연"이라고 말한다.

달라이 라마의 제자로서 23년째 북인도 다람살라에서 수행중인 청전 스님은 사람 내음 물씬 풍기는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라는 책을 들고 한국을 방문했다.

1972년 성직자의 길로서 첫 번째 출가. 1977년 송광사로 두 번째 출가. 1988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까지 그 간의 여정에서 만난 인연들을 이 한 권의 책에 담백하게 풀어냈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이 결국 이 세상의 희망임을 말해주고 싶었다"며 "수행이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님에게 수행이라는 것은 그리 무겁거나 거대한 존재가 아니다. 스님의 수행은 언제나 민중들을 붓다로 섬기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일 뿐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일이고, 소박함 속에서 묻어나는 진실인지를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일까. 한때 신부에서 스님의 삶을 택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청전 스님은 "나의 종교는 민중"이라고 답한다.

"수행이란 뭔가. 우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똑같이 먹고 자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을 꿈꾼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힘닿는 대로, 드러내지 않고 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생 쉼터, 여생터를 만들고 싶다."

스님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한국의 거사님이 내신 숙제인데 '달라이 라마의 온화한 미소를 배워오라는 것'이였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으로 오면 가장 낮은 사람들과 '인간의 집'을 만들어 종교간 화합을 위해 정진하는 성직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 청전 스님 지음 | 휴(休)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불교는 나의 희망이자 절망"

홍사성 원장 칼럼집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 출간



최근 나온 홍사성 유심아카데미 원장의 칼럼집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는 사랑하기에 미워하며, 절망하는 것은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역설의 강력한 증거이다.

저자는 불교신문 주필, 불교평론 주간, 불교TV 제작국장, 불교방송 상무 등을 역임했다. 30여 년을 불교언론에 종사하며 역동의 한국불교사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현하려는 한국불교를 사랑했고, 삶의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미워하고, 깊게 절망했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 첫 문장을 "불교는 나의 사랑이자 미움이다. 희망이자 절망이다"고 썼다.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 한국불교가 건강한 정법으로 바로세워져야 한다는 깊고 올곧은 염원 때문에 앞으로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희망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만의 표현이다.

"기복주의나 주술주의는 바라문교나 기독교와 같은 외도의 교리체계에 부합되는 신앙이다. 불교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믿음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부처님이였다. 그런데 지금 한국불교는 그 기복과 주술을 종교 행위의 전부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깨달음을 지향하는 종교'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인지, 불교라는 이름의 외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안타까운 것은 그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도불교가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도불교가 남긴 교훈

칼럼집의 제목을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라며 진부하지만 큰 울림을 주도록 붙인 이유를 알겠다.

한국불교의 여러 행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언제부턴가 익숙해져서 정법인 양 행세해왔다. 불자들이 종교적 귀의심을 표시하는 최고의 행위인 불공(佛供)마저 복을 비는 가장 비불교적 의식으로 전락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불공은 부처님께 음식이나 꽃, 향과 같은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이다. 부처님 당시 재가불자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린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비한 마음으로 공덕을 짓기 위해서였다. 또 하나는 존경과 귀의를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불공이 의식화되면서 집전하는 사람이 생겼으며, 의식은 집전자에 의해 독점되었고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그리하여 불공은 처음의 뜻과는 달리 비불교적 종교의식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부처님은 팔자에도 없는 복(福) 장사꾼이 되고, 불교는 기복종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저자는 '스님은 사제가 아니다' '또 하나의 면죄부, 생전예수재' 등의 글을 통해 한국불교의 비불교성을 통렬히 후려친다. 그리고는 역사적 굴절과 변화를 거치기 이전의 초기불교에 주목할 것과 수행불교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수행불교란 정법에 근거한 명상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 즉 열반의 성취를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종교적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지만, 흘러야 할 물이 흐름을 멈추는 그 때부터 썩기 시작하듯 독을 내뿜는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있지 않고서는 '불교라는 이름의 외도' 노릇만 지속할 뿐이다.

정법 천하를 기다리며

홍사성 지음 | 우리출판사 | 1만2000원

정성운 기자 woon1653@hanmail.net

쉽게 '원효'를 이해하다



힘이 부족하면 배를 빌려 저 언덕에 이르라

박상주 지음
한국학술정보(주)
1만6000원

"간밤에 목이 타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도 달더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달디 달던 그 물이 해골에 괸 물이었으니…."

원효의 내면과 그 속에 담긴 더 깊숙한 면모를 알아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원효 사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책은 원효의 심원을 탐독하기 위한 저자의 노력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원효의 원문과 함께 해설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우며, 뜬구름 잡는 해석과 지나친 학술용어를 피해 원효의 말을 보다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게 정리했다.

저자는 "상극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원효의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한 화쟁사상만이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러한 변화가 인류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눈과 귀로 원효의 수행이 깃든 문장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불심에 다가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며 "이 책은 여러 도반들의 홀로 가는 길에 한 모금의 청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이은정 기자

"얘들아, 절은 무서운 곳이 아니야"

박상용씨 '절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 펴내



어린 시절 소풍과 수학여행의 단골코스를 꼽으라면 단연 사찰이 빠질 수 없다. 그만큼 사찰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잘 대변해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일주문이나 사천왕문을 지날 때쯤 낯설지 않은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올 때가 있다. 바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신음과 비명소리다.

나무로 된 건물, 무서운 그림, 돌로 만든 조각품, 번쩍거리는 불상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불교문화재를 본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는 애교로 넘겨줘야만 했다.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를 잦아들게 해줄 책이 출간됐다.

<절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는 어려운 말로 쓰인 문화재 안내문이 아닌 사찰 건물과 불교조각, 회화 등을 어린아이와 일반 어른들까지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돼 있다. 특히 불교와 불교 문화재들을 역사와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 교양으로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어 보다 유익하다.

이 책의 저자 박상용은 "8년 동안 문화유산 해설사와 체험학습 선생님의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편안한 말투로 절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절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는 사찰 구조를 학교에 비유하고, <도자기>의 작가 호연의 유머러스한 그림들로 꾸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준다.

마법주문서 같은 안내책이 아닌, 쉽게 씌여진 <절에서 만나는 우리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는 눈을 한 눈금 높일 수 있다.

절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 | 박상용 지음 · 호연 그림 | 낮은산 | 1만1000원

이은정 기자

'참 나' 이렇게 찾으세요

진각 스님이 제안하는 '탐진치' 제거법



모든 수행자에게 탐진치는 수행의 기본이다. 진각 스님은 <탐진치>를 펴내 현대사회에서 탐진치를 제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탐진치는 중생들이 가장 멀리하고 버려야할 '독'같은 존재지만, 이 세 가지를 버리는 방법은 그저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진각 스님은 <탐진치>를 통해 이 평범한 이야기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큰 울림을 선사한다고 말한다. 평범한 찰나의 순간으로 '참 나'를 다듬어 가는 기본공부에 좋은 교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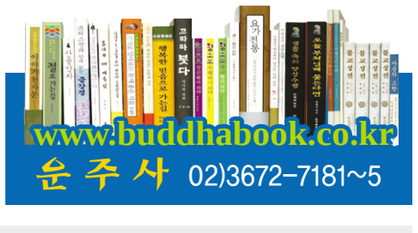
탐진치 | 진각 스님 지음 | 참글세상 | 1만1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매일경제신문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4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	금강	불광출판사
6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7	열두 달 절집 밥상	대안	웅진리빙하우스
8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9	사는 즐거움	보경	뜰
10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쑥뜸과 지압을 간편하게

신개념

쑥뜸 지압봉 (특허 및 디자인 출원)

황동재질의 금도금 수제명품! 뜸 자국, 화상 걱정 없는...





■구성
쑥뜸 지압봉(16.5cm)
휴대용쑥(2개입) +
쑥뜸 목 + 쑥(30개입)
쑥 - 추가 별도구매 가능

이런 분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행 정진할 때 또는 경전 읽을 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있으신 분.
- 노안이 시작되었거나 진행중이신 분.
- 시력저하로 고민이신 분.
- 손발이 차신 분.
- 코가 자주 막혀 고생하시는 분


쑥뜸목



쑥(30개입)

쑥뜸지압봉은 휴대가 간편하여 여행이나 출장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 14001인증업체
다우정밀 서울시 중구 입정동 168-1
구입문의 02)2263-6853 / 011-348-6853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베트남=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계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생활능력 있는분
불교가족 선남 선여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여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세상은 객지… 나한테는 죽는 것이 수지맞는 일이지”




그림 – 최문정

혜암의 법문 중에서 가장 빼어난 법문은 대적광전 법상에 올라 앉아 당당하게 터뜨리는 상당법어였다. 그런데 혜암은 법어 원고를 상좌에게 맡기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법어 원고를 상좌에게 보여주는 일은 더러 있었으나 상좌는 단 한 자 한 줄도 손을 대지 못했다. 단 한자라도 수정했다가는 불벼락이 떨어졌다. 혜암을 15년 동안 시봉했던 각안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스님의 법문이나 어록을 보면 지금도 스님을 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문장 한 줄 글자 한자에 스님의 법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법문 원고를 절대로 상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체험하고 확신한 것만 법문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법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살림살이만 오롯하게 드러내신 분이 우리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수행자를 상대로 말하는 상당법어는 자신의 수행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문이므로 아무라도 법상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해인사 대적광전의 법상은 성철이 백일법문을 한 뒤로부터는 그 위상이 준엄하고 확고했다.

혜암이 상당법어를 하는 날의 대적광전은 긴장감마저 돌았다. 스님들이 법당 안에 빼곡히 들어 차 앉았으나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은 것처럼 숨소리 한 점 들리지 않았다. 비로자나불 아래 앉은 혜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형형했다. 법당 안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혜암이 내리치는 세 번의 주장자 소리였다.

<내가 나의 물건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남이 내 물건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으나 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 없는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법문하여도 글자나 말만 다를 뿐, 이것밖에는 다른 법문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주 스님께서 남전 스님에게 물으시되, 무엇이 도(道)입니까. 하니, 남전 스님께서 이르시되 ‘평상심(平常心)이 도(道)니라’ 하였습니다.

혜암은 스스로 체험하고 확신한 것만을 법문
상당법어는 아무라도 법상에 오르지 못해
내생을 준비하는 듯한 말을 대중에게 발설

조주 스님께서 물으시되 ‘도리어 긍정하십니까, 아니하십니까?’ 하니, 남전 스님께서 이르시되 ‘마음으로 헤아린즉 법을 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물으시되 ‘헤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도를 알 수 있습니까’ 하니, 남전 스님께서 이르시되 ‘도는 아는 데도 속하지 아니하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는 것은 망령된 깨달음이요, 알지 못하는 것은 무기(無記)니라. 만약 참으로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도를 통달하면, 비유하건대 마치 태허공(太虛空)과 같아서 확연히 탁 트이리니 어찌 가히 굳이 옳다 그르다 하리오’ 하였습니다.

이에 조주 스님께서 언하(言下)에 몰록 깨달으셨습니다.

무문 스님께서 평가하시어 가로되,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어서 바로 불 속에 얼음 녹듯이 깨달았으나 아직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고, ‘조주 스님이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시 30년을 참구하여야 비로소 옳다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왜 그렇게 말하셨겠습니까.

단도직입이라야 합니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고 말하였을 때 바로 즉시 깨달아 버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깨닫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깨달음으로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30년을 더 닦아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봄에는 온갖 꽃이 피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뜨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네.
만약 쓸 데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면
문득 이 사람이 인간 세상의 좋은 시절을 만난 것이니라.

산승이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에 들었을 때 일입니다. 모 비구니스님이 대중공양을 올린 후 본인이 직접 법문 할 수 있도록 전강 조실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신도님 전에서 법문하는데 산승이 듣자하니, ‘평상심이 도’라는 법을 편견에 따른 분별심으로 집착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견성한 분상에서는 과실이 없지마는 범부의 입장에서 말하면 자연외도라고 합니다. 언어도단이나 불가피하게 말하자면,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사(取捨)가 없고 단상(斷想)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니, 진실하게 정진하여야 합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니 영리한 사람이 언하에 알면 바로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천진면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생(無生)의 묘한 이치(깨달음)를 알지 못하니 어찌 능히 생사윤회의 고를 벗어나겠습니까.

그 원인은 일체중생이 자기의 본래 근원된 자성을 매각하여 무명육식(無明六識)을 반연하여 생각을 삼아 곧 진로심(塵勞心, 분별망상)에 얽혀서 업을 지어 고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평상심이 아닌 것입니다.

곧 뒤바뀐 생각의 습성 업력이니,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잘 살피고 살핍시다. 불가피하게 말하자면 대지가 본래 일이 없거늘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배움을 끊은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할 것도 없고 진(眞)을 구할 것도 없는지라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는 것을 어찌 하필이면 마음 밖을 향하여 도를 구한단 말입니까.

산승이 하동 칠불암에서 안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쌍계사 수계산림(受戒山林)에 증사(證師)로 갔더니 강진 백련사 선원대중이 비구수계를 하기 위해 와서 말하기를, “모 선사님에게서 ‘선답(禪答)을 받지 못하면 입사(入寺)를 금한다(백련사로 다시 오지 말라)’는 엄명을 받아 왔습니다”고 하면서 봉투를 주었습니다.

개봉하니 백지 가운데 동백(冬柏) 일엽(一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좌들에게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입사하게 하여 주겠다’ 하고 일구를 써서 답했습니다.

‘설사 일엽(一葉)이라도 삼십방(三十棒)이요, 수연(雖然)이나 일엽이 시방춘(十方春)이라.’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그 후 재차 서신상으로 ‘여하시생사해탈(如何時生死解脫)입니까’라고 물어 와서, ‘이상불범(以上不犯)하리라’ 하고 생각하여 거량(擧量)을 거절하였습니다.

수도자는 진실이 제일이니 대오로 법칙으로 삼아 역시 정진하여야 합니다. 정진, 두 글자가 성불지모(成佛之母)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이름을 탐함은 쓸데없이 몸만 괴롭히는 것이고,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업장의 불 속에 마른 섶을 더 보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이름을 위하여 욕심을 내는 것을 고인이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러기는 하늘 멀리 날아갔으나 발자취는 모래 위에 남아 있고, 사람은 황천객으로 갔으나 아직 이름은 집에 있더라’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고인이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벌이 온갖 꽃에서 꿀을 따다가 가득 실은 후에 그 고생한 것도 아랑곳없이 누가 먼저 이 꿀을 먹는가’

그릇되게 몸을 괴롭히는 것은 얼음을 조각하여 예술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업장의 불 속에 마른 섶을 보탠다는 것은, 모든 물건이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것 같아도 욕심의 불을 더 치성하게 하는 재료가 될 뿐인 것입니다.

출가한 수도대중(修道大衆)은 재색(財色)을 가장 먼저 멀리 금하고 대중처소에서는 모름지기 입을 조심하며, 혼자 살면서는 번뇌망상의 도적을 막아야 합니다.

고명한 스승을 항상 모시고 섬기며 악한 벗은 같은 이불을 덮지 말 것이며, 말을 할 때는 마땅히 희론하여 웃지 말고, 잠자되 또한 마음 놓고 자지 말아야 합니다.

정법(活句)을 만나기는 바다에서 거북이가 나뭇조각에 오르는 것과 같고, 사람 몸 받기는 바다 속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회광반조(廻光返照)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라, 모든 것을 참지 아니하고 어찌 좋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려고 합니까. 뜻과 원은 높은 산과 같이 세우고 넓은 바다와 같이 아량을 베풀어서 구경(究竟)의 대각(大覺)을 이루는 데 기어이 뛰어올라 갑시다.

스승을 가리고 벗을 가려서 자세하고 묘하고 밝은 법을 깨달을 것이며, 앉아서는 반드시 활구를 참구하고 행할 때는 모름지기 간단없이 공부지어 가야 하며, 몸을 도와주는 데는 하루 한 때만 먹고, 잠은 밤 열두 시가 넘어서는 자지 말아야 합니다.

경전을 여의지 말고 외도의 서적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낙을 비록 즐겁다고 하나 죽음이라는 마군이 문득 괴롭혀 놀라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니, 우리 모두 본분사(本分事)를 논할지언정 어찌 헛된 이름을 숭상하겠습니까.

평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이
헛되이 머리 흰 노인이 되었도다.
팔만(八萬)의 장경만을 보아 진각(眞覺)을 구하고
모래를 쪄 밥을 만들려고 하는 망령된 공만 쌓았구나.>

혜암이 상당법어를 끝내고 법상에서 내려와 원당암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한 젊은 스님이 허둥지둥 뒤따르며 물었다.

“큰스님께서도 죽음이라는 마군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혜암의 상당법어를 듣는 순간 바로 외워버릴 정도로 귀를 기울였던 젊은 스님이었다. 스님의 물음에 혜암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세상이 객지 아닌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나한테는 죽는 것이 수지맞는 일이지.”

“법문하실 때는 죽음이란 마군 때문에 놀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야,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지. 오래 살아 좋을 일이 뭐 있겠나. 살아서 움직이는 내 사지육신이란 이미 송장이나 마찬가지야. 똥자루에 불과하지.”

스님이 말을 못하자, 혜암이 다시 말했다.

“이제 나는 나를 어느 정도 알지. 죽는다 해도 지금의 내 살림살이보다 나아지리라는 생각, 복과 지혜가 더 많아지리라는 확신이 들어. 죽은 뒤 살림살이가 보이는 거지. 마흔 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는데 두 배 가까이 살았으니 복이 넘치는 것이지.”

혜암은 입적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금생의 헌옷을 벗고 내생의 새 옷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말을 대중에게 아무렇지 않게 발설하곤 했다. 입적한 뒤에 이어지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낙관하고 있었으므로 죽음을 ‘수지맞는 일’이라고 표현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눈치 빠른 상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버팀목이 허물어지는 듯한 상실감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Dr. 황의 바른 자세 · 바른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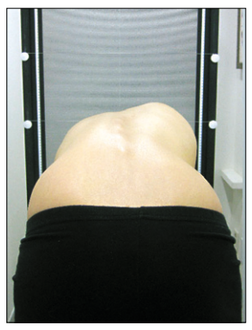
❹ 수술 요법과 비수술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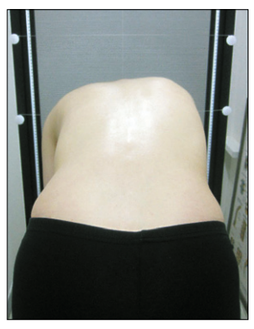
전조증상 가볍게 여기면 병 키운다

"너무 늦었습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병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한 질병이 초기에는 그 통증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왜 몸에서는 심각한 병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는 전조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몸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조증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호 인지의 중요성은 그 질병의 완치에 핵심입니다. 척추 이상이 생기는 조기 신호는 가벼운 근육통증과 가슴 답답함 등입니다. 심각하게 척추가 휘어지게 되면, 심폐기능에 장애가 와 호흡이 곤란해지며, 더 나아가 척추디스크가 심하게 파열 되면 좌골신경통과 동시에 중추신경 장애로 인한 하지마비의 증상으로 악화됩니다.


측만증 정상 상태.


측만증 중간 증상.


측만증 심각 증상.

척추 뼈가 휘어짐과 더불어 척추관절의 변형이 진행됩니다. 디스크의 돌출이 시작되더라도, 척추 뼈와 디스크 자체에는 신경이 없으므로, 중추신경이 눌리기 이전까지는 가벼운 근육통증으로 치부해 버리기 마련입이다.

그러므로 통증의 증상을 가볍게 느끼기라도 하는 그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심각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질병의 진행을 방치할 경우, 계속 악화돼 악성질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몸은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은 느끼고 · 생각하고 · 행동하게 만들며, 동시에 모든 인체의 장기와 신경 · 순환계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계통을 구분해 본다면 식물인간의 경우는 살아 있지만 중추신경은 역할을 못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심각한 질병을 알려주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각한 병에 대한 인지능력은 그 병의 진행에 대해 중추신경인 척추신경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추신경이 보내는 좋지 않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척추 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수술 실패시의 각종 후유증(재발 · 중추신경장애 · 사지마비 · 식물인간 등) 때문이겠지만, 필자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 몸의 척추수술에 대한 반응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 그 자체의 자연적인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는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 조건으로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한창 성장기의 학생마저도 화학적 · 유전자 변형식품과 서양식의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 영양분의 불균형한 섭취를 비롯한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골반과 척추가 휘어져, 심각한 척추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척추질환이 심각해졌을 때 행하는 수술은 해당 척추질환 부위를 마취한 후 화학적 약물과 도구를 통한 절개수술을 행하며, 수술 후 그 통증이 덜 느껴지는 경우 '수술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술 중 수많은 가닥의 중추신경을 인위적으로 절제해 수술부위 외에 반응하는 부작용으로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일단 한번 절개를 하게 되면, 수술부위는 완치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통증부위의 완화를 의미할 뿐이지, 몸 전체의 혈과 기의 흐름에 장애가 온다는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도저히 수술이 아니면 안 되는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작은 수술 하나를 받고 나서도, 크고 작은 감각의 이상을 반드시 겪기 마련이며, 심지어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몸의 중추신경의 통행로라고 할 수 있는 척추질환 관련 수술은 심각한 고민 후 결정해야만 합니다.

정작 척추가 망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생활자세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병의 재발은 필연으로 결정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발병 초기에 재빨리 신호를 인지해 체형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밝힌 전조증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은 척추 측만증의 초기와 중기 그리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말기 측만증의 예시입니다.

가족끼리 위의 자세를 취해 본 후 자신의 허리 상태를 확인하여 보셔서 나의 건강 신호등의 색은 어떤 색인가 진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PnP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❹ 맨몸 기술

스승의 지도 없는 수련은 오히려 독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술하면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대함과 다양성은 세계 어떠한 나라도 따라오기 힘듭니다.

원시적인 전투무술에서 발전해 체계적인 권법형태로 발전한 데에는 불교가 거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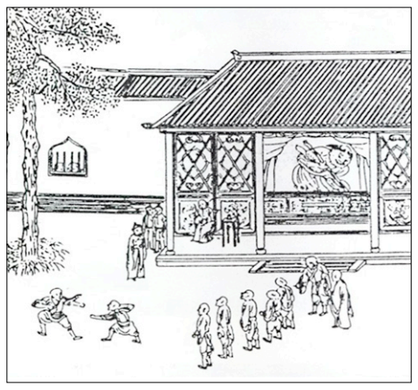
일반적인 문파무술은 대부분 도교적 성향을 띄고 있어, 비밀히 전수되는 그 특성상 대중적이지 않고 그 맥이 대부분 끊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술과 이러한 방법만이 있었다' 라는 역사 아래 무술영화에서나 도저히 그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날아다니는 사람과 전혀 흉내도 낼 수 없는 현란한 동작만이 재구성되어 보여 지고 있습니다.

옛부터 문파무술은 구전심수(口傳心授)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구전심수란 곧 현장에서 스승이 말로 지도해주고 손으로 잡아주고, 제자는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 몸으로 체득해 마음으로 깨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상세한 무술서적을 가지고 독학을 한다고 한들 제대로 무술수련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소위 책에만 의존한다면 이는 무술 수련이 아닌 그저 체조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릇된 자세로 수련하면 할수록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의 지도 없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승, 즉 모방할 대상이 있고 또 지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데, 몰래 훔쳐 배운다는 것은 초보적인 외공권의 경우 가능하겠지만 내공권의 경우는 전혀 불가능하며, 이러한 비기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전수하였기에 지금 그 맥이 거의 사라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교적 문파의 개념을 떠나 크게 성행한 무예는, 무술을 불교와 친숙하게 만든 소림무술이며, 이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 소림사.

무술이라는 것은 맨몸으로만 하는 것을 일컫지는 않습니다. 무기와 맨몸 기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무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장병(長兵, 긴 무기), 2.단병(短兵, 짧은 무기) 3. 암기(暗器, 숨길 수 있는 무기), 4. 좌조기(左助器, 다른 무기와 병행하는 무기).

맨몸으로 하는 권법은 여러 가지 복합체이므로 그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3가지로 나뉩니다.

1. **솔각**(摔角) : 쓸어버린다는 표현인데, 이는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 성행한 기술인데, 솔각의 다른 명칭은 '각저'라고 불립니다. 동양권이 아니라도 세계 곳곳에 씨름 형태의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씨름 형태의 게임의 발전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을 넘어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솔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각의 비슷한 유형이 유도 선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술을 잘 모르는 이들은 '넘어뜨리고 그 다음엔 어쩌려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는 조금만 아는 이들의 어리석은 편견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넘어뜨리는 곳이 체육관의 매트 위가 아닌 돌밭이나 모서리가 삐죽 튀어나온 말뚝 위면 어떻게 될까요?

2. **금나**(擒拿) : 손기술로 상대를 꺾거나 제압하는 방법으로 보통 유술이라 칭하며, 합기도 체육관의 호신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적인 방법으로는 맹수의 손톱으로 노획물을 잡듯이 상대를 잡아채어 제압하는데 쓰이며, 2차적으로는 근육 · 관절 · 신경 · 급소를 움켜쥐는 비교적 강력한 살상력을 동반하는 무서운 수입니다. 이는 보통 동물의 발톱에서 그 유래를 얻었는데, 비겁하다고 해서 암수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3. **권법**(拳法) : 권법은 보통 내가권과 외가권으로 나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볼 때 이 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가권을 오랜 동안 수련한 사람이 내공이 하나도 안 쌓일 리가 없으며, 반대로 내가권만 수련하여서 신체가 하나도 단련되어 있지 않다면 정작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권법에 있어 대련은 상대와 부딪침이 있어야 하기에 유리 같은 몸으로 강철 같은 이를 대적하는 데는 내공이 암만 많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❹

꾸준한 괄사로 탈모 막는다

우리 몸의 머리카락이나 털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성장이 정지되고 휴지기에 들어가서 탈모하여 다시 나는 일을 되풀이 한다. 이것을 털의 성장주기라고 한다.

눈썹, 속눈썹, 솜털 등은 성장주기가 6개월 이하인데, 털 중에서도 머리카락은 성장주기가 6~7년 이상 될 만큼 길고 휴지기는 2~3개월이다.

여기서는 머리카락에 대한 탈모만 말하겠다.

머리카락은 한 개마다 독립된 성장주기를 가지고 있다.

휴지기에 들어간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고 색깔도 퇴색 상태이다. 성인 머리카락의 2~5%가 휴지기 머리카락인데 모근이 약해서 머리 감을 때나 빗질할 때 잘 빠진다.

탈모의 또 다른 원인은 고열의 질환이나 심한 스트레스, 임신 등에 의하여 성장기 머리카락이 갑자기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검잡을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심하면 탈모가 된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나는 것보다 빠지는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흰머리가 생겼다고 흰머리를 자꾸 뽑아 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두피가 훤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40대부터는 모든 인체 건강능력이 저하되는 시기로 접어든다.


탈모를 예방하는 두피 괄사법.

자신의 건강능력 향상에 신경을 써서 건강을 관리하면 70, 80세가 돼도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탈모는 2개월만 열심히 괄사해도 발모 현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1)괄사법

〈전신 괄사〉
주 3회 120분 전신을 꼼꼼히 괄사한다.

〈부분 괄사〉
1. 괄사유는 바르지 않는다.
2. 두피를 전발제에서 후발제까지 한번에 괄사한다.(70회~100회까지)
   남자는 정수리 왼쪽부터, 여자는 오른쪽부터 귀 뒤까지 괄사한다.(70회~100회)
3. 앞이마 쪽을 향하여 45도 각도로 괄사한다.
4. 머리 전체를 꼼꼼히 한다.
5. 탈모 부위는 괄사 횟수를 더 많이 해도 좋다.
6. 귀쪽과 뒷머리 아래쪽을 꼼꼼히 한다.
7. 액와(겨들랑이) 있는 쪽에서 양팔 안쪽을 괄사한다.
8. 매일 부분 괄사와 얼굴 괄사를 아침저녁 2회 15분~20분 정도씩 한다.

(2)괄사판
1. 달오름, 2. 학여울, 3. 해오름, 4. 미모사, 5. 보라매소, 6. 보라매대, 7. 보라매특대.

(3)유의사항
1. 모든 괄사시술법을 마친 뒤 40℃~50℃ 더운물을 120ml 이상을 마셔야 한다.
2. 샤워한 후 괄사를 바로 하는 것이 좋고, 괄사를 마치고 샤워할 때는 3~4시간 후에 해야한다.
3. 공복에는 괄사하지 않는다.(최소한 식후 30분이나 식전 30분에 괄사한다)
4. 임산부나 생리 중인 여성은 복부와 허리, 둔부 부위는 손으로 쓰다듬기 한다.
5. 찜질방에서는 괄사를 안 하는 것이 좋다.
6. 처음 괄사를 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시술하는 것이 좋다. (02)557-1628~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지도함.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사주와 영가를 배움)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051)333-3258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역학특별지도
1. 실천2주, 특수속성반
2. 귀신쫍는 비법
3. 내화역수, 내정법, 고급 포태법
4. 특수비법 역학, 택일, 성명학, 궁합
5. 신내림, 신병, 상담한영
010-2484-5001 스님에 한해
031)943-8094 특별 할인혜택
출장지도 가능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행정사 (서울, 경기)
010-6569-1010

역학 속성지도 30년
자격, 교수 법납
역학 10년이상 기타
인연보살, 종단 최고어른
20~30억
재력가능 회수 확실
02)907-5858
010-2693-7712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대형면허 有
▷숙식도 가능함
010-2930-1596

달마 그리실
스님 모십니다
숙식 가능하신 분
(月 유동인구 약 10만명)
대구 팔공산 약사암
053)851-1080

동양 철학 배우실 분
명리학 성명학 주역 (육효)
배울 곳 : 경북 구미
숙식제공 가능
054)972-9872
010-6208-5555
원장스님 직접 강의

수강생 모집
철학반, 승도반,
무속반, 치유반
도건불교대학
042)526-1123
010-3452-1123

불교사업으로 특별한 것
1. 경리사원 1명
2. 특수한 불교사업 (20세-50세까지)
02)2233-2050
010-3094-7774

비구니 스님
(총무)
구합니다
▷부산 북구
010-2475-106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748-3004

비 구 니
스 님
모십니다
011-9782-3216

비구니 지장
기도 스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3871-3000

공양주 구함
▷경험자 우대
▷65세 이하
011-9707-3490

공양주 구함
▷불심과 신심있는 분 원합니다
▷(50-60세) 숙식 가능하신 분
010-9269-8445
031)535-1009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비구니 스님이 계신
사찰로써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중반 환영, 숙식 제공)
울산시 북구 연지암
052)298-9911
010-4030-8188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불교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 종교학 (불교문화 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 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 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전남 사찰에서
노보살님 모시면서
무료 수양하실
분이나 철학하시는
보살님 모십니다.
011-842-2531

수행기도 · 영험도량
잠시, 한,두달 쉬실 분
지장경 대학 공부 장수
참나 깨치실 분 천도
1,3주 금,토,일 실참지도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秘 法 강 의
'초종파! 비구, 비구니여, "본 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치유(최면), 관상, 수상 보는 법, 신병 잡는 法, 숫자함의.
제2강 : 氣치료, 카이로, 레이키, 천문열림, 업보 격국풀이,
제3강 : 약손, 7일 道人비결법, 정골요법, 일침요법, 정신치료, 육체치료
(견비, 허리, 무릎통처방, 중풍, 정신병)
*침, 특수활용법(한의학박사 특별강의)
강의시간 : 매월 매주 화요일~수요일 10시~16시까지 (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070-8861-3359 010-9166-6986 회장 핸드폰 010-9027-3117 스님
- 좋은 인연 되소서 -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문의 ☎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세속 나이 60, 법납 40년
개인사찰 주지나
부전자리 찾습니다.
천일기도 할 자리도 좋습니다.
019-590-355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뉴욕, 갑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0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자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테이프 13개와 교재대 포함 15만원)
녹음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작명서들이 한결같이 수리와 오행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와 오행이라면 똑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이름은 수리와 오행뿐만 아니라 주역(周易)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을 몰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82쪽, 정가 : 30,000원)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2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과정 ◆
■ 실기교육 : 홍은사 주지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법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개 강 일 : 양, 3월 2일 화요일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 금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청량사
● 법 명 : 호산 (심환기)
● 주 소 : 부산 금정구 구서 2동 230-1번지
위 사찰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1억 7천

- 위치 : 전남 함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외 3동
- 부지 : 340(보1,000)
- 가액 : 1억 5천(급양도가)

- 위치 : 경북
- 법당 : 50평
- 요사 : 30평외 4
- 부지 : 2,000평
- 가액 : 17억(불사추정액 50억이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4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1천

- 위치 : 경기광주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5천

- 위치 : 충남
- 부지 : 2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바닷가 근처 아름다운 절

- 총부지 : 5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바다전망, 남향, 뒤편 산자락
- 마당 넓은 절
- 가액 : 6억 5천

부산 바닷가 전망 좋은 사찰

- 총부지 : 370평
- 법당 (41년생), 요사(방3칸), 산신각, 용왕각
- 뒷산, 바다전망 최고, 평지, 주차장
- 도량 내 100년 된 소나무 다수
- 가액 : 3억 3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 부지 : 5,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 : 2동 120평
- 산신각: (목조, 닷집, 단청) 15평
- 기타 : 석불15자, 석탑, 종각, 석등
- 가액 : 11억
- 특징 : 주지스님 건강관계로 저렴하게 양도코저 함(35억 투자됨)

- 위치 : 충남 옥천 소재
- 부지 : 15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2층)
- 요사 : 35평(1층)
- 산신각 : 5평
- 가액: 4억원
- 가액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140평
- 가액: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660-538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금강공원 입구
- 평수: 75평(시설완벽)
- 3층 건물인데 엘레베이터有
- 시설비: 1억 5천 투자 됐는데 급해서 3500만에 정리 급 양도 (전세 및 달세 별도 있음)

010-2828-195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2분거리)
- 평수: 약 42평(2층)
- 구조: 법당 약 20평(삼존불 모셔있음)
- 방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녀화장실 (약 22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 평수 약 50평, 삼불, 소불 53위, 신중탱화, 종
- 방 5(큰방1, 작은방3, 공양간1)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9987-4100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 태화동 소재
- 평수 45평
- 시설 완벽
- 총가액: 3천 700만원

011-542-0982
010-6278-6508

사찰 · 실버타운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2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
- 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가액: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2,000원
- 절충가능

011-544-9777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안산 상업지역
- 평수 50평(현 법회중)
- 5층건물 중 2층
- 옥상 텃밭 30평
- 법당 단청, 최고급 인테리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54-8033

포교원안내

- 위치: 구미 북삼 사거리
- 평수 60평
- 현 법회중
- 3층 건물 중 2층
- 주차 시설 양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별도

054)972-9872
010-6208-55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 평수 : 약 14,000평 중 2000(대지)
- 시설 : 현재 법당 가건물 요사채, 화장실, 전기시설, 전화, 건축허가필
- 맑고 깨끗하고 조용함
- 가액: 4억 5천 (절충가)

010-3918-033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50만원
- 전월세 가능, 전세 1억원
- 23년째 운영중

010-2785-952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현재 법회 기도중
- 서부 정류장 지하철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70평
- 주차장 시설 완비
- 제반 시설및 모든 집기일체
- 스님 공찰임명 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시설비 절충

017-501-2438

단독건물사찰안내

- 위치: 대구 최중심지 (지하철역 근처)
- 건물(3개층) 및 주차장 옥상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시설(법당, 종무소, 황토방 등 최고)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상담후 조절가

010-6780-6271
053)428-1133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동읍 월잠리
- 대지 200평, 건평 80평
- 가액: 전세 5천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주지 건강상 급 안내

010-5040-7584

단양사찰안내

- 대지: 321평, 건평 50평
- 법당1, 방3, 욕실2, 주방 1, 공양간 1,
- 하천부지 사용가능
- 석불 1억 정도로 조성되어 있음
- 공기 맑고, 산세 수려
- 법당일체
- 몸만 들어오시면 되심
- 가액: 2억 1천만원(조정가능)

010-3130-552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다실별도1
- 2,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2억

017-572-3714
011-419-3714
051)556-9530(아난)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1억 5천만원

010-8675-4088

포교원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천안역전 앞
- 평수 50평, 현재 법회중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상담실 및 실방, 목욕탕,거실, 방2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일체 시설비 1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41)567-0391

대나무숲속고요한절

- 위치: 사천시 사천읍
- 평수: 611평
- 법당 18평, 굴법당 있음
- 요사채 큰 2동,
- 각 42평, 45평
- 가액: 4억

010-9798-1091
경주불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 보살) 신중, 산신
- 가액: 전세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488-8204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지하철 1분거리
- 3층 ,총 32평
- 방1, 공양간 1,법당
- 가액: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700만원
- 재래시장 버스 종점,
- 위치는 최상급
- 몸만 오실분

010-2204-837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가액 조정 안됨)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1호선 신이문역(도보5분)
- 2층: 약 40평, 법당, 방 1 공양간 (원불 300불)
- 특징 : 아주 편리 마당 약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8-293-70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삼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총 50평
- 3층건물 중 2층 전체
- 방2,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055)328-2509
019-549-3521

선 방 안 내

- 위치: 경남 통도사 내 보살선원 선방
- 방1칸, 욕실 1, 부엌1, 8평
- 가액: 2천만원

010-2512-369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723-1번지
-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산신각 6평
-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8천만원

010-5459-7292
043)855-52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동명1동 3층 건물에 2층
- 건평 : 33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0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법당및 시설일체 완비

010-6315-11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 전체면적 : 2,130평
- 건물 : 법당 포함 150평
- 특징 : 서종IC에서 약7분거리 계곡 접. 남향. 사정상 급 안내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031)775-1557
010-3555-221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중심지역
- 대지 90평, 건평 260평
-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지하1층(문화센터),1층(종무실) 2,3층(법당), 4층(요사채) 5층(삼성각)
- 가액 : 16억 5천만원

010-8853-38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 부지 : 임야 약 6,500평 전 약 1,200평
- 종교부지 : 약 38평
- 법당 : 24평, 삼성각 7.5평
- 요사채 : 24평 외 2동
- 가액 : 7억

010-2860-30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1동
- 유동인구 많은 대로변 시장옆
- 평수 : 40평, 법당 2층 35평 지층 공양간 40평,큰방2, 창고 2개
- 신중탱화, 후불탱화, 지장보살, 아미타, 관세음보살 영가단 등
- 최고급 시설 완벽,
- 시설비 없고, 보증금 3천만원 월 18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주방기구 일체지급

010-5462-6869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처음 시작하는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불자 가족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법당 방 1, 큰방2, 작은방 1,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 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사찰 전자제품 포함, 조경완벽)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참숯가마(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 평수 1208평 ● 건물 : 대지 392평
- 시설: 참 숯가마 7개, 폐수처리장(1억 3천 가설비 들었음)
- 지하수 350m이상에서 매일 100톤의양
- 식당 90평, 목욕탕 95평, ●기본숙소 방 5개, 120명수용가능
- 가액: 현 시세 22억을 18억 (모든시설포함) 급 양도. 절충가능,
- 현재 영업중이며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9735-3477
010-9418-59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망미역 1번출구 근처 2층
- 법당 50평
- 관음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창고, 다락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740-3754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 대지 : 110평, 건평 : 약 180평 ●건물 : 3층 건물 2개
- 개요 : 교통 좋고 위치 좋은 도심 아파트의 끝자락에 있으며, 앞은 산이고 뒤는 아파트 대단지이며 32평의 법당(최고시설)과 30평의 식당 종무소를 갖춘 아주 편리한 시설이 되어있는 단독 건물이며, 양도 금액은 3억 2천만원입니다.(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공간이 많음)
- 이유 : 3천여평의 대지위에 큰 사찰을 건립함에 따라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닿는 분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010-9892-886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안지랑이 우체국 골목 내)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보살, 신중탱화, 인등, 명부전, 법당 내 연등 250등
- 요사채, 방4개, 창고, 화장실, 욕실, 현대식주방2
- ※ 모든 비품집기일체,몸만 오시면 됨. 현재 매월 법회중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에 월2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3350-01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막리동
- 평수 : 31평, 4층건물 중 3층
- 시설 : 원목단, 동불, 삼존불, 공양간, 방2, 시설완벽,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500만원

019-9382-05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시내 시장부근
-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 각단탱화 일체
- 상담실 및 거실, 방2,
-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시설비 2.2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55)335-0314

심재가 참으로 영웅이니 그 문도들 또한 영웅이로다

<50> 명대(明代)의 양명학(陽明學)과 거사불교(2)

왕양명(王陽明)의 '치양지(致良知)'를 중심으로 하는 양명학은 '이학'의 한계로 오랫동안 고민하던 사대부들로부터 전격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그 사상적 유사성으로 승가에서도 상당한 반향이 일었다. 특히 자백진가(紫柏眞可)와 감산덕청(憨山德淸) 등 선사들은 양명학을 극찬하면서 이를 무기로 정주이학의 교조주의적인 폐해를 공격했고 우익지욱(藕益智旭) 선사도 "왕양명은 한대(漢代)로부터 송대(宋代)에 이르는 제유(諸儒)를 초월해 직접적으로 공(孔; 공자)·안(顔; 안회)의 심학을 설파했다. 일생동안 오직 '치양지(致良知)'의 세자만을 보였다. 양지는 성령(性靈)의 영명함의 본체이다"(<영봉종론(靈峰宗論)>권4)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왕양명의 사후에 양명학은 여러 학파가 동시에 일어나 명대 중후기 사상계의 주류를 차지했다. 특히 왕양명의 제자인 왕간(王艮)은 태주(泰州)학파를 창립했는데, 더욱 선학(禪學)에 깊이 들어가 그 학풍이 더욱 격렬해져 자주 '광선(狂禪)'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태주학파는 바로 명대의 거사불교를 대표하는 탁오 이지와 원굉도 거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지 거사는 북경에서 임관했을 때, 왕양명의 저작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남경으로 부임했을 때, 왕양명의 제자인 왕기(王畿; 龍溪)와 태주학파의 나여방(羅汝芳; 近溪)을 만났고 태주학파를 창시한 왕간(心齋)의 아들인 왕벽(王襞; 東崖)을 스승으로 삼아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에는 초굉(焦竑; 弱侯), 경정리(耿定理; 子庸) 등의 태주학파 학자들과 깊이 교류했다. 이지 거사는 태주학파의 사람들에 대하여 극도의 평가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의 <분서(焚書)>에는 다음과 같이 논했다.

"당시 양명선생의 문도들은 천하에 두루 있었으나 오직 심재(왕간)가 가장 뛰어났다…. 심재의 후예로 서파석(徐波石), 안산농(顔山農)이 있었다. 산농은 포의강학(布衣講學; 신분의 귀천, 지위의 고하에 구애받지 않고 가르침을 폈다는 의미)하며 당당하게 한 세상을 풍미하다 모함을 받았고, 파석은 관리로서 군대를 지휘하다가 광남(廣南)에서 죽었다. 용이 구름을 부르고 호랑이가 바람을 일으키듯이 각각 한 세상을 삶이 이렇구나. 심재가 참으로 영웅이니, 그 문도들도 또한 영웅이로다. 파석의 후예로 조대주(趙大洲)가 있었고, 대주 후예로는 정할거(鄭豁渠)가 있다. 산농의 후예로는 나근계(나여방)와 하심은(何心隱)이 있다. 심은의 후예로 전회소(錢懷蘇)와 정후태(程後台)가 있다. 이러한 한세대의 학풍은 매우 비슷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분서(焚書)>권2)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들은 모두 조사선에 깊이 매료돼 격렬한 학풍을 보이고 있어 불교의 거사라고 칭할 수 있다. 특히 이지 거사와 친분이 두터웠던 왕기 거사는 '양지'를 직접적으로 '불성'으로 보아 그 학설을 전개했다. 유가에서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양명학 정종(正宗)의 적전(嫡傳)에 이름을 넣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지 거사는 "성대(聖代) 유종(儒宗)에 있어서 인천안목(人天眼目)을 보임에 흠하나 없는 백옥(白玉)이요, 완벽하게 제련된 황금이다"(<분서>권3)라고 평하고, "세간에서 학문을 펼침에 있어 자고로 용계 선생(왕기)과 같은 이가 없었다"(<분서>권2)라고 극찬을 했다. 이지 거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태주학파 가운데 나여방과 초굉 거사 또한 유명하다.

왕양명 사후 양명학은 명대 중후기 사상계 주류 차지
불교의 부흥에 이지와 원굉도 두 사제가 크게 기여

나여방(1515~1588) 거사는 자가 유덕(惟德)이고, 호는 근계(近溪)로서 강서(江西) 남성(南城) 출신이다. 가정(嘉靖) 32년에 진사에 급제해 태호(太湖)의 지현(知縣)에 임명됐으며, 형부주사(刑部主事)에 이르렀다가 후에 운남(雲南) 부사(副使)로 좌천됐다. 거사는 안산농의 제자이다. 거사는 어려서부터 석전(釋典; 佛典)의 현종(玄宗)을 접해 깊이 연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수많은 선사들과 교류해 '양지'의 '현성(現成)'에 주력했고, "조사선의 핵심을 참답게 얻었던 인물"(<명유학안(明儒學案)>권34 <태주학안>)로 평가됐다. 이지 거사도 일찍이 거사가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뛰어난 가르침을 펼침에 존경을 표했고, 대강(大江; 황하)의 남방과 장하(長河; 장강)의 북방에서 널리 가르침을 펼친 것에 대한 찬탄을 보이며 류하혜(柳下惠; 춘추시대의 현자)의 '관화(寬和)'와 대웅씨(大雄氏; 부처님)의 '자비'를 갖춰 불교와 유가의 미덕을 한 몸에 실현한 인물로 평했다.(<분서>권3)

초굉(1540~1620) 거사는 자가 약후(弱侯), 호가 담원(澹圓)으로 강녕(江寧; 현 南京市에 속함)사람이다. 만력 17년(1589)에 진사에 합격해 한림원의 수찬(修撰)을 지냈다. 경정향(耿定向)과 나여방에게 사사받았다. <태주학안>에 따르면, 거사는 "탁오(이지)의 학문을 독신(篤信)해, 이지가 성인(聖人; 佛)은 아닐지라도 '광(狂)'의 한 글자를 감당할 수 있으니, 성문(聖門)의 두 번째 자리에 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불학(佛學)을 성학(聖學)으로 삼았다."(<명유학안>권35)라고 해 이지 거사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거사는 어려서 군서(群書)를 널리 배워 최종적으로 불교에 귀의했다. 특히 심성을 중시해 불경에서 설하는 바가 유가 심성론의 정의(精義)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사는 "유가의 '그 마음을 다함이 그 성품을 앎'이라는 것이 불교에서의 '식심견성(識心見性)'이니, 양교가 서로 통한다"고 강조했다.(<명유학안>권35) 만년에 거사는 점차 '염불삼매'에 전념해 수행하는데(<거사전>권44), 이는 바로 원굉도 거사의 영향이었다.

이지 거사를 스승으로 삼은 원굉도 거사 역시 수많은 태주학파의 인물들과 교류를 했는데, 최굉 거사 이외에 도망령(陶望齡), 관지도(管志道), 구여직(瞿汝稷) 등의 인물들이다. 팽제청의 <거사전> 권44에는 이들을 비롯해 15 거사들의 전기를 싣고 있는데, 대부분이 태주학파에 속한 거사들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관지도(1536~1608) 거사는 자가 등지(登之)이고 호는 동명(東溟)으로 강소(江蘇)의 태창(太倉)사람이다. 거사는 경정향의 제자로서, 융경(隆慶) 5년(1571) 진사에 합격했고, 남경의 형부주사를 역임했다. 어려서 경사(京師)에 공입(貢入)되어 "서산(西山) 벽운사(碧雲寺)에 머물며 <화엄경>의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을 읽다가 홀연 <주역>의 건원(乾元) 용구(用九)의 의미를 깨달아 심신을 반관(反觀)하고, 고금의 성현을 조견(照見)했다고 한다.(<거사전>권44) 이로부터 거사는 삼교일치를 주장했는데, 현존하는 원굉도 거사의 문집 가운데 불교와 유가의 관계를 논한 편지가 전한다.

도망령(1562-1609) 거사는 자가 주망(周望), 호는 석궤(石簣)로 절강(浙江) 소흥(紹興)사람이다. 만력 17년에 회시(會試)에서 수석을 했고, 전시(殿試)에서 3등에 급제해 한림의 편수(編修)를 제수 받았다. 관직은 국자제주(國子祭酒)에 이르렀으나 모친의 병환으로 사임하고 귀향했다. <거사전>에 따르면, 거사는 주여징(周汝澄; 호는 海門으로 왕기의 제자)에게 배웠고, <명유학안>에서는 거사의 학풍을 "무선무악(無善無惡)으로 바로 불교에서 설하는 '공(空)'이다"(권36)라고 평하는 것처럼 '무선무악'을 중심으로 전개했는데, 특히 "선함이 없음(無善)은 바로 선(善)으로 나아가는 첩경이고, 그릇됨이 없음(無非)은 그릇됨을 물리치는 핵심"(<헐암집(歇庵集)>권10)이라고 했다. 거사는 특히 원굉도와 초굉 거사와 매우 밀접했는데, "초굉과 함께 관직을 맡아 서로 경책했으며, 비로소 성명(性命)의 학문을 연구했다. (모친의 병환으로) 휴가를 청해 귀향하는 길에 오강(吳江; 吳縣의 오기)을 지나다가 원중랑과 3일 동안 학문을 논했다"(<거사전>권44)고 전한다. 거사는 만년에 운서주굉(雲棲袾宏) 선사에게 귀의하여 보살계를 받았다. 이후 여러 친우들과 함께 '방생회'를 결성하는 등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펼쳤다.


그림 · 김흥인

만력연간(1573-1620)에 이르러 불교계는 자못 '부흥'의 모습을 보였다. 왕원한(王元翰)의 <응취집(凝翠集)>에는 만력연간의 불교계 상황에 대해 "그 때 경사(京師)에는 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마치 숲을 이룬 것과 같이 많았다.

선지식으로는 달관(達觀), 랑목(郎目), 감산(憨山), 월천(月川), 설랑(雪浪), 은암(隱巖), 청허(淸虛), 우암(愚庵) 등이 있었고, 재관(宰官)으로는 황신헌(黃愼軒), 이탁오(李卓吾; 李贄), 원중랑(袁中郎; 袁宏道), 원소수(袁小修; 袁中道), 왕성해(王性海), 단황연(段幻然), 도석궤(陶石簣; 陶望齡), 채오악(蔡五岳), 도불퇴(陶不退), 채승식(蔡承植) 등 제군들이 있어 서로 왕래하며 도를 구했다"라고 적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언급되는 인물들이 승속을 불문하고 모두 양명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양명학이 불교의 영향으로 출현했지만, 양명학의 흥기는 다시 명대에 시들어가는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러한 불교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지와 원굉도 두 사제지간이다.

그러나 이지 거사의 자살(1602)과 병약했던 원굉도 거사가 사찰에서 병사(1610)하면서 명대 거사불교의 부흥은 오래도록 유지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들 거사가 남긴 영향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고, 그는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일면을 장식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㉓ 완당난화

스승과 제자의 향기나는 인연이 전해져



허련 '완당난화' 필사본, 1853년 이후, 지본담채, 26.5x12.9cm, 국립중앙박물관.

전라남도 진도(珍島) 출신으로 19세기 호남화단의 기틀을 마련한 소치 허련(許鍊, 1809~1893)은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제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젊은 시절 대흥사에 머물며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를 스승으로 모신 일을 계기로 해, 1839년에는 초의와 다연(茶煙)이었던 김정희의 문하생이 됐다. 허련에게 있어서 김정희는 심미안을 일깨워주고, 중앙화단으로 자신을 이끌어 일생에 전기를 마련해 준 은사였다. 김정희에게도 허련은 자신의 유배지인 제주도로 찾아와 일 여년을 함께 보낸 고마운 제자였으니 이들 사이의 각별함을 짐작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완당난화(阮堂蘭話)' 필사본은 이들 사제지간의 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난(蘭)그리는 법에 대해 소상히 밝힌 '완당난화'는 본래 김정희의 글로 허련은 이 첩의 필사본을 제작하면서 표지그림을 그렸다. 그는 문집에서 '(스승이) 세상을 떠나 구천에 머무시는 중에도 이따금 종이를 펼치고 글씨를 쓰시는 모습이 떠오르기까지 했다'라고 스승을 회고한 바 있는데, 그래서인지 허련의 추억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옮긴 듯한 이 작품은 '완당난화'의 주인공이자 허련의 스승인 김정희를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달리 구체적인 생활상이 고스란히 묘사된 이 그림에서는 조선말기 유학자 김정희의 삶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먼저 선비의 평상복인 심의(深衣)를 입고 위엄 있는 정자관(程子冠)을 쓴 채 서안(書案)에 앉아 글을 쓰는 김정희가 보인다. 서안 위에는 청나라의 경학(經學)과 고증학(考證學)의 새로운 성과를 담고 있는 중국서적들과 벼루, 찻잔 등이 놓여있다. 김정희를 곁에서 모시던 제자는 남다른 눈썰미로 스승이 아끼던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림에 담아낸 듯하다.

대각선 구도를 이루는 그림의 왼편에는 김정희를 향해 가지를 드리운 매화나무가 있다. 엄동설한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매화는 선비들의 인격 수양에 부합되는 윤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선비들은 때로 초봄에 피는 매화를 좀 더 일찍 자신의 서재로 불러들이기도 했는데, 가을에 야생 매화를 분재해 서재에 들여놓고 동지 무렵에 그 만발한 꽃을 보았던 것이다. 추사 또한 매화를 좋아해 '홍원매실(紅園梅室)'이라는 온실을 따로 마련했을 정도이니 그림 속에 매화나무 분재가 놓인 것은 이러한 그의 기호를 잘 반영한 것이리라. 매화 옆으로는 역시 이른 봄에 피는 수선화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수선화 역시 신선의 풍골을 지니고 있어 매화, 난과 더불어 군자의 덕성을 간직한 상징물이다. 매화와 수선화가 한창인 것을 보니 밖은 아직 추운 겨울이라 화문석(花紋席)이 깔린 서재 바닥에는 화로를 놓았다. 화로 위에는 한창 김이 오르는 제량호(提梁壺)를 올렸는데, 그 옆에 채색 찻잔이 놓인 것을 보니 음다(飮茶)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는 초의선사가 선차(禪茶)의 정신을 이어 차의 이론을 정립시키고 김정희와 같은 경화사족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인식시킬 때이다. 불교 지식에도 해박했던 김정희가 초의와 교유하며 그의 차를 애용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로 차(茶)와 시문(詩文)을 매개로한 이들의 인연은 내내 향기로운 이야기로 회자됐다. 때문에 그림 안에는 초의선사의 차를 아끼고 늘 가까이 했던 김정희의 모습이 보이는데, 다기(茶器) 역시 이러한 일화를 함축한 탓인지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답게 표현됐다.

이처럼 그림을 통해 스승을 추억하던 허련은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스승의 글을 필사하거나 판각해 많은 이에게 그 뜻을 알리는 데에 힘을 쏟았다. 초의선사 또한 김정희에게 차(茶)와 더불어 허련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니 향기가 나는 인연으로 이러한 예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만남은 그림 속에서 전해지는 차 향기만큼이나 은은하고 깊게 전해진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⑳ 사성선원



종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내려서 발끝의 길을 지웠고 발끝에서는 가야 할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높이를 낮추며 다가오는 산 끝의 기척이 돌아설 수 없는 발걸음에 지나간 시간을 묶었고, 눈발 끝에 묻어온 바람만 산 끝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눈 덮인 하얀 산이 더 이상 길을 보여주지 않자, 걸어온 길은 걸어온 길로 돌아가 버렸고 발끝에는 산 끝의 기척만이 남았다. 부설거사의 월명암이 있었고, 침묵의 힘으로 서있는 사성선원이 있었다.

잠시 수좌들이 비운 선방의 허공엔 가사 한 벌이 구름처럼 떠있고, 한생각 떠나보낸 좌복 위에는 어젯밤 자지 못한 죽비가 졸고 있었다.

詩가 있는 도량

▪ 立春

마침내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떼어 놓네
지금은 생의 느린 그림
환갑나이에 첫 걸음마 배우듯
털모자에 목도리 두르고
아내 손잡고 운동장을 걷고 있네
죽음의 협곡을 빠져나온 한낮
천천히 발걸음 옮길 때마다
누렁이가 꼬리치며 뒤따르고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의 발소리가 들리네
날카로운 바람의 주름
비둘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펼쳐주고
누가 날렸는지 가오리연이 꼬박꼬박하며 올라가네

–김장호,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등단했으며, 현재 시인은 여러 매체에 명사들의 인터뷰 기사와 칼럼을 쓰고 있다. 시집 <나는 乙이다>, 산문집 <희망 한 다발 주세요> 등이 있다.

옛 판화의 세계 — 여동빈이 법을 배우다 (洞賓參問)

'여동빈이 법을 배우다'는 이 그림은 <석씨원류(釋氏源流)>에 등장하는 삽화다. 당나라 때의 황룡 회기(晦機) 스님과 여동빈이 선문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선사에게 불복한 여동빈이 자신의 보검으로 회기 선사를 해치려 했으나, 스님이 이를 먼저 알아채 실패하는 장면이 판각돼 있다.

회기 스님은 회주의 언 선사에게 득법하고 교화의 길에 올라 악주의 황룡산에서 초혜(超慧) 대사라는 시호를 내려 받았다. 여동빈은 팔신선 중의 한사람이니 당시 도가의 실력자였다. 화산에서 종리권(鍾離權)에게 금단(金丹)과 검법을 전수 받았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동빈이 회기 선사에게 법을 청해 물었다. "한 알의 조 알갱이 속에 세계가 감춰져 있고, 반 되 들이 솥으로 산천을 삶는다는 이 한 마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황룡선사가 말했다. "원래 당신은 시체 같은 죽지 않은 귀신이구나!"

"화상은 내가 늙어도 죽지 않는 것을 조롱하지 말라. 나의 호주머니 안에는 장생불사의 약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당신이 설사 팔만 겁을 지내왔더라도, 하루아침에 공망(空亡)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 문답에 여동빈은 그만 불복하고 밤에 검을 날려 그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법의로 머리를 덮고 방장실에 단정하게 앉아 있으니 검이 땅에 떨어졌다.

이튿날 여동빈은 스님 앞에 찾아와 사과하니 스님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반 되 들이 솥으로 산천을 삶고 또 어떻게 하나의 조 알 속에 세계를 감출 수 있는가를 듣지 않았는가? 먼저 마음속에 아무런 물건(욕심)이 없어야만 능히 삼라만상을 둘러싸 안을 수 있다." 여동빈은 선사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오도송을 지었다.

"하나 있는 표주박 주머니도 버리고, 거문고도 깨뜨려 버렸다. 이제부터 불사약(금단)에 더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네, 이제 황룡 선사를 한번 만나본 후, 비로소 그 당시 마음 잘못 쓴 것을 깨달았다네."

선사와 도사의 법거량하는 장면이 무협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불전을 통해 불법의 수승함도 깨달아야겠지만, 문화의 시대에 좋은 포교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동빈참문(洞賓參問),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Premium Natural Guava Story
"구아바는 신이 내린 선물 입니다."
▪ 각종 TV프로그램에서 인정한 "의령 구아바"
▪ 2009년 12월 11일 : KBS "VJ특공대" 출연 ▪ 2009년 04월 17일 : KNN "생방송 금요일N" 출연 ▪ 2007년 03월 22일 : KBS "무한지대 큐" 출연
▪ 2009년 11월 01일 : MBC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출연 ▪ 2008년 10월 09일 : KBS "6시 내고향" 출연 ▪ 2007년 03월 09일 : KBS "세상의 아침" 출연
▪ 2009년 10월 14일 : KBS "6시 내고향" 출연 ▪ 2008년 03월 10일 : KBS "6시 내고향" 출연
구아바 선물세트 Guava Body Set • 45,000원
천연 한방 샴푸, 천연 한방 바디클렌져, 항균비누로 구성된 구아바 스토리 바디세트는 소중하고 귀한분들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Shampoo 500ml + Body Cleanser 500ml + Soap 3ea
구아바 선홍차 Guava SunHong Tea • (50g) 35,000원
구아바 선홍차는 두텁고 성숙한, 영양 가득한 차잎을 한잎 한잎 손으로 따내어 수차례 정성껏 덖어 만들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 언제든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구아바 천연 한방 샴푸 Guava Shampoo 500ml • (1EA) : 15,000원
구아바 천연 한방 바디클렌져 Guava BodyCleanser 500ml • (1EA) : 15,000원
구아바 항균 비누 Guava Soap 100g×3개 • (100g×3EA) : 15,000원
구아바 삼각티백 • (1g X10티백) : 7,000원
※ 주문 수량에 따라 가격 절충 가능 합니다!
온라인주문 www.guavakorea.co.kr www.guavaland.co.kr
전화주문 055)574-5025~6 | Premium Natural Guava Story

신수비결 (효타비결서)
2010년 경인년의 운세 (25,000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성씨 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으며,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였음
※ 회원님께는 1개월 동안 40% 할인해 드립니다. (3만원 착불)
역학(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개인지도 2주에 완성 해 드립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010-7121-9406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방한용털신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털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5mm단위)
부츠(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특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20,000원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경인년 새해 하시는 모든 일 원만성취. 사부대중의 건강을 발원합니다.
◆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69호 현대불교
2010년 2월 3일(음 12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보이지 않는 문이라야 되는 거지 딴 구멍은 없어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제가 여기 스님 앞에서 다 고백하는데요, 올해 37세 먹은 노총각입니다.

큰스님: 그러세요?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 색시들이 다 어디로 갔남? (대중 웃음)

질문자1(남):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마는 참, 남의 집 귀한 딸들에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큰스님: 미리, 장가도 안 들고 미리요? (대중 웃음)

질문자1(남): 그것 때문에 참 죄의식도 많이 느끼고, 그게 또 어떻게 계기가 돼 가지고 스님 말씀도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자 여자 따로 보이고, 또 여자도 예쁜 여자하고 좀 안 예쁜 여자하고 차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저 역시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성도의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주변 사람들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잘못된 버릇을 빨리 좀 고치고 싶습니다.

큰스님: 네.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더도 덜도 말고 당신 같은 사람만 꼭 얻어요. (대중 웃음) 왜냐하면 내 분수에 넘치게 올려다봐도 안 되고 내려다봐도 안 됩니다. 단, 당신에게 걸맞고 아리따운 마음씨를 가진, 그저 아주 이쁘지도 않고 아주 못생기지도 않고, 그냥 마음씨 알뜰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시도록 하세요. 이 마음공부라도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럼 뭐, 엊그저께 만났던 사람도 쓸쓸하지 않아요? (대중 웃음)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이 모습으로 몇 알갱이나 살다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씨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극치적인 모든 일들의 이미지를 아주 말갛게 귀정을 짓고 가야, 요다음 생에 또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올 때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소통령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하하하….

질문자2(남):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마음 법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생활이 즐거워졌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당당한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교를 접한 것은 한 15년 됐는데 그 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님 말씀처럼 수박 껍데기 핥는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법을 알고 나니 정말 수박을 쪼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체험 가운데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시작이지만 이 생에 뭔가를 꼭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확고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세속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돈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고, 또 고민을 해 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원과 욕심과 탐심이 구별이 안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서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탐심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를 믿는 네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그게 제대로 믿는 건가.' 하는 내면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도 하는데, 이 서원과 욕심이나 탐심을 불교하고 연관지어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우리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돈이 없으면 참 궁하고 괴롭고 그렇죠. 그런데 묘한 법이 있습니다. 돈을 꼭 써야 할 때는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죠. 남한테 꾸러 가지 않고 돈을 쌓아 놓지 않고도 어느 거든지 내 것 아님이 없이, 내가 쓸 때가 되면 딱 나오게끔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 방법을 몰라서야 어찌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이거 바가지가 없어서 물을 풀 수가 없는데….' 이러면 벌써 주인은 알고 '어, 바가지가 있어야 내 심부름을 하겠구나!' 이러고 바가지를 덜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돈이 당장 없을 때, '돈이 없는데 이거 참, 어떡해야만 돈을 만들어서 쓰나. 어떻게 해야만 이걸 갚나.' 하고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빼끔히 들여다보다가 달아 나가요. '저 집으로 내가 들어갔다가는 그냥 찢기고 온통 야단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사람의 마음도 몸도 모두가 일거수일투족 한 마음이 돼서 그 가운데서 다스리는 주인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이 법당채를 지을 때 말입니다, 돈 한 푼 없었죠. 그랬는데 이런 집 한 채를 갖다가 그냥 털컥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그러더니 사람들이 돈을 그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게 된 겁니다. 오래 끌지도 않고요. 만약에 내 사사로운 욕심을 내서 이거를 그냥 움켜쥐려고 했다면 이거 안됐습니다. 이거는 모두의 집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넉넉히 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돈 없다고 돈을 생기게 해 달라고 원을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 줄 거라는 거,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움죽거리게 하고, 살게 하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심부름꾼에게 돈을 안 줘서 심부름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 그놈이 다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놈한테다가 딱 맡기고 콧방귀 콱 뀌라고요. 아, 무슨 걱정입니까? 예를 들어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으면 하인은 그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그뿐이지, 돈이 없고 있고에 무슨 참견을 하느냐 이겁니다, 네? 살림할 게 없으면 주인이 어련히 줄까 봐. 아, 주인이 주면 하고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는 진짜 주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하인도 없고 진짜 그 가운데 그냥 자기가 자유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을 지피는데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 마른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에 따라서 쏘시개가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하죠. 그러니까 마른 나무와 젖은 나무에 똑같이 불쏘시개를 한다면 젖은 나무는 안 타요. 그렇죠? 마른 나무는 불쏘시개를 조금만 해도 타 버리는데 젖은 나무는 불쏘시개를 똑같이 갖다 놓고 하더라도 그 불쏘시개만 홀랑 타 버리고는 안 타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

☞26면으로 계속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학인 및 염불원생 모집

■강원생 모집 (수시모집)
– 초심반, 치문반, 사집반

■염불원생 모집 (수시모집)
– 기초의식 (3개월), 전문의식 (6개월)

■대 상 : 사미, 사미니, 비구, 비구니, 타종단 가능

■강 사 : 경담스님(중요무형문화재 범패 50호 이수자)

■특 전 : 치문반, 사집반은 월 300,000원 개인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승복차림사진(3×4cm) 3매

※ 문 의 : 061-754-5247, 011-254-3037(주지스님)
주 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선암사
홈페이지 : www.seonamsa.co.kr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 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 · 범패 교육원

buddhanews.com

그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주인공에 맡겨서 모두 하셔야

☞25면에서 계속

도 돼 있어야 나무가 말라서 잘 타는 것과 같고, 수행이 돼 있지 않다면 아주 젖은 나무와 같아서 안 타죠. 그러니까 아직도 껍데기에, 즉 말하자면 타의에서 구하는 습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녹이려면 아예 진짜로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훨훨 탈 테니까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질문자3(남):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저는 56세가 됩니다. 신사생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것은 제가 살아온 것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로부터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기저귀에 싸여서부터 해남 대흥사(大興寺)에 다녔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혀서요. 내 나이 때만 하더라도 무녀독남이면 귀한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좀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저는 서울법대를 오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네 번을 넘겨서, 연탄가스 중독돼서 죽다 살고, 옻칠한 상에서 밥을 먹다가 옻이 올라서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연달아 나서 네 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하여튼 서울법대를 8명 들어왔으니까, 좀 괜찮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거기 입학할 때는 수석도 했고 그래서 자신있어 했는데, 내가 들어간다, 내가 시험을 친다고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도 했고, 또 사법시험을 본다고 하면 계속 사고가 나서, 열한 번을 쳤는데 1980년도에는 집안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해서 더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가솔도 있고 그래서 사법시험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인연이었는지 요가다, 지압이다, 경락 등이다 해 가지고, 산간벽지에 가서 고시공부를 하다 급체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을 돈도 안 받고 한 번만 만져 주면 다 나았는데, 막상 내 문제는 하나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실패작이라고 했습니다.

고시에 뜻을 두었다가 20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동창회 모임을 십 몇 년을 하다, 불사에 관련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돌산을 시작했는데 한 2년 전에 애당초의 방향과 틀려져서 그 돈을 가계수표다, 카드다 해 가지고 지난 5월 31일에 몽땅 갚아 주었지만, 그것이 구르고 구르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해서, 지금 아주 높은 이자와 함께 현재 빚이 한 1억 5천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일만 잘 풀리면 되기는 되는데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겠고, 지난 11월에는 집도 절도 없다는 말처럼 자식과 마누라하고도 헤어졌고, 집도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조계종 절은 아닙니다만 보살이 운영하는 조그만 암자에 가서 그야말로 의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11월경 큰스님께서 간접적으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해 주셔서 그걸 읽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지금은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불법에 인연을 맺고 귀의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너무나 잘못된 입력들로 인해 또 지금 제 수행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쁜 결과가 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은 안돼도 대는 이어 달라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더라고요. 딸만 둘 내리 낳은데다가 집사람이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도 있지만, 숙원이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얻어서 아들은 겨우 하나 낳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얽혀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91년도에는, 업보성이었는지 당뇨하고 폐결핵이 겹쳐서 세 번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고, 좀 좋아지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라고, 모두 불자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책임지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을 업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매여서 휘말렸는데, 이제는 업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다 잘되었다. 당신이 했으니 당신 책임이다.' 하고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아직 과거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큰 가르침 주십시오.

큰스님: 우리가 말입니다, 산을 가로질러 끊더라도 거기 지신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관리인하고 같이 한마음이 돼 주어야 아무 기탄이 없고, 하다못해 나무를 한 그루 자른다 하더라도 그 나무와 더불어 나하고 한마음이 돼야 그 나무 물체는 잘라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사 걸 자기가 한다고 그냥 모두 날쳤으니 뭐가 됩니까? 그리고 어머니 때부터 믿으신 것도, 믿어서 결정을 짓지 못할 거라면 애당초에 믿지나 말 것이지 그냥 이리저리 벌여 놓고, 여기 떠 놓고 빌고 저기 떠 놓고 빌고 해서, 오히려 마구니를 끌어들여 가지고선 해결을 못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우님들은 그 무엇을 하시더라도 오직 주인공에 맡겨서 모두 하게끔 하라 이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만약에 소를 잡지 않으면 안 돼서 소를 한 마리 잡는다 하더라도 주인공에 맡기고 잡았을 때는 살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의 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또 소의 근본은 바로 무명을 쳐서 나한테 집어넣었으니 사람이 된 거죠, 금방. 금방 내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굴려서 재생이 돼서 사람으로 인도 환생을 한다면 그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 수레에 한 번 굴려서 내놓으면 그렇게 공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렵고 가난하고 무질서하게 살지 마시고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사신다면 어떠한 괴로움의 상처도 가실 수 있고 어떠한 괴로움의 구덩이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질문자3(남):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마음 입장에서 보면 똑같겠지만요, 지금 저와 같은 무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쓰러지는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그 쓰러질 가능성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 중간기업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내서 어떻게 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픔을 아니까 같이 아팠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큰스님: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지를 돕는데 어떻게 해야 제일 잘 돕느냐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라는 습성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자꾸 잘못돼 돌아가고 얻어먹기만 하게끔 만드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보태 주기만 한다면 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가만 두는 겁니다. 가만 둬도 잘돼 갈 겁니다. '가만 둬도 잘돼 갈 겁니다.' 하는 소리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꼭! (잠깐 말씀을 멈추시고)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 게 생기죠. 모두가!

질문자4(남): 큰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광주지원 청년회에서 왔습니다. 큰스님 법문 중에 문을 찾되 보이는 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 아닌 문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진리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진리를 찾아가는 방편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보이고 잡히는 걸로 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듣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가다 보면 항상 보이는 걸로써 자꾸 저를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로써 그 문 아닌 문을 찾아야 되는데 또 넘어질 때는 안 보이는 걸로 자꾸 넘어집니다. 큰스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 아닌 문을 찾되 문 아닌 문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찾는 것이며 그 문 아닌 문, 그 안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비록 법문 중에 큰스님께서 백번 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새기는 심정으로 큰스님께 질문드립니다.

> 하여튼 어렵고 가난하고 무질서하게 살지 마시고
>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사신다면
> 어떠한 괴로움의 구덩이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큰스님: 몸뚱이로서는 문을 꼭 찾아서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죠?

질문자4(남): 네.

큰스님: 그런데 마음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마음이 나가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갔다 와 보세요. 어디로 나가야죠? 마음이 문을 찾아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야 될까요. 난 여기서 저 건너 내 방이 있는 데를 그냥 벽도 봇장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가지는데…, 저 건넌방 가는 것이나 지구 전체를 도는 사이가 같은 사이에요. 다른 우주나, 태양에, 또 다른 혹성에 간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생각 딱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몸속에서 수없는 입자가 만약에 벽도 없고 봇장도 없이 그냥 나간다면, 문도 없이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두고 '천백억화신이 나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는 것만 해도 아주 최상의 첨단이죠. 그래서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의식을 입자로 내보낼 때 그렇게 한계가 없죠. 그런데 무슨 문이 필요합니까? 문은 이 몸뚱이, 모습이 있는 걸로 족하지 진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창과 칼과 활을 썼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 대포, 뭐 심지어는 로케트까지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또 그것보다 더 광대한 문제를 어디서 가져와요? 그리고 빛보다도 더 빠르고 한계에 부딪치지 않고 가고 올 수 있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거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문을 찾으며 배우려고 하지 마라. 문을 찾으며 공부하는 자는 학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찾는 거고,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건 문이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마음은 문을 찾지 않아도 아무 데고 문이 된다는 거, 은산철벽도 문이 된다는 거, 깊은 물도 문이 된다는 거, 허공도 문이 된다는 거, 그냥 어디고 문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그렇게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부처라고 이름했고, 공덕이라고 이름을 했죠. 공덕! '일산(日傘)의 공덕은 크고 작음도 없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자기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그 주인공이 문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이라야 되는 거지 딴 구멍은 없어요. 과거, 미래를 둘 아니게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문은 그 문밖에 없어요.

사회자: 질문이 없습니다.

큰스님: 오늘 여러 법우님들하고 같이 도반으로 한자리에 앉았던 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구,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집이 망가지거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생명이 살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 지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것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래도 거기다가 놓을 줄 아니까, 우주 천지에 직결이 돼 있으니까 다 알고 다 수습하겠구나. 괜찮겠구나. 부딪치지 않겠구나. 쥘지 않겠구나. 팽창되지 않겠구나. 에너지가 없어서 못 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참 거룩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모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쓰는 데서 연방 직결이 돼 있거든요. 연방 직결이 돼서 가설이 돼서 통신이 되거든요, 우주하고도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하지만 차차 공부를 더 하면 알게 돼요!

※위 법문은 1996년 1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종 도 모 집

함께할 종도 여러분을 모십니다.

※**본 종단**은 **비구부 · 비구니부**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스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입종서류**

1. 본 종 입종 소정 양식-1부
2. 여권 사진-4매
3. 주민등록등본-1통
4.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1매
5. 사찰 내 · 외부 사진-1매

입종과 동시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총무원(02)379-5502 / FAX (02)379-0843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94번지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어머님께서 벽에 부처님 그림을 붙여놓고 향과 초를 피우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십니다. TV에서 보아왔던 무당집 같아 상당히 거북합니다. 주위 분들도 무속이 아닐까 걱정하고요.

A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린다는 건 어지간한 정성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정법이다 무속이다 분별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새벽마다 올리는 기도가 자식과 가정을 위하여 얼마나 정성이 가득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더욱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보통 절에서 부처님이나 탱화를 모실 때는 점안식이라는 절차를 거쳐 모시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 닿는 곳 처처(장소)가 도량(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 하셨어요. 재가자들이 부득이 절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드릴 때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전을 올려놓고 향이나 초를 피워놓고 기도를 드리지요. 향과 초를 피우는 건 자신의 온갖 잡념과 망상을 털어버리고 부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어머님에 대해 걱정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불화 보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무속인?
불교 알아 새벽기도하는 어머니 이해해보세요

Q 부모님 돌아가시고 조계종 이름 있는 절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7번 기도하며 49재를 지냈습니다. 그럼 천도가 다 됐는데 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A 49재는 망자의 생전에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극락 또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태어나시게 하는 천도의식이 맞습니다.

제사는 휘일(돌아가신 날)에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우리의 전례전통 풍습인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후손의 도리인 것처럼 관습화된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는 것을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극락을 가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 초심자로 불교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며 지금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력에 대한 정보도 필요로 하시지만, 방편에 대한 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의 길(대기설법)이라 하셨습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하는 정근기도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방편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참 기도에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출가 수행자가 될 수 없듯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오신 부처님이 바로 보살님입니다. 즉, '불'과 '보살'은 둘이 아닙니다. 이 개념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 수행이며, 이것이 집착이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방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불'과 '극락'이라는 집착 역시 놓아버리는 수행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매일 법회 봉행되는 군 불심의 중심

희망법당 탐방

호국원광사



예비역 장성불자회 '예불회'와 국군불교총신도회 소속 장성불자, 가족들이 원광사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국방부에 위치한 호국원광사(주지 종오 고현등 법사)는 국군 최초 군법당이다. 호국원광사는 군불교를 상징하는 만큼 법당의 성격과 신도들의 구성이 타 법당과 달리 독특하다.

호국원광사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의 관계처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위치해 교구 지원법당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군승법회와 교육, 장성 취임법회 등 각종 법회 및 행사들이 매월 수차례씩 진행된다.

또한 군불자를 총괄하는 국군불교총신도회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장성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주지 고현등 법사는 "호국원광사는 군불자 특히 불자

국군 최초 군법당… 군불교 상징이자 마음의 고향
교구 지원법당 특화… 신도관리 체계화로 신자 증가

군장성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성의 경우 먼곳에서도 지역사찰보다 마음이 편한 원광사를 즐겨 찾는다는 전언이다.



종오 고현등 법사.

장성부인회, 성보회 정기법회 등 부녀회의 활동도 원광사를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산훈련소를 돕는 어머니 모임인 불교어머니회와 같은 단체들도 원광사에 자리해 젊은 불자 수급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원광사와 타 군법당의 또 다른 차이점은 영외에 위치해 일반신도들이 많다는 것이다. 원광사에서 장성 · 일반인 · 사병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법회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금강회와 법우회, 불심회 등 다양한 모임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며, 일요법회, 화요 오찬법회, 수요 참회법회 등 법회가 매일 봉행된다. 일반인들을 위한 서예교실, 다도교실, 한지공예강좌 등 문화교양 강좌도 개설돼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원광사 합창단의 경우 각종 법회에서의 음성공양을 넣어 장성과 사병, 그리고 가족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 속에 원광사는 최근 고현등 법사 부임 이후 1년간 일련의 변화를 겪고 있다. 신도관리 체계화를 통해 신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 원인에는 원광사 측이 실시한 감동서비스가 있었다. 고현등 법사는 장성 및 임원 가족 생일과 각종 기념 법회 등에 문자메시지 및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했다. 또 기존 사찰에서 연등비, 기도비 등을 DB화 한데서 더 나아가 각 신도별 불전봉투를 지급해 통상 무기명 보시로 되던 보시금을 체계화시켰다.

고현등 법사는 "각종 기념일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각종 법회와 프로그램에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며 "또 임기초 교체한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통해 보시금 및 기도비를 관리, 연말정산 등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무주상보시를 원하는 신도들에게는 무기명 봉투가 지급되는 등 관리 다각화도 진행됐다. 고 법사는 또 기존 수요, 일요법회에서 오찬법회와 참회법회 등 매일 법회가 봉행되는 사찰로 변모시켰다. 특히 매회 20~40명씩 참석하는 참회법회의 경우 기존 법회 방식에서 경전강의와 참선 등이 진행돼 성도재일법회 시 300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2010년 호국원광사는 이러한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외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심검당 증축불사 등 사격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신도 배가 계획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현등 법사는 "용산의 각 고층아파트마다 원광사를 비롯한 불교사찰의 불자회들이 들어섰으면 하는 원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회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교구 활동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 군포교 핵심사찰의 위상이 더욱 우뚝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호국원광사는?

호국원광사는 1969년 8월 14일 육군본부 중앙법당으로 그 문을 열었다. 호국원광사는 국군 첫 법당인 만큼 초기 군불교 역사의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갖고 있다.

1968년 11월 30일 군법사 1기 5명이 임관한 이후 불교계는 변변한 군법당 조차 갖지 못했으나 9개월 만인 1969년 4월 23일 착공한 공동 종교센터를 통해 군포교를 시작했다.

공동 종교센터는 1980년 11월 공간이 협소해 종교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사무실과 다목적홀 등을 갖춘 현재의 2층 법당으로 증축됐으며,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 관할로 바뀌어 국군중앙법당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

1993년 일주문, 종각, 3층석탑, 공덕비, 수련관, 심검당 등을 조성하는 중창불사가 진행돼 호국원광사로 재명됐다. 현재 원광사는 군포교 역사의 산실로 호국영령법회 등 군종교구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길상사 불교대학 개설 2010년 신입생 모집

도심 속의 아름다운 산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 불교대학을 엽니다.
불교에 대한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명쾌한 강의를 통하여 정법의 이해와 바른 수행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 학 제 : 1년 2학기제 (3월 3일 개강)
· 교 수 : 정화스님, 덕현스님, 남전스님, 이평래, 김재성, 서재영, 홍가이 외
· 과 목 : 불교개설, 불교수행, 기초신행, 초기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
대승경전 강설, 선의 역사, 선어록, 불교문화예술
· 일 정 : 주간반 - 매주 수요일 낮 2시 ~ 5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반
· 수강료 : 1년 40만원
· 대 상 : 불교의 바른 이해와 수행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 200명 (선착순)
· 문 의 : 종무소 02)3672-5945 / www.kilsangsa.or.kr

※ 불교대학의 심도 있는 강의를 따라갈 수 없는 분을 위해 마련한 기초과정도 있습니다.
· 기초교리 : 매주 화요일 2시/ 3월 2일 개강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2시/ 3월 6일 개강

'현재의 나 자신은 과거의 나 자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날일 수 있다.'
- 법정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中

출강 및 통신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대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법 사 과 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 법 사 과 정 = 2년 (교과목 및 범음 · 범패)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교육원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 팩스 · 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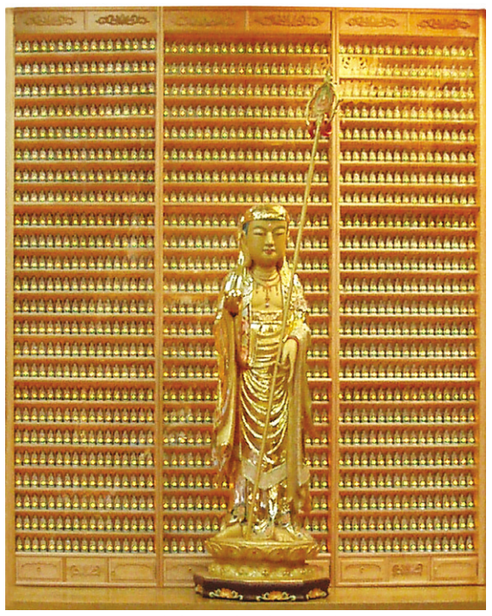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 름 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등


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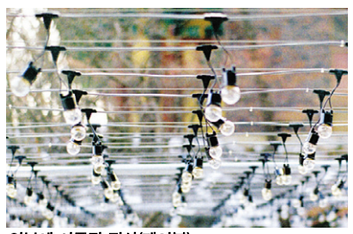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태성전기난로
Tae Sung Power Heater

주문당일배송

불자님을 위한 특별할인 보급

마지막 100대 한정
TS 7300 (1.2㎾) = ~~68,000원~~ ➡ 48,000원
TS 7200 (2.0㎾) = ~~78,000원~~ ➡ 58,000원
TS 7000 (3.0㎾) = ~~88,000원~~ ➡ 68,000원

강력한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강력난방

실내전체가 훈훈한 태성전기난로 유지비까지 저렴하고 정말 좋네요!


고구마, 떡도 익히는 고열량 방출


가습기 기능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 놓으시면 건조한 겨울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여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특별할인가 48,000원
▲TS-7300 적용면적 : 10.56㎡ (3.5평형)
열량/ 1.2㎾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2㎏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1.2㎾×8=667원
●TS 73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A


특별할인가 68,000원
◀TS-7000 / WJ3000 적용면적 : 24㎡ (7~10평형)
열량/ 3.0㎾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3.0㎾×8=1,668원
●TS 70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1


특별할인가 58,000원
◀TS-7200/ WJ2000 적용면적 : 16.5㎡ (5평형)
열량/ 2.0㎾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3㎏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2.0㎾×8=1,112원
●TS 72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상기 등 일반전기, 산업용전기 사용은 제외)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초강력 난방으로 전기료 절약!!

1일 8시간 사용시
3㎾ 기준 1,668원
(누진세 미적용)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주점/팬션)

구입문의 : 080-810-8800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양유정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